2015 미술주간행사

가이드

미술주간행사 기간

2015.

11.23 - 11.29

목차

미술주간 특별행사 2

전국 미술 지형도

서울 3
경기 22
인천 33
대전 / 충청 40
전북 49
광주 / 전남 58
강원 72
대구 / 경북 82
부산 / 경남 92
제주 102

11월 문화가 있는날(11. 25) ● 112

'사립미술관 문화 · 교육프로그램 지원' 참여 미술관(11. 25) ◆ 124

'2015 미술주간'은 미술계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행사입니다.
이 가이드북은 미술주간을 맞이하여 전국에서 열리는 전시·행사·교육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또한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술전문가들의 지역 소개글을 함께 수록하여 생생한 미술 현장에서의 체험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미술 주간 특별 행사

2015 미술주간행사 특별 학술행사

주제 : 명작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일시 : 2015. 11. 26(목) 13:30 - 18:00
장소 : 아르코미술관 스페이스 필룩스
진행 : 한국미술평론가협회
대상 : 미술에 관심 있는 누구나

미술계의 주축을 이루는 '작가 · 시장 · 제도'에 대한 구조적인 진단을 통해 미술인의 복지가 다양하고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여 향후 한국미술의 세계화를 구축하고자 한다.

미술인 보수지급제도(아티스트 피) 정책토론회

행사 : 미술인 보수지급제도(아티스트 피) 정책토론회
일시 : 2015. 11. 25(수) 13:00-18:00
장소 : 대학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센터 5층 스튜디오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미술인 아티스트피 지급 현황 및 문제점 분석 해외 보수지급체계 특징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정책개선 방향 제시

2015 미술주간행사 특별 전시

전시 : 나는 무명작가다
일시 : 2015. 11. 24(화) - 11. 29(일)
장소 :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제1, 2전시실
운영 : 11:00 - 19:00, 수요일 21:00까지 연장 운영, 일요일 13:00 마감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의 : T. 061-900-2204, www.arko.or.kr

2015년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2015 미술주간'을 맞이하여 마련된 이 특별전시는 작품 관람뿐 아니라 작품 소장에 대한 문턱을 낮추어 미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키우고, 잠재적 컬렉터층을 확대하는 취지로 진행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8월,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의 작품 구입 공모를 진행하였고, 총 2차례에 걸친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200여점의 우수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작품은 <나는 무명작가다>전에서 작가의 이름 · 작품명 · 출신학교 · 경력 등을 보여주지 않고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관람객은 '예술나무 후원금' 기부(10만원)를 통해 작품 소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전시를 통해 적립된 후원금은 미술 분야에 다시 지원될 예정입니다.

전시 기간 동안 작품소장을 희망하는 관람객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마지막 날 추첨을 통해 작품 소장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작가들의 정보는 전시가 끝난 후 아르코 홈페이지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작품분야 - 시각예술분야 평면작품(회화, 사진, 서예 등)
작품수 - 197점
작품크기 - 4호 이상 10호 이하

전국 미술 지형도 서울

한국의 '중심', 문화예술의 '주변'을 보다

호경윤(아트 저널리스트)

서울에는 모든 것이 많다. 지역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또한 문화예술 시설도 많다. 중앙 집중 현상은 세계 어느 곳이나 비슷한 형편이다. 가까운 아시아 국가들에 방문해서 현지의 예술인들을 만나면 한국, 다시 말해 서울의 문화예술 환경을 부러워 하곤 한다. 이래저래 서울은 아시아에서도 문화예술이 넘쳐나는 풍요의 도시인 셈이다. 특히 최근에는 새로운 예술 공간이 서울 시내 곳곳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미술 전시 정보를 알리는 무료 유료 잡지들이 넘쳐나고, 미술 전문 웹사이트에서도 전시 알람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오늘의 '미술 순례'는 또한 미술관과 갤러리라는 전형적인 전시 공간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적으로도 삼청동이나 청담동 일대에만 그치지 않고 서울 끝자락의 영등포구에서 노원구로 횡단한다.

그 중에서도 올해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는 작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소규모 공간이다. 2015년에 개관한 곳만 노토일렛, 청량엑스포, 연결통로아카이브, 합정지구, 정신과시간의방, 미연씨, 우정국, 스튜디오 MRGG, 200/20 등에 이른다. 집계조차 어려울 만큼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고 있는 이러한 공간들은 작가들의 작품만큼이나 제각각 다른 모양새로 꾸려지고 있다. 운영자들은 별도의 생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들의 공간이 대체로 임대료가 낮은 공장지대, 상가, 재래시장, 미개발 지역 등에 분포돼 있다. 전문적인 마케팅 전략이나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각기 자유로운 방식으로 경제적 측면까지 진지하게 모색하는 곳도 있다. 중구의 4개 공간 800/20, 300/20, 200/20, 개방회로는 지난 3월 〈세운상가 좋아요, 대림상가 좋아요, 청계상가 좋아요〉를 함께 진행하며 공간별 전시는 물론 사생대회, 상가 투어 프로그램, 30년 이상 종사한 베테랑 상인들과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올해 4월부터 딱 1년만 운영할 것을 미리 밝힌 작가 그룹 789의 '정신과시간의방'은 789의 작업을 2주마다 연속적으로 교체하며 전시하고 전시 작품을 직접 판매하기도 한다.

갤러리, 미술관이 아무리 많다 해도 전시할 기회를 잡기 어려운 젊은 작가들은 이제 이렇게 스스로 자신이 활동할 '무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체성의 공간들을 통칭할 적당한 명칭도 나오지 않았고, 각기 개별적으로 자생하려는 운영자들은 쉽게 모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간들의 전시 정보를 모아 실시간으로 트위터에서 알려 주는 엮는자(@herbererr)도 등장했으며, 지난 10월에는 20~30대 젊은 작가 80명과 서울 시내 신생 미술공간 15곳이 꾸린 미술품 직거래장터 <굿즈>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어 성황을 이뤘다. 이번 달에는 일민미술관에서 <언리미티드 에디션> (11. 4 - 5, 11. 7 - 8)이 열린다. 얼핏 유사한 성격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언리미티드 에디션은 아티스트북 중심의 북페어로 올해로 7회 째를 맞이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올해는 처음으로 미술관으로 진입하여, 미술계의 주요 행사로 성장했음을 방증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젊은 작가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2015년, 사실 시작은 몇 년 전부터 전조가 있었다. 1세대 대안공간이 한국 미술계의 주요 기관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또 다른 대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2년 전 11월, 비슷한 시기에 각각 통인동과 문래동에 시청각과 커먼센터가 개관하여 지금까지도 운영되고 있다. 두 공간은 작가가 아닌 큐레이터가 만들었지만, 최근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이 작업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같은 해 개관한 이태원의 아마도예술공간에서는 <조준용 개인전> (11. 16 - 12. 20)이 열린다. 조준용은 아마도예술공간의 주최로 40세 미만의 국내 및 아시아 국적의 작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아마도 사진상' 의 선정 작가다. 약 3년의 영국 거주 기간 동안 '시간성'을 주제로 작업을 진행해 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시간성'이라는 주제를 토대로, 다른 시간대인 한국에서 경부고속도로 등 특정 공간을 사진으로 담아낸다.

그러나 서울에 아무리 전시장이 많다 하더라도, 특정 전시를 보려다 여차하면 전시 기간을 놓쳐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아무때나' 가까운 곳의 아트 레지던시를 방문해 보면 어떨까? 2000년대 접어 들면서 서울시의 유휴공간을 예술가의 작업실로 바꾸는 사업이 대대적으로 펼쳐져, 서울문화재단 소속의 레지던시, 이른바 서울시창작공간이 서울 곳곳에 10여 군데에 있다. 그 중에서 시각예술 중심으로 운영되는 곳은 금천예술공장, 문래예술공장, 서교예술실험센터 등이다. 레지던시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365일 언제나 작가들이 상주하고 있어 생생한 창작의 현장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는 상암동 월드컵공원 부지에 위치해 있다. 마침 11월 20일부터 3일 간 9기 작가(김은형, 노상호, 로와정, 박여주, 박정기, 박천욱, 서정희, 손혜민, 송수영, 심래정, 안정주, 유쥬쥬, 이보람, 이우성, 이윤이, 장민승, 장태원, 전소정, 정문경, 조재영, 주세균 등) 가 스튜디오를 개방한다. 내집에 남을 초대하는 건 참으로 맘 설레는 일이다. 그런가하면 살림살이와 옷가지들을 내보이는 건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다. 남에게 내 속살을 보여주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 입장을 바꿔보자. 남의 집에 초대받는 일 역시 설렌다. 타인인 나를 초대한다는 건 친근함의 표현이며, 그 기회로 더욱 친밀해질 수 있다. 특히 난지미술창작 스튜디오에서는 올해 레지던시 외에도 <2015 난지 아트쇼>를 별도로 진행했다. 난지전시실에서 진행될 <2015 난지아트쇼 다시보기>전은 <2015 난지 아트쇼>를 되돌아보기 위해 올해 진행하였던 난지 아트쇼의 전시전경 및 시각자료를 아카이빙하여 선보인다.

미술관과 갤러리, 대안공간과 레지던스의 구분으로는 더 이상 최근의 아트씬을 규정할 수 없다. '대안공간= 비영리, 갤러리=영리'라는 등식도 깨진 지 오래다. 대부분의 공간들은 전시뿐 아니라 워크숍, 출판, 투어 등 닥치면 무엇이든지 하는 것 같아 보인다. 각양각색의 예술공간을 운영하는 작가, 큐레이터, 연구자, 특정 집단들은 각자 다르게 처한 사회적 예술적 맥락을 외부에 이해시키고, 또 다른 문화권의 것을 수용함으로써 그 다음의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나간다.

23 월	전시 <나는 무명작가다>	아르코미술관	오프닝 : 11.23, 17:00 11. 24 - 11. 29
	전시 <백남준 그루브 홍>	세종문화예술회관	11. 13 - 1. 29
24 화	2015 뮤지움데이	예술가의집	11. 24, 11:00 - 18:30 11. 25, 10:00 - 18:30
	전시 <옆집탐구 시즌2>	갤러리정미소	11. 24 - 12. 5
	2015 인문 & 힐링 가을전시 특강 <서양현대미술의 흐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1. 24, 19:30 - 21:30 11. 27, 14:00 - 16:30
	직장인 관람객을 위한 <김민정 : 결>전 도록 증정 이벤트	OCI미술관	11. 24 - 11. 27 11:00 - 14:00
25 수	<미술인 보수지급제도 정책토론회>	대학로 이음센터 5층 스튜디오	13:00 - 18:00
	전시 <필립가렐 - 찬란한 절망>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오프닝 : 11. 25, 16:00 11. 25 - 2. 28
	전시 <조셉 바레쉬>	갤러리가이아	11. 25 - 12. 1
	전시 <투영_공간의 시대>	한원미술관	11. 25 - 1. 22
26 목	학술행사 <명작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아르코미술관 스페이스 필룩스	13:30 - 18:00
	전시 <리-플레이>	서울시립미술관	10. 20 - 12. 13
	전시 <디지펀 아트>		9. 22 - 12. 13
	전시 <송상희 개인전_변강쇠歌 2015>	아트스페이스 풀	11. 12 - 12. 13
27 금	전시 <피카소에서 프란시스 베이컨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1. 27 - 3. 1
	전시 <무엇을 불태울 것인가?>	스페이스윌링앤딜링	오프닝 : 11.27, 18:00 11. 27 - 12. 17
28 토	전시 <댄싱마마> 전시연계 스크리닝(안은미, 정금형)	코리아나미술관	14:00
	전시 <댄싱마마>		10. 8 - 12. 5
	전시 <Makeable City>	아트센터 나비	10. 16 - 11. 29
	교육 <Curiosity Cabinet>전 연계 아티스트 토크#4	DDP	15:00
	전시 <Curiosity Cabinet>전		11. 6 - 11. 29
29 일	전시 <리얼 디엠지 프로젝트2015>	아트선재센터	8. 29 - 11. 29 미술주간 관람료 50%할인
	전시 <아르나우트 믹 : 평행선>		
	전시 <빛 위에 그리다>	환기미술관	10. 23 - 12. 31
	전시 <리얼리?>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	상설전
	전시 <리칭:8개의 방>		

2015 Museum Day

행사 : 2015 MUSEUM DAY
일시 : 2015. 11. 24(화) - 11. 25(수), 2일간
11. 24, 11:00 - 18:30
11. 25, 10:00 - 18:30
장소 : 예술가의 집(전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3 (동숭동 1-130)
artisthouse.arko.or.kr
주최 :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후원 : 서울특별시
대상 : 큐레이터 · 에듀케이터 지망생, 작가 및 작가 지망생, 미술관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 서울시내 사립미술관 18개관
비용 : 무료
문의 : T. 02-735-4032,
www.artmuseums.or.kr

2015 Museum Day는 서울 시내 주요 사립미술관들이 한 날 한 자리에 모여 작가 및 작가 지망생, 큐레이터 및 에듀케이터 지망생 그리고 그 외 미술관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미술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고 관객과 소통하는 열린 미술관의 날이다. 미술계 예비인력을 위한 뮤지엄데이 특별강의, 미술관 전문가들에 의한 컨설팅 테이블, 볼거리가 풍성한 미술관 아카이브가 마련되어 있다.

※ http://onoffmix.com 에서 미술관별 '컨설팅테이블' 사전등록 가능, '특별강의'는 별도 신청

컨설팅 테이블
각미술관의 큐레이터 · 에듀케이터가 대거 참여하여 큐레이터 · 에듀케이터 지망생 또는 전업작가를 꿈꾸는 이들이 직접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특별강의
큐레이터 · 에듀케이터 등 미술계 전문가의 현장감 넘치는 생생한 강의.

※ 대상: 미술계 취업 희망자, 작가 지망생 및 신진작가

미술관 아카이브
참여 미술관의 다양한 전시도록과 영상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등을 한 자리에 총망라하여 현시대 미술관의 활동상을 조망해 보는 아카이브 전시.

(재)한원미술관
Hanwon Museum

서울시 서초동 남부순환로 2423 한원빌딩 B1
02-588-5642 | www.hanwon.org

전시_
2015 投影《공간의 시대》展



투영(投影)展은 매년 하반기 개최되는 정례기획전으로 현대사회의 주요 화두를 작가의 창의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작품에 투영하여 관객과 소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창안되었다. 7회 투영(投影)전인《공간의 시대》는 정보와 물질이 범람하는 현대사회에서 획일화되어가는 사고에 문제를 제기하는데서 시작한다. 전시에 참여하는 세 명 작가 송희정, 이만나, 황원해는 모두 어떤 우연한 순간을 계기로 낯익은 것을 전혀 새로운 세계에 놓인 것과 같이 인식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전시에서 소개되는 작품들은 이러한 시점의 이동, 감각의 변화, 가치관의 전환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움직인다. 일상과 비일상이 다층적으로 혼재하여 관계하는 작품들을 통해 새로운 인식과 지각에 몸을 맡기고 "나"를 포함한 다양한 사물을 연결하는 경계의 요동을 찾고자 한다.

전시기간 : 2015. 11. 25(수) - 2016. 1. 22(금)
관람시간 : 화 - 토 10:00 - 18:00 (일 · 월요일 휴관)
참여작가 : 송희정, 이만나, 황원해
관람료 : 무료

B.CUT 갤러리
B.CUT Gallery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25-3
02-6431-0334 | blog.naver.com/bcutgallery

전시_
모든 바퀴는 멈춘다 展

이 전시는 각각 폐철로와 폐주유소를 촬영한 김수연의《철로지경》과 방옥의《자허 自許》 두 작업의 연결 지점을 보여주는 프로젝트성 전시로 손이숙 작가가 기획한 2인전이다. 이제는 쓸모 없어졌지만 한때는 근대화의 상징이었던 폐철로를 김수연은 시간의 흐름이 만들어 낸 자연스러운 풍경으로 담아내고 있고, 방옥은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 끝난 대상인 폐주유소를 사람의 초상인듯 대면하여 보여주고 있다.

전시기간 : 11. 4(수) - 12. 1(화)
관람시간 : 월 - 토 11:00 - 18:00, 수 14:00 - 18:00
참여작가 : 김수연, 방옥
관람료 : 무료

OCI 미술관
OCI Museum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45-14
02-734-0440 | www.ocimuseum.org

전시_
김민정: 결(Minjung Kim: Traces) 展



김민정이 24년만에 선보이는 첫 귀국전. 향이나 촛불로 태워낸 한지를 붙여서 만든 콜라주 30여 점을 통하여, 작가가 쌓아온 명상과 사유의 흔적을 보여준다.

전시기간 : 11. 5(목) - 12. 27(일)
관람시간 : 10:00 - 18:00 (월요일 휴관)
관람료 : 무료

특별행사
_직장인 관람객을 위한 도록 증정 이벤트

행사 기간 내 오전 11시~오후 2시, 사원증 또는 명함을 지참하여 방문하신 관람객 중 10명을 추첨하여 김민정전의 도록을 증정한다.

행사일자 : 11, 24(화) - 11. 27(금) (4일간)
참가비 : 무료

갤러리 가이아
Galerie Gaia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57-1
02-733-3373 | www.galerie-gaia.net

전시_
조셉 바레쉬(Josef Bares) 개인전



조셉 바레쉬는 체코, 독일 출신으로 현재 홍콩 에서 거주하며 작품 활동 중이다. 그의 작품은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 유럽과 미국에서 전시되었다. 작가는 주로 의미가 발생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도시와 언어, 공간과 기호 등 우리가 어떻게 도시 생활환경을 이해하는가가 작가의 주요 관심사이다. 건축은 그 자체로 보편성을 띄고 있지만 문화적으로, 언어와 공유되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전시기간 : 11. 25(수) - 12. 1(화)
관람시간 : 월 - 금 10:00 - 19:00
토 - 일 10:00 - 18:30 (휴관일 없음)
참여작가 : 조셉 바레쉬
관람료 : 무료

갤러리 다온
Gallery Daon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8길 23
02-555-9429 | www.gallerydaon.com

전시_
고진이 개인전-감성에 물들다 展



갤러리 다온에서는 11월,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고진이 작가의 <감성에 물들다> 전시를 연다. 작가 고진이는 '집'이라는 공간에서의 잔상들을 떠올리며 실재와 환영사이를 오가며 작업한다. 흐릿한 형상, 안개에 싸인 것 같은 스푸마토 기법을 사용하여 화면의 깊이와 묘한 기운을 더해 잔잔히 스며드는 서정적인 반추상 회화를 선보인다. 작가는 집에서의 행복했던 기억, 불행했던 기억 등을 떠올리며 감정의 변화를 색으로 교차시켜 색면추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전시기간 : 11. 3(화) -11. 30(월)
관람시간 : 월 - 금 12:00 - 19:00
토 13:00 - 15:00 (일요일, 공휴일 휴관)
참여작가 : 고진이
관람료 : 무료

갤러리 정미소
Art Space Jungmiso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객석빌딩 199-17
02-743-5378 | www.galleryjungmiso.co.kr

전시_
옆집탐구 시즌 2

2012년 9월부터 2013년 3월과 2014년 10월24일 ~11월7일 '꿈꾸는 우리집을 설계해 드립니다'라는 프로젝트로 진행한 하우쇼 시즌1에 이은 3번째 전시로 AOA(서재원,어의행), 황 건축 스튜디오(황선우, 황선기), 미니맥스 아키텍츠(민서홍), 노경, STUDIO ORIGN(이강준,김경아), 서연(조서연), ARCHIHOOD WXY(강우현, 강영진), 박천강X조남일(박천강, 조남일) 건축에 관심있는, 집을 지어 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전시기간 : 11. 24(화) - 12. 5(토)
관람시간 : 11:00 - 18:00 (월요일 휴관)
관람료 : 무료

문화역서울284
Culture Station Seoul 284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 서울역(본옥)
02-3407-3500 | www.seoul284.org

전시
_타이포잔치 2015

전시기간 : 11. 11(수) - 12. 27(일)
관람시간 : 10:00 - 19:00
관람료 : 무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

MMCA,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_Seoul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0
02-3701-9500 | www.mmca.go.kr

전시_
필립 가렐 - 찬란한 절망 展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필립 가렐의 작품 16편을 MMCA필름앤비디오에서 상영함과 동시에 전시 공간에서 그의 영화를 설치작품으로 재구성한다. 장 뤽 고다르, 샹탈 아케만, 장 콕토 등의 작품이 퐁피두센터에서 설치 형태로 선보인 적은 있지만 필립 가렐의 작품을 전시로 재구성한 경우는 세계 최초이다. 필립 가렐의 흑백 영화 세 편이 35mm 필름인스톨레이션과 비디오 설치 형식으로 전시된다. 전시〈필립 가렐_ 찬란한 절망〉은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절망감을 눈부시게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필립 가렐의 작품세계를 현대미술의 영역 안에서 구현하려 한다.

전시기간 : 2015. 11. 25(수) - 2016. 2. 28(일)
전시장소 : 제7전시실, 미디어랩
관람시간 : 화, 목, 금, 일요일 10:00 - 18:00
수, 토 10:00 - 21:00 (월요일 휴관)
관람료 : 서울관 관람권 4,000원

전시연계 특별행사_
필립 가렐 - 찬란한 절망 展 개막식

"혁명의 순간들" 개막식 상영작 스크리닝

행사일자 : 11. 25(수) 16:00
참가비 : 무료

전시_
2015 한-호 국제교류전 뉴 로맨스 展

전시기간 : 2015. 9. 22(화) - 2016. 1. 24(일)
전시장소 : 제6전시실, 전시마당, 멀티프로젝트홀
관람료 : 서울관 관람권 4,000원

전시_
대한항공 박스 프로젝트 2015: 율리어스 포프 展



차세대 미디어 아티스트 율리어스 포프(Julius Popp)는 정보의 특성에 주목하고 디지털 시대의 정보와 인간의 상호적 관계를 탐구하며 정보화 사회의 구조에 대해 독창적이고 철학적인 언어를 구축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뉴욕현대미술관(2008) 등 세계 곳곳의 장소에서 선보였던 대표적 작업인 <비트.폴(bit.fall)> 시리즈의 최대 규모의 현장제작 설치 작품인 <비트.폴.펄스(bit.fall.pulse)>를 선보인다.

전시기간 : 2015. 11. 10(화) - 2016. 9. 4(일)
전시장소 : 서울박스
관람시간 : 화, 목, 금, 일 10:00 - 18:00
수, 토 10:00 - 21:00 (월요일 휴관)
관람료 : 서울관 관람권 4,000원

전시_
기증작품 특별전 <서세옥>展

전시기간 : 2015. 10. 27(화) - 2016. 3. 6(일)
전시장소 : 제1전시실
관람료 : 서울관 관람권 4,000원

전시_
국립현대미술관 현대차 시리즈 2015 :
안규철 -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 展

전시기간 : 2015. 9. 15(화) - 2016. 2. 14(일)
전시장소 : 제5전시실
참여작가 : 안규철
관람료 : 서울관 관람권 4,000원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

DDP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
02-2153-0000 | www.ddp.or.kr

전시_
간송문화 5부 ; 화훼영모 - 자연을 품다



[간송미술문화재단 제공]

동식물을 그린 우리의 독특한 회화 장르로서, 전통시대 화훼영모화는 산수화나 인물화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다. 이번 전시는 고려 말기부터 조선 말기까지의 동식물을 주제로 한 우리나라 명작 회화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공민왕, 신사임당, 김시, 공재 윤두서, 겸재 정선, 단원 김홍도, 표암 강세황, 혜원 신윤복 등 한국미술사를 수놓은 천재들의 대표적 동식물 그림을 볼 수 있다.

전시기간 : 2015. 10. 23(금) - 2016. 3. 27(일)
전시장소 : 배움터 2층 디자인박물관
관람시간 : 10:00 - 19:00 (월요일 휴관)
관람료 : 성인 8,000원
유/청소년/어르신/군인 6,000원
장애인/유공자 무료

전시_
알레산드로 멘디니展 - 디자인으로 쓴 시



유머와 변신, 협업, 색채 배합의 마술사로 불리는 이탈리아 디자인계의 대부 알레산드로 멘디니의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세계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전시이다. 이번 전시에 출품될 600여 점의 작품들은 마치 시의 구절들처럼 서로 어우러져 하나의 장대한 시각적 이미지로 만들어진 한 편의 시를 감상하듯, 또는 마치 연극 무대처럼 관람객에게 다가갈 것이다.

전시기간 : 2015. 10. 9(금) - 2016. 2. 28(일)
전시장소 : 배움터 디자인전시관
관람시간 : 10:00 - 19:00 (월요일 휴관)
수, 금 10:00 - 21:00 (연장운영)
관람료 : 일반 14,000원 / 대학생 12,000원
청소년(만13~18세) 10,000원
어린이(만7~12세) 8,000원

전시_
Curiosity Cabinet-음식으로 바꾸는 세상



음식과 예술이 만나는 창의적 실험을 선보이는 프로젝트로 서로 다른 분야의 아티스트들이 각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식문화에 대한 실험적 제안이다. 음식이 먹고 소비되는 일상의 소재만이 아닌 무한한 크리에이티브한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전시 기간 : 11. 6(금) - 11. 29(일)
전시 장소 : 배움터 디자인전시관
전시 시간 : 화 - 일 10:00 - 19:00 (월요일 휴관)
관람료 : 무료

교육_
전시연계 <아티스트 토크#4>

프로그램 내용 : 김성훈 + 이명현 도자기의 숨겨진 이야기들
프로그램 일자 : 11. 28(토) 15:00
대상 : 전시 관람시 참여가능 (선착순 15명~25 무료)
참가비 : 무료

서울시립미술관
SeMA, Seoul Museum of Art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61
02-2124-8800 | sema.seoul.go.kr



전시_
유휴공간 건축 프로젝트 - 리-플레이:
4개의 플랫폼 &17번의 이벤트 展

유휴공간을 지역 거점 문화공간으로 재생시키고자 하는 이번 프로젝트 <리-플레이: 4개의 플랫폼 & 17번의 이벤트>는 관객이 문화 활동의 주체이자 대상이 되는 문화공간의 모습을 모색하고, 그 작동 가능성을 실험하는 무대라 할 수 있다. 네임리스건축(나은중, 유소래), 박천강x조남일, 신형철@shinslab, 안기현+신민재(AnLstudio) 등 4인/팀의 건축가는 일시적으로 멈춰 있는 공간을 다시 재생(리-플레이)시키기 위한 건축적 상상력을 4개의 플랫폼으로 제안한다. 정소영 작가는 유휴공간이 지닌 유보된 도시의 시간과 역동의 가능성을 특유의 조형언어로 풀어냈다. 그 밖에 워크숍, 강연과 상영, 멘토링 등 4개의 플랫폼에서 펼쳐지는 17번의 이벤트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지향하는 관객 참여의 장을 제공할 것이다.

전시기간 : 10. 20(화) - 12. 13(일)
관람시간 : 화 - 금 10:00 - 20:00,
토 · 일 · 공휴일 18:00까지 (월요일 휴관)
전시장소 : 서소문본관 1층
관람료 : 무료

전시_
디지펀 아트 : 도시풍경 展

도시의 풍경은 동시대 사람들에게는 지나칠 수 있는 일상이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는 당대의 문화를 집약하여 보여주는 하나의 기록이 된다. 오늘날 길을 걷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음식을 먹는 일상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도심 속 풍경은 다름아닌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휴대용 모바일 기기들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전시 ≪디지펀 아트 : 도시 풍경≫은 우리에게 필수품 이상의 존재가 된 모바일 기기와 각종 애플리케이션이 기존 미술가들에게는 새로운 예술적 도구가 되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스마트 기기의 다양한 기능으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영역의 창작 활동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전시기간 : 9. 22(화) - 12. 13(일)
관람시간 : 화 - 금 10:00 - 20:00
토 · 일 · 공휴일 18:00까지 (월요일 휴관)
전시장소 : 서소문본관 3층 프로젝트 갤러리 & 크리스탈 갤러리
관람료 : 무료

전시_
영원한 나르시시스트 천경자 展

한국화의 채색화 분야에서 독자적인 화풍을 이루어 온 작가의 독특한 작품세계와 그 기증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천경자 상설전시는 '영원한 나르시시스트, 천경자'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최근 몇 년간의 미공개작을 중심으로 한 3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영원한 나르시시스트, 천경자' 는 꿈과 사랑, 환상에서 비롯된 정한(情恨)어린 스스로의 모습을 끊임없이 작품에 투영하는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은유한다.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거나 동식물로 표현되거나 상관없이, 그림은 나의 분신"이라고 말하는 천경자 화백의 작품 세계는 마치 자신을 비추는 '거울' 과도 같다.

전시는 이처럼 자전적(自傳的)인 성격을 가지는 작가의 작품 전반에 대한 자기고백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내 슬픈 전설의 이야기', '환상의 드라마', '드로잉', '자유로운 여자'라는 네 개의 섹션으로 구성하였다.

전시기간 : 상설전시
관람시간 : 화~금 10:00 - 20:00
토·일·공휴일 18:00까지 (월요일 휴관)
전시장소 : 서소문본관
관람료 : 무료

세종문화회관
Sejong Center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02-399-1152 | www.sejongpac.or.kr

전시_
백남준 그루브 흥 展



<백남준 그루브 흥>전시는 백남준과 그의 예술세계에 대한 몰랐던 이야기들로 그의 비디오아트, 일렉트로닉TV, TV조각 등을 쉽고 재미있게 구성하였다.

전시기간 : 2015. 11. 13(금) - 2016. 1. 29(금)
관람시간 : 10:30 - 19:30, 휴관일 없음
관람료 : 성인 9000원, 어린이·청소년 4,000원

특별행사_
렉처콘서트

백남준과 관련하여 강의 및 공연 형식으로 진행되는 콘서트이다.

행사일자 : 11. 27(금), 11. 29(일)
참가비 : 입장료에 포함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SPACE WILLING N DEALING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77-20 2층
02-797-7893 | www.willingndealing.com

전시_
이세준 개인전 - 무엇을 불태울 것인가?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는 '세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합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회화 작업으로 표현하는 이세준 작가의 개인전 <무엇을 불태울 것인가?>를 선보인다. 세계의 구조에 대한 철학적 사유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추상적인 것들을 상징화하는 이세준 작가의 세계관을 접할 수 있다.

전시기간 : 11. 27(금) - 12. 17(목)
관람시간 : 화 - 일 12:00 - 19:00 (월요일 휴관)
관람료 : 무료

특별행사_
오프닝 리셉션

전시 오프닝 행사

행사일자 : 11. 27(금) 18:00
참가비 : 무료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
Arario Museum in Space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3
02-736-5700 | www.arariomuseum.org

전시_
리얼리? 展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구)공간사옥이 아라리오 뮤지엄 인 스페이스로 재탄생하며 열리는 개관전으로 故김수근이 1971년에 건립한 구 공간사옥의 건축적 특징을 최대한 살리는 한편, 한 개인이 미술관 건립이라는 꿈을 위해 지난 35년간 수집해온 현대미술컬렉션을 다채롭게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다양한 컬렉션과 건축물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기존 공간의 용도나 구조에 맞추어 한 공간에는 한 작가의 작품들만을 선보이는 것으로 전시를 구성했다. 관람객들은 크고 작은 공간들이 오밀조밀하게 얽혀있는 건물 내부를 삼각형과 나선형으로 이루어진 계단을 통해 오르내리며 마치 현대미술의 미로를 탐험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시기간 : 상설전
관람시간 : 10:00 - 19:00 연중무휴
관람료 : 일반 10,000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 4,000원 (*10세 이하 입장 불가)

전시_
'뮤지엄 인 뮤지엄' 프로젝트_리칭: 8개의 방 展



'뮤지엄 인 뮤지엄'은 작가가 서울 또는 제주 아라리오 뮤지엄에 머물며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전시 프로젝트이다. 리칭은 "뮤지엄 인 뮤지엄"의 일환으로, 아라리오 뮤지엄 인 스페이스 전시장 내에 아티스트의 다양한 일상을 보여주는 집을 만들었다. 작가는 미니살롱, 서재, 작업실, 침실, 다이닝 룸, 가라오케 룸, 샤워실, 화장실로 공간을 구성하고, 직접 제작한 회화와 사진들을 곳곳에 장식했다. 이처럼 작가의 취향과 정체성이 도처에 깔려있는 <8개의 방>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작가의 삶과 예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된다.

전시기간 : 상설전
관람시간 : 10:00 - 19:00 연중무휴
참여작가 : 리칭(Li Qing)
관람료 : 일반 10,000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 4,000원 (*10세 이하 입장 불가)

아트선재센터 ●
Art Sonje Center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3길 87
02-739-7098 | www.artsonje.org

전시_
리얼 디엠지 프로젝트 2015 展



이번 전시는 DMZ의 장소성, 역사성 등을 장기간 연구하거나 접경지역의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동시대 미술이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를 실험해 온 국내외 작가 총 53명/팀의 작업을 소개하는 전시이다.

전시기간 : 8. 29(토) - 11. 29(일)
전시장소 : 아트선재센터 1, 3층, 한옥, 정원, 건물외벽 등

전시_
아르나우트 믹: 평행성 展



이번 전시는 국가, 민족,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경계들과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회 심리적 현상에 주목한 영상 설치 작품 4점을 소개한다. 전시 제목인 '평행성(Parallelities)'은 현실과 비현실, 과거와 현재, 국경 또는 접경지역 등과 같이 구별되지만 서로 연관되어 있는 상황들을 다루는 작가의 작업 세계를 반영한다. 아르나우트 믹의 작업은 서로 다른 경계 지역을 넘나드는 과정에서 갈등하는 개인들, 주어진 사회 시스템 안에서 순응하며 때로는 방관자로 살아가는 개인과 집단을 보여주는데, 이는 마치 현재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 같다.

전시기간 : 8. 29(토) - 11. 29(일)
전시장소 : 아트선재센터 2층
참여작가 : 아르나우트 믹
관람시간 : 화 - 일요일 11:00 - 19:00 (월요일 휴관)
관람료 : 일반 3,000원, 학생 2,000원
어린이/경로우대증소지자/장애인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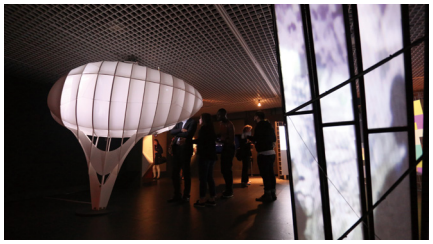
※ 미술주간 2015. 11. 23(월) - 11. 29(일) 7일간 50% 할인)

아트센터 나비 ●

Art Center Nabi

서울시 종로구 종로 26
02-2121-0943 | www.nabi.or.kr

전시_
Makeable City



이 전시는 공유와 개방의 흐름 속에 태동되어 도시 곳곳을 변화시키는 능동적 창조자, 메이커(Maker)들의 시도들과 활약상에 주목한다. “공유, 개방, 참여”라는 키워드 아래, 건축, 도시재생, 메이커운동, 오픈 플랫폼, 오픈 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이끌어가는 창작자 11팀이 참여한다. 거주자 스스로 주거영역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주거환경 ‘수직마을 입주기’, 도시 곳곳의 방치된 공간에 손수 만든 미니 갤러리 ‘스트리트 뮤지엄’, 언더그라운드 전자음악, 테크노 씬에서 발생하는 자생적인 움직임의 단상들을 음악과 건축으로 풀어낸 <Bunker Seoul MMXV> 등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 움직임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메이커들이 만들어가는 도시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시기간 : 10. 16(금) - 11. 29(일) * 매주 토요일 운영
관람시간 : 10:00 - 18:00, 월 - 금 (일 휴관)
관람료 : 무료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_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꼬마천재 다빈치 스쿨(Dear. My Little Da Vinci)>

과학자와 건축가, 동시에 화가로 활약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융합형 인재 교육을 위한 디지털 아트 감상 및 창작 프로그램

프로그램일시 : 11. 27(토), 16:00 - 18:00
참가대상 : 초등학교 전학년 어린이 및 보호자
참가비 : 무료 (신청마감)

아트스페이스 풀

Art Space Pool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9길 91-5
02-396-4805 | www.altpool.org

전시_
송상희 개인전 “변강쇠歌 2015: 사람을 찾아서”



송상희는 역사의 가장자리로 밀려난 인간의 야만적 흔적들을 끌어올려 우리의 감각 앞에 펼쳐 놓는 작업을 해왔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그 흔적들을 날 것의 통속과 비극으로 가득한 변강쇠가(歌)와 연결한다. 이 전시는 식민지 주민, 전쟁포로, 대학살과 참사의 희생자들, 종군위안부 등 걸러낸 역사에서 온전히 다루지 못한 사람들의 실제 삶은 차라리 잔인한 죽음과 욕동의 이야기와 더 가깝다는 비극적 현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전시기간 : 11. 12(목) - 12. 13(일)
관람시간 : 화 - 일요일 10:00 - 18:00 (월요일 휴관)
관람료 : 무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

Hangaram Art Museum, Seoul Arts Center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02-580-1601 | www.sac.or.kr

전시_
정헌메세나 후원 작가_아름다운 다리전 -2



파리 정헌메세나협회가 후원한 유망한 청년작가들의 작업을 5년 마다 한국에서 선보이는 <정헌메세나-아름다운 다리전>이 지난 2009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다. 기업의 예술발전 지원을 통한 사회환원의 좋은 본보기로 자리 잡은 정헌재단은 10여 년간 아름다운 다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지난 10여 년간 40여명의 작가를 배출한 정헌메세나협회의 지원사업의 결실은 현대미술사에 또다른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번 전시는 현재 유럽이나 한국을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청년작가들의 현대미술의 경향을 되짚어 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전시기간 : 11. 24(화) - 12. 6(일)
전시장소 : 한가람미술관 제3전시실, 제4전시실
관람시간 : 11:00 - 19:00
관람료 : 무료

전시_
응축된 시간 展



상명대학교 사진영상미디어학과 교수진과 주요 동문이 주축이 되어 개최하는 전시이다. 본 전시의 학술적 담론은 사진에 있어 시간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사진의 제작은 기계적 특성으로 ‘순간의 미학’이라고 불리지만 찰나의 시간에 만들어진 작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류역사와 인간의 관념과 결합한다. 그리고 생명력을 비롯한 다른 의미를 생성시켜 새로운 에너지가 된다. 이러한 에너지는 예술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예술성으로 대변된다. 이번 전시의 주요테마는 예술작품이 만들어지고 대중에게 되새김질되어 재탄생되는 ‘시간에 대한 사진의 예술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시기간 : 11. 20(금) - 11. 27(금)
전시장소 :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구. V-갤러리)
관람시간 : 11:00 - 19:00
관람료 : 무료

전시_
피카소에서 프란시스 베이컨까지 展



20세기 서양미술의 거장 20인의 작품 총 100점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피카소Pablo Picasso의 작품 24점, 샤갈Marc Chagall의 작품 9점, 프랜시스 베이컨 Francis Bacon의 작품 15점, 몬드리안Piet Mondrian의 작품 8점, 앤디 워홀Andy Warhol의 작품 10점 등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거장들의 작품을 집중하여 그 작품세계를 깊이 있게 조명하는 전시이다.

전시기간 : 2015. 11. 27(금) - 2016. 3. 1(화)
전시장소 : 한가람미술관 제5전시실, 제6전시실
관람시간 : 11:00 - 19:00 (11.30 휴관)
관람료 : 성인 13,000원, 청소년 10,000원,
어린이 8,000원, 유아 6,000원

교육프로그램_
2015 인문 & 힐링 가을 전시 특강
20세기 서양현대미술의 흐름

행사일자 : 11. 24(화) 19:30 - 21:30
11. 27(금) 14:00 - 16:30
참가비 : 10,000원 (문화가 있는 날이 있는 주 50%할인)

웅 갤러리
Woong Gallery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6-4 삼경빌딩 B1
02-548-7371 | www.woonggallery.co.kr

전시_
조일묵 연리문 항아리 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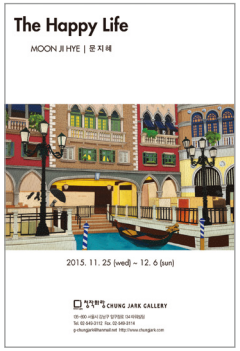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항아리 형태를 연리문으로 표현하였고 백자 달 항아리의 형태에 반복된 운동의 시간을 담아 보았다. 작가는 철학과 마음을 작업에 담는다. 하얀 백색 항아리에 기억 속에 강변의 가을 하늘을 담고 시간의 기억들을 담아 본다.

전시기간 : 11. 11(수) - 11. 24(화)
관람시간 : 월 - 토 9:30 - 18:30 (일요일, 공휴일 휴관)
관람료 : 무료

청작화랑
Chung Jark Gallery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134 타워빌딩 B-2호
02-549-3112 | www.chungjark.com

전시_
문지혜 작품전



작가는 여행지에서의 기억과 감정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그 이미지 위에 핀의 높낮이를 조절하여 꽂는다. 핀들은 평면의 이미지를 입체화하여 사실감을 더한다. 문지혜 작가의 작품은 모두 수작업이므로 작업 내내 손에 고통이 따르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작업의 방식조차 현대사회의 편리함에 이끌린다면 본인의 작업에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문지혜 작가의 작품을 보는 이들 역시,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녹아든 불편함을 작가가 하나하나 핀을 꼽아 완성한 작품을 감상함으로서 함께 해소하길 바란다.

전시기간 : 11. 25(수) - 12. 6(일)
관람시간 : 10:30 - 18:00 (전시 중 무휴)
관람료 : 무료

청화랑
Chung Art Gallery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147길 4, 2층
02-543-1663 | www.chungartgallery.com

전시_
나광호 展~Amuseument



나광호 작가는 아이들이 놀이처럼 그린 그림을 재창조하여 완성시킨 놀이처럼 그린 미술을 지향하는 작가이다. 아이들의 순수함과 작가의 작품성이 만들어 낸 즐거운 작품에 여러분의 관심을 바란다.

전시기간 : 11. 12(목) - 11. 28(토)
관람시간 : 10:00 - 18:00 (전시 중 무휴)
관람료 : 무료

코리아나미술관 ●

Coreana Museum of Art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827
02-547-9177 | www.spacec.co.kr

전시_
댄싱 마마 展



여성 신체 퍼포먼스를 비롯하여 여성 작가들의 비디오 영상, 사진 작업 등을 통해 동시대 현대미술에서 여성주의의 새로운 맥락을 조명하는 전시이다.

전시기간 : 10. 8(목) - 12. 5(토)
관람시간 : 10:00 - 19:00 (일요일 휴관)
관람료 : 성인 3,000원, 초중고 학생 2,000원
(10인 이상 단체 1000원 할인)

교육 프로그램_
<대학 및 대학원생 현장 수업 프로그램>
큐레이터의 전시설명을 통한 댄싱 마마전 관람

프로그램일시 : 11. 24(화) - 11. 27(금)
(전화예약 필수 요망)
참가대상 : 대학 및 대학원생 (5인 이상시 진행)
참가비 : 무료, 단 전시입장권 소지자에 한함

특별행사_
<전시 연계 스크리닝 Screening>
안은미,<조상님께 바치는 댄스>, 83분 22초, 2014
정금형,<유압 진동기>, 56분 15초, 2010

행사일자 : 11. 28(토)
참가비 : 무료, 단 전시입장권 소지자에 한함

표갤러리

Pyo Gallery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 314
02-543-7337 | www.pyoart.com

전시_
차영석 - 망각한 변형 展



차영석 작가의 <습관적 세계>시리즈의 2번째 전시 <망각한 변형>은 사물의 장식적인 속성을 보다 과감히 드러내는 작업이다. 사물의 단순한 형태에 원형과 직선, 곡선의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변형된 장식을 화면에 자유롭게 구성하고, 그리기와 채우기를 반복하는 '습관'적인 작업방식을 통해 사물이 가지는 가치는 '망각'한 행위로서 작품을 표현한다. 사물에 대한 특정 개인의 취향이나 그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의 모습은 지워지고, '어떤 것'으로 사물의 옷을 입은 작가의 취향과 습관을 가만히 응시하며 그림을 그리는 작가 자신을 나타낸다.

전시기간 : 11. 13(금) - 12. 11(금)
관람시간 : 월 - 금 9:30 - 19:00, 토 - 일 9:30 - 18:00
관람료 : 무료

환기미술관 ●◆

Whanki Museum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40길 63
02-391-7701 | whankimuseum.org

전시_
진유영 - 빛 위에 그리다 展
진유영(1946~)은 1969년 도불하여 시대의 격랑과 예술의 위기를 마주하며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자신의 예술적 신념에 따라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예술여정을 이어왔다. 그의 작품세계는 시대적 이슈였던 회화의 종말과 자아의 죽음에서 비롯된 질문 "회화는 어디에 있는가"를 화두로 "회화의 확장을 통한 관계(나-너)의 확장", "빛을 통화 회화의 위상"으로 전개된다.

전시기간 : 10. 23(금) - 12. 31(목)
관람시간 : 10:00 - 18:00
(매주 월요일, 설날(신정, 구정), 추석 연휴 휴관)
관람료 : 성인 5,000원, 학생 4,000원, 경로 3,000원

문화 · 교육 프로그램_
환기미술관 ARTon 아트온
예술로 소통하기: 문화가 있는 날
예술품과 전시감상 및 작품제작활동을 통하여 주체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와 너 그리고 우리라는 깊이 있는 상호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구성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일시 : 11. 25(수)
참가대상: 미취학 아동~성인
참가비 : 무료

문화 · 교육 프로그램_
환기미술관 ARTon 아트온
예술로 소통하기: 찾아가는 미술관
'찾아가는 미술관' 연계 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치매노인 및 학교 연계로 진행. 미술관 방문이 어려운 대상을 발굴하여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콘텐츠인 '감상'의 의미를 놓치지 않고 환기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감상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일시 : 10. 23(금) - 12. 31(목)
참가대상 : 치매노인과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
참가비 : 무료

전국 미술 지형도 경기

미술관으로, 실험적인 장르와 최신의 미술 동향을 보여주는 전시와 지역 밀착형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미술관의 역할 확장에 앞장서고 있으며,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 백남준아트센터는 우리나라 최고의 예술가 백남준의 천재적인 예술세계를 담아내고 그의 정신을 확산하고 있다.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과 고양문화재단 아람미술관은 좋은 전시 프로그램으로 경기도의 주요 도시인 성남시와 고양시의 문화적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1983년 개관 이래 우리나라 현대 미술관 역사의 든든한 고임돌이 되어준 한국 미술관과 수식어가 오히려 군더더기가 되는 호암 미술관은 용인 지역의 미술을 지탱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

우리 미술의 바로미터, 경기도의 미술공간

황록주(경기도미술관 학예연구사)

경기도의 미술을, 어느 한 지역의 미술로 다룬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경기도는 애초의 수도 서울을 둘러싼 삶의 터전이었고, 지금도 서울 중심의 미술문화에 끝없는 자양분을 공급하고 있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에는 1986년에 개관한 과천의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 43개의 등록미술관이 있다. 아직 미술관 등록을 하지 않은 곳과 아트센터, 대안공간, 상업 화랑은 물론 경기도와는 행정구역이 분리되는 인천의 미술공간을 포함하면 그 수는 가히 놀라울 정도다. 미술관으로는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 많은 미술 공간에 작품을 제공하고 있는 작가 대다수가 경기도에 터전을 두고 있다. 미술 인구 또한 구체적 통계치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전국에서 가장 두터운 층을 형성하고 있을 것이다.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은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의 미술관으로, 국립미술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이 연중 펼쳐진다. 2006년 안산에 개관한 경기도미술관은 경기도가 설립한 도립

2000년 광주시 쌍령리에 개관한 영은미술관은 사립미술관 최초로 레지던시를 미술관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곳으로 창작의 현장이 그대로 미술문화가 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준 곳이다. 고양시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고양스튜디오 역시 경기도 지역의 미술 창작의 산실이며, 이는 우리나라 토탈야외조각공원이 있던 장흥아트스튜디오를 모태로 하는 우리나라 작가 창작 지원의 역사와 궤를 함께 하고 있다. 양주시가 2014년 개관한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은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거장인 장욱진을 기념하는 멋진 건축물과 함께 야외조각공원, 아트스튜디오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창작레지던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안산 선감도에 설립한 경기창작터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창작레지던시로, 매해 미술계에 신선한 이슈를 안겨주고 있다.

경기도의 문화예술에서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을 빼놓을 수는 없다. 파주 출판단지와 함께 문화예술 특화 지역 개발사업으로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문화적 도시 개발의 면모를 보여준 파주 헤이리 지역은, 초창기 다수의 갤러리가 이전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블루메미술관,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미메시스아트뮤지엄과 같은 전문 미술공간의 등장

으로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경기 동부에는 남양주의 모란미술관이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다. 1990년 설립된 모란미술관은 조각전문 미술관으로 출발하여 8,600여평에 이르는 드넓은 야외조각공원에 조각작품을 상설 전시하고 있으며, 수준높은 기획전시와 다양한 지역 밀착형 교육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미술관이다. 양평군립미술관은

미술가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으로 유명한 양평군에 위치하여, 지역 작가들과의 다양한 연계 활동을 펼치며 지역의 미술 문화를 폭넓게 견인하고 있다. 가평군의 설미재미술관과 가일미술관, 양평의 서호미술관은 수려한 자연 풍광을 미술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미술공간들이다.

23 월	-		
24 화	전시 <유럽현대미술전>	고양 아람미술관	10. 20 - 1. 17
	전시 <Advanced Printmaking>	남송미술관	10. 30 - 1. 3
	전시 <남궁원 앵콜전>		10. 31 - 1. 31
25 수	특별행사 <퓨전국악공연 '천우'>	해움미술관	18:00
	전시 <인체를 탐미하다>		11. 25 - 11. 29
	전시 <수원화성국제사진축제>		11. 1 - 11. 24
	교육 <소통하는 문화마당>	서호미술관	17:00 - 20:00
	전시 <강경순 개인전>		11. 11 - 1. 15
	교육 <성인미술아카데미>	설미재미술관	9:30 - 12:00
	전시 <신소장품>		11. 1 - 1. 30
26 목	전시 <시간수집자>	경기도미술관	11. 26 - 1. 24
	교육 <어둠의 방>	닻미술관	11. 26
	전시 <Darkness>		11. 21 - 12. 31
27 금	전시 <코끼리 주름 펼치다>	블루메미술관	10. 9 - 12. 27
	전시 <RE:BORN II >	소다미술관	9. 19 - 1. 31
	전시 <서울조각회 정기전>	영은미술관	11. 7 - 12. 13
	전시 <신소영-마음으로 보는 이야기>		11. 14 - 12. 13
28 토	전시 <하룬 미르자: 회로와 시퀀스>	백남준아트센터	10. 29 - 2. 7
	전시 <인터미디어 극장>		6. 27 - 1. 17
	전시 <이세현 개인전>	미메시스 아트뮤지엄	10. 10 - 12. 20
29 일	전시 <최종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9. 1 - 11. 29
	전시 <멈추고, 보다>		9. 8 - 1. 24
	전시 <아키토피아의 실험>		6. 30 - 1. 3
	전시 <아티스트파일2015 : 동행>		11. 10 - 2. 14
	전시 <장욱진의 숨결>	양주시립장욱징미술관	10. 27 - 1. 17

경기도미술관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
031-481-7000 | gmoma.ggcf.kr



경기도미술관은 1천2백만 도민을 위한 미술문화 공간으로 2006년 개관했다. 경기도의 미래 자산이 될 현대미술품의 수집, 보존, 연구, 전시와 교육 활동을 통해 관람객과 소통하면서 수도권의 대표적 미술관으로 성장해온 경기도미술관은 경기도의 정치, 사회, 문화를 화두로 하는 <경기아트프로젝트>, 장르 간 융합을 시도하는 <크로스 장르>, 동시대미술의 이슈를 공유하는 <현대미술의 동향> 등의 핵심 전시 사업을 통해 동시대 미술과 사회, 문화, 예술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반영한다. 또한 다채로운 교육 활동이 펼쳐지는 '꿈틀'은 창의 교육의 장으로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예술과 생활,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여 예술의 가치를 심화시키고 그 경계를 확장시키려는 문화 창조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미래지향적 미술관,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친근한 미술관으로서 발전해가고 있다.

전시_
2015 생생화화 - 시간수집자 展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9인의 유망 작가를 경기문화재단이 선정, 1년여의 창작 과정을 지원하고 경기도미술관에서 신작을 발표하게 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무심한 순간들을 예리하게 수집하고 그 의미를 길어 올리는 고창선, 김준, 박은하, 이지영, 이창훈, 장영원, 전명은, 정효진, 정희정 등 9인 작가들의 섬세한 시선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전시기간 : 2015.11. 26(목) - 2016. 1. 24(일)
관람시간 : 10:00 - 18:00, (월요일 휴관)
관람료 : 성인4,000원, 초등학생/청소년/군인 2,000원
미취학아동1,000원

상설교육전시_
컬러풀 展

전시기간 : 2015. 9. 17(목) - 2016. 8. 28(일)
전시장소 : 경기도미술관 2F 꿈틀 전시실

고양 아람미술관
Aram Art Museum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6
031-960-0180 | www.artgy.or.kr



고양시는 2004년 동양 최대 구모의 복합문화체육공간인 고양어울림누리와 2007년에 개관한 공연 예술센터인 고양아람누리 양대 아트센터를 설립, 고양문화재단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두 기관에 각각 어울림미술관과 아람미술관을 두고 있다.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 어울림미술관과 달리 아람미술관은 다양한 기획전시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유럽현대미술전-친애하는 당신에게>전시는 프랑스 현대미술이 유럽의 사회와 역사, 문화에 대해 어떠한 시선과 태로를 견지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전시_
유럽현대미술전-친애하는 당신에게 展

전시기간 : 2015. 10. 20(화) - 2016. 1. 17(일)
관람시간 : 화 - 일요일 10:00 - 18:00 (월요일 휴관)
관람료 : 일반 8,000원, 학생 5,000원
장애우/국가유공자/만2세 이하 65세 이상 무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
02-2188-6000 | www.mmca.go.kr



전시_
한국화 소장품 특별전 - 제1부 <멈추고, 보다>展

전시기간 : 2015. 9. 8(화) - 2016. 1. 24(일)
전시장소 : 제 3, 4 전시실 및 회랑
관람시간 : 화 - 금 10:00 -17:00
토 10:00 - 21:00, (월요일 휴관)
관람료 : 무료

전시_
한국현대미술작가시리즈 <최종태>展

전시기간 : 9. 1(화) - 11. 29(일)
전시장소 : 제 2전시실
관람료 : 2,000원

전시_
아키토피아의 실험 展

전시기간 : 2015. 6. 30(화) - 2016. 1. 3(일)
전시장소 : 제 5전시실(건축갤러리)
관람료 : 무료

전시_
아티스트 파일 2015: 동행 展

전시기간 : 2015. 11. 10(화) - 2016. 2. 14(일)
전시장소 : 제 1전시실, 중앙홀
관람료 : 2,000원

남송미술관
Namsong Art Museum

경기도 가평군 북면 백둔로 322
031-581-0772 | www.namsongart.com



전시_
Advanced Printmaking 展

디지털 프린트가 원본을 해치지 않는 복본성이라는 점에서 판화(Printmaking)이 될 수 있다. 좋은 작품은 좋은 복사본(디지털 프린트)이 되고 이는 회화/사진 작품의 대중화를 위해 하나의 방편이 된다. 많은 중견 회화 작가들의 용기 있는 시도를 격려하고 디지털 아트를 본업으로 하는 젊은 신진 작가들의 작품세계에도 한 번 응원의 눈길을 보낸다.

전시기간 : 10. 30(금) 0- 1. 3(일)
관람시간 : 화 - 일요일 10:00 - 17:00
관람료 : 어른 3,000원, 학생 2,000원
65세이상/4세 미만/장애인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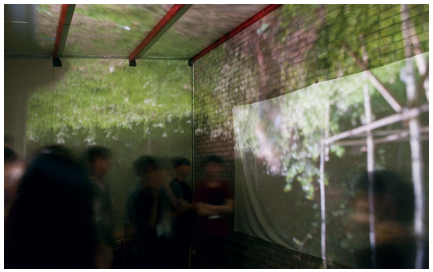
전시_
남궁원 앵콜 展

전시기간 : 10. 31(토) - 1. 31(일)
관람시간 : 화 - 일요일 10:00 - 17:00
관람료 : 어른 3,000원, 학생 2,000원
65세이상/4세미만/장애인 무료

닻미술관 ●

Datz Museum of Art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84
070-4193-2581 | www.datzmuseum.org



전시_
Darkness 展

'흑', '암'의 개념과 어둠속의 빛을 찾는 행위, 절망과 고독의 순간에 반짝이는 영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총 8명의 국내외 작가와 40여 점이 넘는 사진, 드로잉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기간 : 11. 21(토) - 12. 31(목)
관람시간 : 수 13:00 - 18:00,
목 - 일 11:00 - 18:00 (월, 화요일 휴관)
관람료 : 어른 2,000원
청소년/군인/어린이/60세 이상 1,000원

교육 프로그램_
어둠의 방 展

프로그램일시 : 11. 26(목)
참가대상 : 초등 및 중, 고등학생
참가비 : 20,000원/인, 최소 4명 이상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

Mimesis Art Museum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53
031-955-4100 | www.mimesisart.co.kr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다양한 크기의 여러 개의 전시 공간이 하나의 덩어리에 담긴 설계로 유명하다. 곡면으로 이루어진 백색의 전시 공간은 가급적 인조광을 배제하고 자연광을 끌어 들여 은은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시시때때로 변하는 빛의 향연을 볼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미술관을 설계한 알바루 시자는 '모더니즘 건축의 마지막 거장'이라 불리는 포르투갈의 건축가로,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건축 자체로 전시 이상의 큰 즐거움을 선사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알바루 시자가 설계한 브라질의 이베리 카르마구 미술관보다 전세계적으로 더 많은 방문객을 끌어 모을 것'이라는 포르투갈의 유명한 건축사진 작가 페르난두 게하의 말처럼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개관 전부터 각종 해외 매체에 소개되었으며, 국내외 건축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축과 현대 미술을 포괄하는 다양한 전시와, 건축 강의 프로그램인 <미메시스 강의실>, 어린이 예술 체험 프로그램인 <미메시스 키즈룸>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전시_
이세현 개인전 : 레드 - 개꿈 展

조선 산수화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분단 한국의 현실을 소재로 다루며, 비극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국인의 얼굴을 그리는 전시이다.

전시기간 : 10. 10(토) - 12. 20(일)
관람시간 : 화 - 일요일 10:00 - 16:00
관람료 : 어른 5,000원
학생/노인/군인/유공자/장애인 4,000원
미취학아동 무료

백남준아트센터 ●

Nam June Paik Art Center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백남준로 10
031-201-8571 | njp.ggcf.kr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가, 백남준을 기념하고 그의 사유와 예술을 조명하기 위해 설립된 백남준아트센터는 2001년 작가 백남준과 경기도는 아트센터 건립을 논의하기 시작하여 2008년 10월에 개관했다. 백남준은 생전에 그의 이름을 딴 이 아트센터를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이라고 명명했고, 백남준아트센터는 작가가 바랐던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을 구현하기 위해 백남준의 사상과 예술 활동에 대한 창조적이면서도 비판적인 연구를 발전시키는 한편, 이를 실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곡선을 이루는 백남준아트센터의 외관은 백남준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그랜드 피아노의 형태, 그리고 백남준의 영문이름 성 'Paik'의 첫 글자인 'P' 형태를 지니고 있다. 아트센터는 독일건축가인 크리스텐 쉐멜과 마리나 스탄코빅이 공동으로 설계하였다.

전시_
인터미디어 극장 展

백남준 작품 중에서 미디어와 미디어 사이의 관계를 통한 인터미디어적인 접근 방식의 예술을 보여주는 전시

전시기간 : 2015. 6. 27(토) - 2016. 1. 17(일)
전시장소 : 백남준아트센터 1층
관람시간 : 10:00 - 18:00 (월요일 휴관)
관람료 : 성인 4,000원
학생/군인/청소년 2,000원

전시_
하룬 미르자 : 회로와 시퀀스 展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을 수상한 영국의 미디어 아티스트 하룬 미르자 수상작 전시

전시기간 : 2015. 10. 29(목) - 2016. 2. 7(일)
전시장소 : 백남준아트센터 2층
관람시간 : 10:00 - 18:00 (월요일 휴관)
관람료 : 성인 4,000원
학생,군인/청소년 2,000원

보름산미술관 ●

Boroomsan Museum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 100-78
031-985-0005 | www.boroomsan.com



김포 고촌(高村) 보름산 자락에 자리 잡은 지역문화 공간인 보름산미술관에서는 그림뿐만 아니라 목가구와 석물 그리고 옛 기와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차를 마시고 책을 읽을 수도 있으며 작은 음악회를 만날 수도 있다. 대보름날처럼 풍성한 여유를 나누는 보름산미술관에서는 상설 기획전인 <얼굴, 얼이 통하는 동굴>과 2015년 9월 1일부터 한성필 작가가 찍은 보름산미술관 소장 작품의 사진전 <돌사람과 얼굴 망와>가 진행되고 있다. 바윗돌을 깨뜨려 만드는 석인(石人)과 모래알 같은 작은 흙가루를 다시 뭉쳐서 만든 망와는 보름산미술관의 주요 소장품이다. 문무관석(文武官石), 동자석(童子石) 등의 석인, 돌사람과 한옥의 지붕 위에 올린 기와인 망와는 우리 나라 어디에나 있는 것이었고 둘 모두 가족들에게 안정과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문학적 감수성이 풍성한 보름산미술관의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자자하다.

관람시간 : 화 - 토 10:00 - 17:00
일 13:00 - 17:00 (월요일 휴관)
관람료 : 2,000원

블루메미술관 ◆

Blume Museum of Contemporary Art
BMOCA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헤이리마을길 59-30
031-944-6324 | www.bmoca.or.kr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에 있는 블루메미술관은 특성화된 주제의 전시로 현대미술의 현장을 해석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과 지역사회와 호흡하고 있다. 미술관 부지에 원래부터 자라고 있던 나무 한 그루를 그대로 건축 설계에 반영한 독특한 미술관 건물처럼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며, 느린 호흡으로 소통의 과정을 중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현대미술이 사람들 사이의 만남과 관계를 만들어내는 방식에 주목한다.

전시_
코끼리 주름 펼치다 展

이 전시는 우리나라에는 본래 없는 동물인 '코끼리'에 대한 문화적 해석의 역사를 살피면서 코끼리라는 낯선 동물을 편견과 상처를 가진 모슨 생명의 메타포로 바라보게 한다. 예술가의 눈으로, 시각장애인의 눈으로, 코끼리의 눈으로, 관객의 눈으로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볼 수 없는 주름진 곳의 이면을 들추어보게 하는 이 전시는 독특한 전시 투어 프로그램과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전시기간 : 10. 9(금) - 12. 27(일)
관람시간 : 화 - 토 11:00 - 18:00
일 13:00 - 18:00 (월요일 휴관)
관람료 : 일반 3,000원
단체/어린이/청소년/국가유공자/장애인 2,000원
유아/경로자 무료

서호미술관 ●◆

Seoho Museum of Modern Art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 1344
031-592-1865 | www.seohoart.com



전시_
강경순 개인전

자연을 소재로 회화와 판화 작품 전시

전시기간 : 2015. 11. 11(수) - 2016. 1. 15(일)
관람시간 : 10:00 - 18:00 (휴관일 없음)
관람료 : 개인 2,000원, 단체 1,500원

교육 프로그램_
소통하는 문화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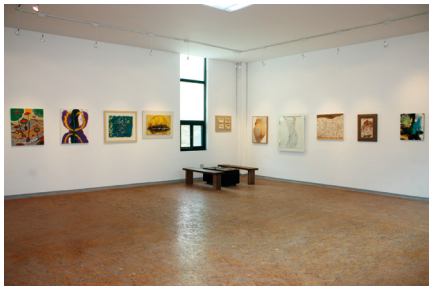
건축과 음악 강의

프로그램일시 : 11. 25(수) 17:00 - 20:00

설미재미술관 ●◆

Seolmijae Art Museum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유명로 1454-38
031-585-6276 | www.artsm.kr



전시_
신소장품전

설미재미술관에 소장된 회화작품 30여점을 소개한다.

전시기간 : 2015. 11. 1(일) - 2016. 1. 30(토)
관람시간 : 10:00 - 18:00 (월요일 휴관)
관람료 : 성인 3,000원 / 학생 2,000원

교육 프로그램_
성인미술아카데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대미술, 판화의 이해

프로그램일시 : 11. 25(수) 9:30 - 12:00
참가대상 : 성인
참가비 : 무료

소다미술관

SoDA-Space of Design and Architectre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38-110
070-8915-9127 | museumsoda.org



버려진 찜질방 건축물이 디자인 건축 전문 미술관으로 재탄생한 소다미술관은 화성시 안녕동에 위치하고 있다. 목욕탕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의 모습을 그대로 남겨 두고, 건물 본래의 콘크리트 뼈대를 그대로 드러내고 최소한의 정돈만으로 새롭게 사람들 앞에 등장한 이 건물은 애초에 공간이란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생명의 결을 달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전시_
RE:BORN II 展

전세계의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건축가들을 초대하여 비록 지어지진 못했지만 세상을 향한 비전을 담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소다만의 위트 있고 생동감 있는 전시 디자인의 형태로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 유럽, 아시아등 국제적으로 활발히 활동 하고 있는 여섯명의 건축 대가들이 보여주는 '지어지지 않은 꿈'에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고민과 함께 미래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이 담겨있다.

전시기간 : 2015. 9. 19(토) - 2016. 1. 31(일)
관람시간 : 화 - 일 10:00 - 19:00,
토 10:00 - 21:00 (월요일 휴관)
관람료 : 성인 5,000원
학생 3,000원
미취학아동 2,000원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Chang Ucchin Museum of Art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211
031-8082-4245 | changucchin.yangju.go.kr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은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장욱진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며, 한국현대미술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미술작품과 자료를 전시, 연구, 교육하는 미술관으로 2014년 개관하였다. 순수한 이상적 내면 세계를 추구한 화가 장욱진의 예술세계는 물론 국내외의 근·현대미술에 대한 다양한 주제기획 전시를 통해 시민의 문화수요를 충족하고 향유를 지향하며 다양한 문화 행사와, 교육, 공공프로젝트, 미술창작스튜디오 등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대중과 호흡한다. 양주시립장욱진 미술관의 건축은 화가 장욱진의 호랑이 그림 <호작도>와 집의 개념을 모티브로 최-페레이라 건축에서 설계하였으며, 중정과 각각의 방들로 구성된 독특한 미술관으로 2014년 '김수근 건축상'(22회/06.14.), 영국 BBC '2014 위대한 8대 신설(new) 미술관'(11.03.), 2014 한국건축가협회 '올해의 베스트7'(37회/10.17.)에 수상, 선정되었다.

전시_
장욱진의 숨결: 시대를 품은 예술가들 展

'스승' 장욱진에게 영향을 받은 다양한 분야의 제자 및 후대 작가의 작품세계를 함께 조망할 수 있다.

전시기간 : 2015. 10. 27(화) - 2016. 1. 17(일)
관람시간 : 화 - 일 10:00 - 18:00 (월요일 휴관)
관람료 : 어른 5,000원
청소년/군인/어린이 1,000원
영유아/노인 무료

양평군립미술관 ●

Yangpyeong Art Museum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문화복지길 2
031-775-8515 | www.ymuseum.org



우리나라에서 인구 비례로 가장 많은 예술인이 모여 사는 양평의 미술문화의 확산과 육성을 위해 2011년 개관한 양평군립미술관은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빠른 속도로 관람 저변을 넓히고 있는 미술관이다.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춘 대중적인 기획전시와 미술문화 향유를 향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은 인근 강원도 지역의 주민들에게까지 입소문이 자자하다.

영은미술관 ●

Younge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8-1
031-761-0137 | www.youngeunmuseum.org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영은미술관은 1992년 한국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대유문화재단이 모태가 되어 2000년 개관했다. 현대미술 작품을 소장, 전시하는 현대미술관과 현역 작가들의 창작스튜디오를 두 축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은미술관은 다양한 작품의 전시와 연구,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미술관 자체가 살아 있는 창작의 현장이자 다양한 미술 전문가들이 교류하는 장이 되어왔다. 특히 영은미술관의 창작스튜디오는 올해로 9기 작가들이 입주하여 현대미술의 산실로 꾸준히 운영되어 왔으며, 해외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시_
2015 영은미술관 9기 입주작가 개인전
신소영-마음으로 보는 이야기

전시기간 : 11. 14(토) - 12. 13(일)
전시장소 : 영은미술관 제2전시장

전시_
서울조각회 정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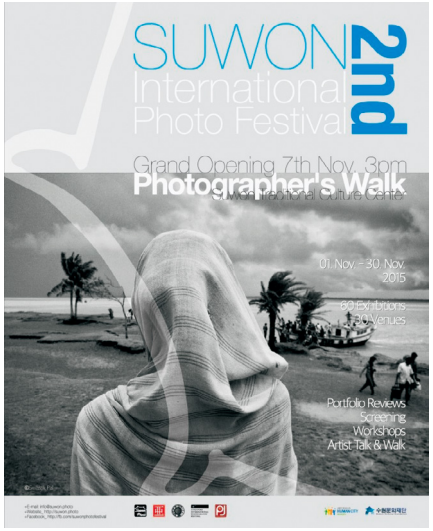
전시기간 : 11. 7(토) - 12. 13(일)
관람시간 : 10:00 - 18:00 (월요일 휴관)
관람료 : 일반 6,000원, 학생 4,000원, 어린이 3,000원

해움미술관 ●

Haeum Museum of Art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33
031-252-9194 | www.haeum.kr

전시_
수원화성국제사진축제



수원화성 일원에서 제2회 수원화성 국제사진축제가 개최된다. 작년 다큐멘터리 사진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의 달이 선포되고, 제1회 다큐멘터리 사진전이 전국규모로 열렸다. 그 이후 올해에는 수원화성 무대에서 제 2회 수원화성 국제사진축제로 열린다. 이번 축제는 대한민국 다큐멘터리 사진축제로 '사진가의 길(Photographer's Walk)'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회, 워크숍, 스크리닝(Screening), 작가와의 만남 등 4개의 축제구성으로 관람 위주가 아닌 참여형 관광축제로 기획됐다.

전시기간 : 11. 1(일) - 11. 24(화)
관람시간 : 10:00 - 18:00 (월요일 휴관)
관람료 : 무료

전시_
인체를 탐미하다 展

전시기간 : 11. 25(수) - 11. 29(일)
관람료 : 무료

특별행사_
퓨전국악 공연 '천우'

한국전통음악과 전통연희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새로운 음악세계를 보여주는 공연

행사일자 : 11. 25(수) 18:00
참가비 : 무료

전국 미술 지형도 인천

오래된 인천, 새로운 예술

변순영(인천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

인천의 곳곳을 돌아다니면 다양한 시간층을 동시에 여행하는 경험을 하곤 한다. 일년에도 몇 번씩 새로운 트렌드를 좇아 간판을 교체하는 도심지역과 달리 오래되고 낡음을 버텨낸 근대 풍경과 신도시의 잘 짜여진 앵글 속 풍경이 공존하는 도시다. 인천 곳곳의 문화공간을 당신은 살아보지 못했던 시간의 퇴적층과 함께 상상하며 걷는 코스를 제안한다.

인천 중구 일대는 근대 개항도시의 흔적을 곳곳에 품고 있다. 100년 전 곡물창고단지를 문화공간으로 재생시킨 인천아트플랫폼은 인천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이다. 국내 유휴산업시설의 문화재생을 시도하는 트렌드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고전적인 화이트큐브식 미술관 기능을 넘어 예술창작과 발표, 향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교류의 플랫폼을 지향한다. 총 13개동의 건물로 이루어진 단지형태이며, 40여명의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창작스튜디오, 공방, 전시공간, 교육공간, 공연장, 아카이브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인천아트플랫폼 단지를 산책하듯 횡단하면 길 끝에서 한국근대문학관을 마주하게 된다. 국내 최초의 종합문학박물관으로 개항지 주변의 창고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개관하였다. 1890년대 근대 계몽기부터 1950년 한국전쟁에 이르는 대표적인 한국근대문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설전시가 알차다.

19세기 말 중국인들이 야채를 팔던 인천 최초의 상설시장인 신포시장과 한국근대문학관 중간지점 에 선광미술관이 자리하고 있다. 1930년대 일본해운회사로 사용되던 근대건축물이 미술관으로 재탄생하였다. 당시 건축 중에서도 흔치않은 4층짜리 철근콘크리트 석조건물로 아름다운 외관을 자랑한다. 아담한 규모의 전시실을 갖추고 있어 작가들의 개인전과 기획전시가 수시로 열린다.

배다리 헌책방거리로 특색있는 동구 지역은 장르 중심의 문화공간을 탈피한 대안문화공간들이 이웃하고 있다. 옛 양조장 건물의 역사를 이어 날 것 그대로의 흔적을 그대로 드러내는 '스페이스빔'은 매우 아방가르드한 실험미술부터 시민문화활동가의 아카이브 전시까지 두루두루 수용가능한 공간이 매력적이다. 배다리 초입의 '배다리안내소'는 이 지역을 순례하는 방문객들에게 친절한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무인시스템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층의 생활사전시관을 특별히 추천한다. 60년대 일상이 이제는 진귀한 골동품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어 방울방울 추억을 더듬게 될 것이다. 인근의 '요일가게' 또한 소소한 재미가 가득하다. 요일마다 주인이 바뀌는 운영방식이 흥미롭다. 손바느질 소품부터 음반, 헌책 등 단순한 공산품의 거래가 아닌, 물건을 매개로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가능성의 거점을 지향한다.

남구 지역은 구청의 후원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어있던 공가를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탄생시키는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낙원여인숙 또한 남구청 후원으로 숭의동 그린빌라 작가집단에 의해 운영되는 문화공간이다. 올해 7월 오랫동안 닫혔던 문을 열었으며, 지난 5월에는 '개관준비전시'로 인천아트플랫폼에 입주한 4인의 유럽작가의 작품들을 선보인바 있다. 날 것 그대로의 여인숙 공간은 박제된 박물관과 대비되며 발랄한 젊은 작가들의 창작으로 꿈틀대고 있다.

겹겹이 포개지는 시간의 퇴적층이 인천을 이루는 지형이라면 가장 윗 부분에는 송도신도시의 간척지형을 말할 수 있다. 행정구역으로 연수구에 속하는 송도 트라이볼은 외관부터 심상치 않다. 세개의 사발형 건물로 '트라이볼'이라 불리는 이 곳은 아레나 형식의 공연장과 전시공간을 갖추었다. 올 여름 '원먼쓰 페스티벌'의 시작과 끝 무대를 성공적으로 치루었으며, 무료관람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상급 클래식 무대를 올리면서 관람신청예약은 늘 조기에 마감된다는 후문이다. 주변 공원 산책로로 이어지는 동선 또한 매력적이어서 굳이 공연관람이 아니더라도 독특한 건축물을 중심으로 공원 산책가의 여유로움을 누려도 좋은 선택이다.

인천은 오래된 도시다. 100년전 도로 구획이 그대로 잔존하여 구불구불 비좁고 걸어가야만이 마주하게 되는 풍경들이 희귀하다. 오래되고 낡았지만 스스로의 스토리를 지닌 유물과 같은 문화공간들이 보물처럼 자세히 들여다보는 자에게 반짝임을 선사하는 도시다. 빈티지 인천으로 초대한다.

23 월	전시 <강혁 개인전>	선광미술관	11. 23 - 11. 30
24 화	전시 <정수모 개인전>	인천아트플랫폼	11. 17 - 11. 24
	전시 <이의재 개인전>		11. 17 - 11. 27
25 수	-		
26 목	전시 <2015 MTP젊은시선>	K-Art Media Gallery	11. 5 - 12. 30
27 금	-		
28 토	전시 <한 시간에 보는 명화 속 인문학>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11. 20 - 12. 9
29 일	-		

케이아트 미디어 갤러리
K-Art Media Gallery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00번길 31 MTP몰 B2F
032-280-1974

인천 서구 지역에 지난 9월에 오픈한 따끈따끈한 신상 갤러리이다. 의료와 엔터테인먼트의 조합인 '메디테인먼트' 개념으로 형성된 엠티피몰 지하에 마련되었다. 김태희와 주원이 주연한 SBS 드라마 '용팔이'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전시_
2015 MTP 젊은 시선 展

전시기간 : 11. 5(목) - 12. 30(수)
관람시간 : 9:00 - 18:00
전시장소 : MTP MALL (엠티피몰) K-Art Media Gallery 전시실

낙원여인숙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82-23



오래된 여인숙이 전시공간으로 나그네를 맞이한다. 4년간 방치되었던 옛 낙원여인숙 공간(숭의동 82-23)을 인천 남구청이 매입하여 젊은 작가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일종의 실험공간이다. 숭의동 그린빌라 작가집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7월에 문을 열었다. 서울 통의동 보완여관, 대전 산호여인숙과 제주의 동문모텔과 같이 독특한 색깔을 지니고 있다. 오래되고 낡은 폐허 속에서 누군가는 한줄기 생명을 이어 나갔던 숙박의 공간과 낙원의 조우가 날것 그대로 만나볼 수 있다.

배다리 요일가게 '다多-괜찮아!'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11-5
www.baedari.com



배다리 헌책방 거리에 자리한 배다리 요일가게는 매일매일 주인이 바뀌는 가게이다. 조그마한 12평 공간에 7명의 서로 다른 주인이 한 요일씩 맡아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지속가능한 작은 문화공간에 대한고민에서 출발했다. 요일마다 영화가 상영되거나 핸드메이드 공방이 열리거나, 책 읽는 모임과 이야기자리가 펼쳐지거나 날마다 예술가에서 회사원, 주부에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인장들의 가게 이야기가 가득하다. 11월에도 작가와의 대화, 버스킹 공연, 한밤의서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복합문화공간 트라이볼
Tri-Bowl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0
032-760-1014 | http://www.tribowl.kr



송도 신도시에 자리한 트라이볼은 원형극장(ARENA) 형태의 공연장과 교육, 전시 등이 가능한 다목적홀을 갖추고 있다. 세계 최초 역쉘구조로 지어졌으며, 2010년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사회공공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클래식 시리즈는 대표 브랜드 공연프로그램이며, 11월에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풍성한 공연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사진공간 배다리
BAEDARI Photo Gallery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14-10
070-4142-0897 | www.uram54.com



지역에서 사진작업을 오랫동안 해온 이상봉 관장이 인천 동구 배다리 헌책방 골목에서 문을 열었다. 사진전시와 아카데미 교육을 하는 갤러리 공간과 사진에 관심있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 및 서점 역할을 하는 커뮤니티관이 준비되어 있다. 재개발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낡은 도시의 잔재를 기록한 "폐허 속에서 발견한 오브제(2013.8)" 전시를 중심으로 지역내외 다양한 사진 아카이빙 커뮤니티를 구성해오고 있다.

선광미술관
Sunkwang Art Museum

인천 중구 중앙동4가2-26
032-773-1177

한국 최초의 우체국이 위치한 인천 중구 개항지 일대에는 당시 근대건축물이 보존되어 있다. 최초의 우체국 바로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는 선광미술관은 1920년대 일선 해운주식회사가 세운 업무용 건물로 국내에도 흔지 않은 4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근대건축물이다. 인천지역의 오래된 중견기업인 선광주식회사가 몇 년째 방치되었던 이 건물을 미술관으로 재탄생 시켰다. 전시공간이 부족한 인천 지역 작가들을 든든하게 후원하고 있다. 11월에는 페인팅과 영상설치 작업을 병행하는 강혁 개인전이 계획되어 있다.

전시_
강혁 개인전

전시기간 : 11. 23(월) - 11. 30(월)
관람시간 : 10:00 - 18:00 (연중무휴)
관람료 : 무료

스페이스 빔
Space Beam

인천광역시 동구 서해대로513번길 15
032-422-8630 | www.spacebeam.net



인천 동구 철길 옆 배다리 마을에는 대표 아이콘인 양철 로봇이 지키고 있는 대안예술공간 스페이스 빔이 있다. 허름한 옛 양조장 건물을 임대하여 무분별한 재개발에 대항하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배다리마을의 고유의 색을 되살리고자 다양한 도시포럼과 레지던시 프로젝트 등의 예술실험을 거듭하고 있다. 일상예술 운동을 조용히 실천하고 있는 문화공간이다.

인천아트플랫폼 ●
Incheon Art Platform

인천광역시 중구 해안동1가 10-1
032-760-1005 | www.inartplatform.kr



인천 중구 해안동에 위치한 스트리트뮤지엄이다. 인천 구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등록문화재인 일본 우선주식회사를 비롯해 근대 개항기 창고와 100여년 전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예술가를 위한 창작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레지던시 사업을 중심으로 전시장과 공연장, 교육관, 아카이브, 커뮤니티홀을 갖춘 13개동의 단지 규모이다. 11월에는 정수모 개인전 “땅의 소리”와 한국화가 이의재 개인전이 전시실과 공방 공간에서 펼쳐진다.

전시_
정수모 개인전 “땅의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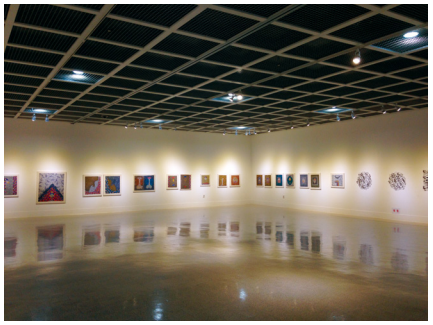
전시기간: 11. 17(화) - 11. 24(화)
전시장소 : B동 전시장
관람시간 : 10:00 - 18:00
관람료 : 무료

전시_
이의재 개인전

전시기간 : 11. 17(화) - 11. 27(금)
전시장소 : G1공방, 무료관람
관람시간 : 10:00 - 18:00
관람료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Incheon Culture & Art Center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49
032-427-8401 | art.incheon.go.kr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1990년대에 건립된 지방예술회관으로 공연장과 전시실, 국제회의실을 갖추었다. 인천의 주요 도심지에 입지하여 편리한 대중교통과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사무시설의 중심지라는 접근성으로 전시공간으로 선호도가 높은 곳이다. 11월에는 “한 시간에 보는 명화 속 인문학 展”이 준비되어 있다.

전시_
한 시간에 보는 명화 속 인문학 展

전시기간 : 11. 20(금) - 12. 9(수)
관람시간 : 10:00 - 18:00
전시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 전시실
관람료 : 무료

한국근대문학관
The Museum of Korean Modern Literature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15번길 76
032-455-7165 | lit.ifac.or.kr



2013년에 개관한 한국근대문학관은 근대 계몽기에서 한국전쟁 발발에 이르는 한국 근대문학 관련 도서, 원고, 유품 등 관련자료 2만9천여점을 소장, 전시하고 있다. 인천 원도심의 중심이자 관광지구인 중구 개항장에 자리하고 있으며, 한국근대문학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공공종합문학관이다. 상설전시가 마련되어 있어 언제든 관람할 수 있다.

전국 미술 지형도

대전 | 충청

재조명하고 도시, 건축 등 잊혀 진 도시문화를 재발견하는 사업과 더불어 실험적인 전시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와 거리문화 회복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흥동에서 활동하는 음악, 공연, 예술, 프린즈, 프리마켓 등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축제 '대흥동립만세'와 동참하고 대전문화연대와, 사회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도시전체를 레지던스화 하는 새로운 도시생태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대전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테미창작센터'와 버려진 옛 건물을 개조한 게스트하우스 '산호여인숙', 최근 충남도청이 세종시로 옮겨가면서 또 따른 도시재생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구)충남도청사 전시관'이 활기를 더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때 일본철도직원들이 거주했던 '소제관사촌 42호'가 레지던스 공간으로 운영하며 지역 아카이브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대전역 앞에 오래된 극장을 개조해 독립영화만을 상영하고 있는 '대전아트시네마'가 자리하고 있어 대전 고유의 문화생태를 지켜가고 있다.

사통팔달[四通八達]의 젊은 도시, 대전

김민기(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대전은 1904년 경부선, 1914년 호남선이 개통되면서 대전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고 1932년 충남도청의 이전으로 명실상부 중부권 최대의 행정, 교통의 중심지로 급부상한 도시이다. 대전시를 알기 위해서는 원도심과 신도시로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성이 있는데 1993년 대전엑스포 개최 이후 급변하게 확장되는 도시의 발전에 연관이 있다.

먼저 원도심은 1960~70년대 이후 다양한 화랑이 생기면서 대전의 문화1번지 거리가 조성되고 다양한 예술인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활기를 띄게 된다. 주로 원도심이라는 특정적인 도시생태에서 잊혀진 과거의 시간과 새로운 문화트랜드가 결합하면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오랫동안 버려진 근대건축물 100호 '대전창작센터'는 복합문화센터로서 대전의 문화, 역사를

상대적으로 신도시에 위치한 대전시립미술관은 주변에 KAIST가 있고 각종 유명기관의 연구소가 자리하고 있는 대덕과학연구단지가 있는 과학의 도시라는 대전의 브랜드를 지켜나가고 있다. 대전시립미술관은 그 기반으로 2000년부터 과학과 예술이 융복합한 국제미디어전시를 시작으로 격년제행사 <프로젝트 대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충청도 출신인 세계적인 고암 이응노의 작품세계를 기리는 '이응노미술관'이 개관하며 프랑스와 국제교류사업을 활발하게 펼쳐나가고 있다. 그리고 홍성에 위치한 '이응노생가기념관'이 활기를 더하고 있다. 대전은 이처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이면서 예술과 과학이 숨 쉬는 젊은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공주에서 개최하고 있는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는 자연미술을 토대로 1981년부터 개최한 국제미술제로서 대전 · 충청지역의 브랜드행사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1999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는 공예문화의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세계공예문화트랜드 구축이라는 슬로건을 두고 개최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개관한 청주창작스튜디오 HIVE와 2007년도 개관한 청주창작스튜디오가 활발하게 작가지원을 하면서 미술의 부흥에 힘쓰고 있다.

23 월	전시 <2015에꼴드아미 레지던스>	아미미술관	10. 17 - 3. 31
24 화	-		
25 수	전시 <이재삼_달빛정원>	신미술관	9. 22 - 12. 12
	교육 <그림그리는 미술관>		11. 25
	특별행사 <동요, 클래식이 되다>		11. 25, 18:00
26 목	전시 <목원대 기미과 재학생>	이공갤러리	11. 26 - 12. 2
27 금	전시 <자연의기억>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10. 7- 11. 30
	전시 <천지간전>		
28 토	전시 <21C하이퍼리얼리즘>	대전시립미술관	9. 4 - 12. 20
29 일	전시 <에꼴 드 이응노-파리동양미술학교>	이응노미술관	9. 23 - 12. 27

/ 대전

구)충남도청 전시관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2
042-270-4535

대전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보기 좋은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이 건물은 1932년 건립된 구 충남도청사(등록문화재 제18호)는 도청소재지를 공주에서 대전으로 옮기면서 신축한 관공서이며 한국전쟁 당시 임시정부청사로 사용되었던 역사적인 건물로 대전의 역사를 끌어안은 오래된 상징적인 건물이다. 2012년 충남도청 청사가 내포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지금은 대전근현대사전시관, 대전시민대학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영화 '변호인'에서 법정 장면이 나오는 곳으로 유명한 공간으로 도시여행자들이 대전을 방문할 때 꼭 들리는 장소 중 하나이다. 그리고 주변에 오래된 식당과 작은 카페들이 밀집되어 있어 고궁처럼 산책하기에 좋은 여행지이다.

대전시립미술관 ●

Daejeon Museum of Art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55
042-270-7370 | dmma.daejeon.go.kr



1998년에 설립된 대전시립미술관은 한국 현대미술 전반의 중요한 흐름을 연구하고 전시 및 교육 정책을 통해 시민사회에 예술문화의 확산을 모색하는 공공미술관이다. 주변에 KAIST가 있고 각종 유명기관의 연구소가 자리하고 있는 대덕과학연구단지가 있는 과학의 도시라는 대전의 브랜드를 지켜나가고 있다. 대전시립미술관은 그 기반으로 2000년부터 과학과 예술이 융복합한 국제 미디어전시를 시작으로 격년제 행사 <프로젝트 대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피카소와 천재화가들>, <21C 하이퍼리어리즘> 등 국제전을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문화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대전시립미술관은 전시실, 수장고, 강당, 세미나실, 자료실, 교육실기실, 분수공원, 잔디공원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소장품 1,154점을 보유하고 있다

전시_
가을특별전 - 21C 하이퍼리얼리즘

전시기간 : 9. 4(금) - 12. 20(일)
전시장소 : 대전시립미술관 제 1~4전시실
관람시간 : 10:00 - 1:00 (수요일 21:00 까지)
관람료 : 성인 10,000원, 어린이/청소년/대학생/군인/예술인패스소지자/신분증소지교사 8,000원, 미취학아동/노인 4,000원

대전시립미술관 창작센터

Daejeon Art Center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70
042-255-4700



대전시 중구 은행동에 위치한 대전창작센터는 1958년 <(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지원>으로 사용하던 관공서 건물이다. 이곳은 1999년 건축문화의 해에 '대전시 좋은 건축물 40선'에 선정됐고, 2004년 9월 4일 등록문화재 제 100호로 지정됐다. 1999년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충청지원이 옛 선화동 검찰청사로 옮겨간 뒤 비어있다가 2008년부터 대전시립미술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하고 2008년 9월 25일에 개관하였다. 대전창작센터는 '상상과 실험의 공간'으로서 대전의 실험미술을 재조명하는 전시개최와 대전미술의 역사와 현장을 기록하는 정보센터로서 다양한 창작지원 프로그램 진행으로 누구나 편하게 즐기는 전시공간으로 새로운 대전 미술의 패러다임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Artist Residency TEMI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199번길 37-1
042-253-9810~13 | www.temi.or.kr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는 대전광역시가 원도심을 문화와 예술을 통해 활성화 및 재생하기 위해 유휴 공간이었던 (구)테미도서관을 활용하여 조성한 시각 예술 레지던스 공간으로 원도심 한복판에 있는 보문산의 줄기인 수도산에 조성된 테미공원 안에 있다. 이 테마공원은 벚꽃축제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국내외 예술가들이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창작활동을 펼치는 소통과 교류의 창작공간 및 전시공간으로 창작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면적 1380㎡ 규모로 입주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개인 스튜디오와 공동 작업실, 미디어실, 세미나실 등과 예술작품 전시실 등이 있으며 학생과 일반시민을 위한 열람 · 학습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호여인숙
Sanho Guesthouse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91-5
070-8226-2870 | blog.naver.com/sanho2011



산호여인숙은 1970년대에 지어져 지난 10년 전가지 영업을 하며 원도심을 쓸쓸히 지키고 있던 건물이다. 대전의 추억과 사연이 담긴 이 건물을 대흥동에서 활동하는 문화인들이 외부와 교류하고 문화예술의 거점의 역할을 할 장소를 찾던 중, 2011년 이곳 여인숙과 인연이 되었다. 10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던 여인숙을 예술가들이 직접 공간을 다시 개조하고 옛날 이름 그대로 '산호여인숙'을 사용하며 게스트하우스로 오픈하였다. 유흥상업지구인 대흥동, 문화예술인들의 터전 대흥동 두 성격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레지던스 사업', '대흥동 골목투어'와 '대흥동 문화공동체', '1+1 빈집프로젝트', '문화예술 공유모임-오감' 등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소제관사42호

대전광역시 동구 소제동 299-110



대전역 동편에 있는 1930년대 일본인철도노동자들의 거주지역이었던 철도관사촌으로 100여 채 중 현재 30여 채가 남아 있으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대전근대아카이브즈 포럼'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는 지역커뮤니티 공간이다. 소제사진관이라는 간판을 걸고 주민들의 사진을 찍은 인물기록 아카이빙과 시계의 태엽으로 거꾸로 돌리 듯 소제동의 일상의 풍광을 그대로 예술로 재현한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철도보급창고에서 작은창고음악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공갤러리
IGONG gallery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139번길 36
042-242-2020 | www.igongart.co.kr

이공갤러리는 1998년 대흥동에 위치한 1층 허름한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개관한 17년차의 제법 역사를 간직한 몇 안 되는 대표적인 갤러리이다. 그동안 기획전을 포함, 총 전시는 390여회 개최하였으며 작가만 4,000명이 넘는다. 숫자가 말해 주듯이 대전 이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지역미술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 단초 역할까지 꾸준히 해온 대표적인 갤러리이다.

전시_
목원대학교 기미과 재학생 展

전시기간 : 11. 26(목) - 12. 2(수)
관람시간 : 11:00 - 19:00
관람료 : 무료

이응노미술관 ●
Lee Ungno Museum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57
042-611-9821 | ungnolee.daejeon.go.kr



이응노미술관은 소장품 1,336점과 고암 저작권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공공미술관으로서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를 넘어 예술에서 삶의 가치를 탐구한 고암 이응노 화백의 예술세계를 조명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대전시에 2007년 5월 개관하였다. 2012년 2월에는 미술관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법인인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으로 출범하였으며 세계 유일의 고암 연구센터로서 전시, 연구, 출판, 교육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국제적인 수준의 작가 미술관을 지향하고 있다. 이응노미술관을 설계한 프랑스 출신 세계적인 건축가 로랑 보두엥(Laurent Beaudouin, 1955-)은 고암의 작품 <수(壽)> 속에 내재된 조형적 구조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 속 드로잉적 요소를 구조로 전환하여 고암의 문자추상을 건축적으로 해석하고 상징화 했으며 매년 건축가와 건축학과 학생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시_
에꼴 드 이응노-파리동양미술학교 展

전시기간 : 9. 23(수) - 12. 27(일)
전시장소 : 이응노미술관 전관
관람시간 : 10:00 - 18:00 (월요일 휴관)
관람료 : 어른 500원, 어린이/청소년 300원
군인/노인/유아/장애인/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다자녀우대 '꿈나무 사랑카드'소지자 전원 무료

/ 청주

신미술관 ●◆

Shin Museum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호국로 97번길 30
043-264-5545 | www.shinmuseum.org



전시_
2015 신미술관 특별기획: 이재삼_달빛정원 展

신미술관은 15주년을 맞이하여 찬란한 태양처럼 빛나거나 눈부시지 않지만 어두운 밤 은은하게 불을 밝히는 달처럼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며 지역에 스며드는 미술관이 되고자하는 다짐을 이재삼 작가의 깊이 있는 작품으로 전한다. 이재삼의 회화는 사물의 이면을 보고자 하는 욕망의 반영으로 암흑과 같은 저 너머의 관념적 세계를 암시한다. 그는 수없이 목탄을 겹쳐 올리면서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기운이 자욱한 달빛을 가시화한다. 달빛은 풍경과의 조응 속에서 한국적 기운과 심성을 불러일으킨다.

전시기간 : 9. 22(화) - 12. 12(토)
관람시간 : 10:00 - 18:00 (일, 월요일 휴관)
참여작가 : 이재삼
관람료 : 일반 1,000원, 학생 500원

교육 프로그램_
꽃연필 만들기

프로그램일시 : 상시 가능
대상 : 누구나
참가비 : 2,000원

교육 프로그램_
그림그리는미술관 - Copyist Program

프로그램일시 : 11. 25(수)
대상 : 사전예약을 통한 일반시민 누구나
참가비 : 무료

특별행사_
달콤한 문화마을 작은음악회_
박종화 콘서트 - 동요, 클래식이 되다

행사일시 : 11. 25(수)
참가비 : 무료

청주공예비엔날레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043-277-2501~3 | www.okcj.org/2015

5천 년의 전통을 지닌 공예의 나라,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행사로 옛 청주연초제조창에 개최하는 비엔날레로 올해 벌써 9번째를 맞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삶속에 가까이 존재해 왔던 공예의 그 쓰임새와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예술로 승화시킨 세계 각국의 공예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제행사이다. 다양한 문화, 재료, 기술, 기법에 따라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공예 그 이상의 가치를 확인 수 있다. 일반인들을 위해 전시와 교육, 체험, 공연, 문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며 전통 공예와 현대공예가 조화된 창조와 화합의 마당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축제이다.

/ 공주

청주창작스튜디오

Cheongju Art Studio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 55
043-201-4057~8 | cjartstudio.cheongju.go.kr

청주시에서 새로운 미술문화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시각예술을 알리기 위해 청주미술창작 스튜디오를 2007년 3월에 개관하였다. 미술작가들에게 창작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스튜디오 입주 작가와 외부 미술전문가들의 연계를 통해 이들의 창작능력을 배양하고 고취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국내외 작가들에게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작가들의 입주 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으로 되어 있으며 작가들의 다양하고 실험적이며 진취적인 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작가와 지역주민과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공공 미술창작스튜디오로서의 역할도 다하고 있으며 입주작가들 작품관람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Geumgang Nature Art Biennale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연미산고개길 8
041-853-8828 | www.natureartbiennale.org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는 1981년부터 시작된 공주의 대표적인 국제행사이다. 현재는 충남 공주시 연미산 자연미술공원 일원에서 개최하는 비엔날레로 '미술을 통한 자연, 환경 그리고 인간'이라는 비엔날레의 주제와 같이 산업 사회의 발달로 인한 도시의 팽창, 자연 파괴 등 인간을 둘러싼 자연 환경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적 상황에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에서 개최하는 비엔날레 중에 가장 독특한 대표적인 비엔날레이다. 행사기간 동안에는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작가들이 숙식을 함께하며 인공적인 작품이 아닌 자연에서 얻어진 재료로 제작된 작품만 전시한다. 일반인들과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작품을 보기 위해서는 가벼운 산행장비를 챙기는 것이 좋다.

전시_
'세계 자연미술가 30인전' 자연의기억

전시기간 : 10. 7(수) - 11. 30(월)
전시장소 : 금강자연미술센터전시실

전시_
천지간전

전시기간 : 10. 7(수) - 11. 30(월)
전시장소 : 금강자연미술센터 숲속마루

/ 당진

아미미술관 ●

Ami Art Museum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남부로 753-4
041-353-1555 | www.amiart.co.kr

전시_
2015에꼴드아미 레지던스>展



미술관에 8명의 작가가 1년간 거주하며 제작한 작품으로 회화, 설치, 입체, 사진, 영상 등을 전시한다.

전시기간 : 2015. 10. 17(토) - 2016. 3. 31(목)
관람시간 : 10:00 - 17:00 (휴관 없음)
참여작가 : 김영식, 남달리, 문예지, 박정은, 서지원, 이강우, 오계숙, 이은열
관람료 : 6세 이상 2000원, 성인 3000원

/ 홍성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Maison d'ungnolee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이응노로 61-7
041-630-9232 | blog.naver.com/toyain

충남 홍성군 홍북면 중계리 홍천마을은 고암 이응노 선생이 1904년에 태어난 생가 터이다. 홍성에서 17세까지 살았으며 서울, 일본과 유럽으로, 넓은 세계로 나아가 인류평화와 화해의 염원을 탐구했던 작가의 원천이 된 고향이다. 이응노 선생의 생가인 초가집에 설립된 '고암 이응노생가기념관'은 선생이 쓰시던 유품과 동양의 전통 시서화와 서양현대미술을 동시에 감상 할 수 있다. 건물과 주변 자연환경은 코스모스와 연꽃이 가득한 넓은 공원과 세련된 본관, 대숲이 있으며 생가인 초가집에서는 연잎차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은 2013년 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건축물로서 동서양이 공존하는 공간을 마음껏 감상하면 좋은 미술관이다.

관람시간 : 9:00 - 17:00 (월요일 휴관)
관람료 : 어른 1,000원, 어린이/청소년 500원
노인/유아/장애인/유공자 무료

전국 미술 지형도 전북

전라북도 미술계의 새로운 도약과 비상(飛上)을 기대하며
이태호(미술평론가, 익산문화재단 사무국장)

현대미술의 흐름과 변화 속에서 전라북도 미술계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기나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2004년 10월, 전북도립미술관이 건립되고 정읍시와 익산시에서 시립미술관을 개관하였지만, 여전히 미술관이나 갤러리 같은 전시공간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전문 기획자나 미술평론가, 미술작품 수집가들의 부재 등 그 열악한 구조로 인하여 전북에서 현대미술과 미술작품에 대한 진지한 화두(話頭)는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전북미술계의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특히 불가사의하게 느껴질 정도로 젊은 작가들의 지속적인 활동이나 전주우진문화공간, 전주교동아트미술관, 전주서신갤러리, 익산W미술관, 익산문화재단 레지던스, 완주오스갤러리, 군산문화공간여인숙, 부안휘목미술관 등 지역을 대표하는 창작공간들의 꾸준한 활약과 더불어 전북대학교 예술진흥관, 전주서학동사진관, 전주대한문화예술협동조합 성암아트홀, 삼례문화예술촌, 군산예깊미술관, 군산이당미술관 등 새로운 전시공간들이 개관(開館)을 한 것은 좋은 사례들이라 할 수 있겠다.

전북미술계가 더욱 더 발전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공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훌륭한 전시공간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과 기능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공간들이 많은데, 이것은 기획전시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전문적인 안목과 식견, 경험 등을 두루 갖춘 전문 기획자의 부재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 지역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예산의 부족과 전문기획자의 부재는 결국 작품과 작가의 선정, 프로그램의 기획 및 홍보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지역 전시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최근 전라북도 미술계는 외형적으로 늘어난 전시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전시의 내용과 질(質)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전시들이 여전히 특정된 장르에 편중되어 있고 일부 기획전은 비슷한 규모의 중앙 및 타 지역의 전시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마치 '맛 뵈기'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수많은 전시들 중에 전북미술계에서조차도 커다란 감흥과 새로운 화두를 던져줄 수 있을 만큼 눈에 띄는 전시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공공미술관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현대미술은 장르의 경계를 넘어 '종합예술'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전라북도 미술계는 여전히 미술 분야만이 아닌 타 분야와의 만남을 시도한다거나 조금 더 진보적이거나 실험적인 전시방식은 시도를 하지 못하거나 미흡한 것 같아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리고 이런 아쉬움들은 결과적으로 지역의 열악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것이 또 다른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더욱 착잡한 것은 이런 악순환과 구조적인 문제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될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의 빛은 존재한다. 왜냐하면 서두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전북미술계는 끊임없이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을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새로운 사설화랑들과 전시공간들이 생겨나고 있고 새싹과 같이 잠재력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젊은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양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미술계의 희망은 이처럼 예술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젊은 작가들로부터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젊은 작가들에게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정방식에 문제점을 지적받고는 있지만, 최근 전북도립미술관이 젊은 작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면서 신진작가들을 양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전라북도 미술계가 젊은 작가들을 발판삼아 힘찬 도약과 함께 새롭게 비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3 월	-		
24 화	전시 <산수풍경>	교동아트미술관	11. 24 - 12. 6
	특별교육 <교동아트 오픈아뜰리에>		11. 25
	전시 <제2회 국제 뉴미디어>	삼례문화예술촌	11. 24 - 2. 28
	전시 <황나영 개인전>	서신갤러리	11. 24 - 11. 30
25 수	전시 <엄마의 삶>	익산 예술의전당 미술관	10. 21 - 11. 25
	교육 <큐레이터와의 대화>		10. 27 - 11. 25
	전시 <이상조 개인전>	서학동 사진관	10. 31 - 12. 3
26 목	전시 <정초롱-4개의섬>	창작문화공간 여인숙	11. 21 - 11. 29
27 금	전시 <Great Gunsan>	예깊미술관	10. 1 - 11. 28
28 토	<아시아현대미술전2015>	전북도립미술관	9. 11 - 12. 13
29 일	전시 <지현 개인전>	우진문화공간	11. 19 - 12. 2

/ 군산

예깊미술관
Yegip Art Museum

전라북도 군산시 명산동 7-10번지 에이펙스빌딩 2층
063-911-2207 | www.yegip.co.kr



예깊미술관은 2014년 개관하여 서양화가 이미선 작가 초대전을 시작으로 최광선 작가 초대전, 군산시 미술협회 40인 초대전, G3기획전, 서양화가 이종만 작가 초대전 등을 진행하였다. 2015년에는 한국 미술협회 군산지부와 함께 제1회 군산미술상 시상식을 진행했는데, 수많은 예술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의 자체적인 시상기회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군산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군산 예술계의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시_
Great Gunsan 展

김수관 작가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군산을 '위대한 군산'이라고 규정하고 그 메시지를 사진에 담고 있다. 사진을 통해 본 군산의 모습은 사진의 크기 만큼이나 그야말로 과거에도 위대했고, 미래에도 위대할 수밖에 없다는 느낌을 바로 감지할 수 있다. 이 전시는 군산의 모습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며, 군산을 재조명한다.

전시기간 : 10. 1(목) - 11. 28(토)
관람시간 : 화 - 금10:00 - 18:00
토 10:00 - 21:00 (일요일/월요일 휴관)
관람료 : 무료

창작문화공간 여인숙
Art & Culture Space in Yeoinsuk

전라북도 군산 월명동 19-13
063-471-1993 | cafe.naver.com/gambathhouse



실제 여인숙(旅人宿)을 운영하다가 오랫동안 영업을 하지 않아 흉물스럽게 방치됐던 건물을 미디어 아티스트 작가 이상훈이 2010년 창작 문화 공간 여인숙(與隣熟)으로 새롭게 탄생시켰다. <군산 창작문화 공간 여인숙>은 레지던스 공간이며 주민들과 교류사업도 활발히 펼친다. 대표적인 것이 동국사 가는 길 정비 사업이었다. 2010년부터 여인숙 레지던시 입주 작가, 지역 작가, 지역 주민들이 낡고 허름하고 제각각이던 간판들을 특색을 갖춘 멋진 간판으로 바꾸었다. 동네 벽은 빨래터, 아기 업은 소녀 등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모티브로 구성해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2012년에는 문화 관광부와 한국 건축가 협회가 우리의 일상 생활 공간을 사람과 문화가 주인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제정한 '대한민국 공간 문화 대상'에서 대상(大賞)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전시_
2015 창작문화공간 여인숙 레지던시 입주작가 결과보고 정초롱 - 4개의 섬 展

2015년 창작문화공간 여인숙 레지던시 입주 작가 결과보고전으로 8개월간 입주하여 작가 개인의 개성과 혹은 타 지역에서 변화하는 정체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이다.

전시기간 : 11. 21(수) - 11. 29(수)
관람시간 : 10:00 - 18:00 (월요일 휴관)

/ 부안

휘목미술관
Hwimok Museum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77-1
063-584-0006 | www.hmarttown.com

장방형의 전시실과 원형전시실로 구성된 지상 1층 약 150여평의 제1전시관에서는 연 3~4회의 한국 미술계 대표 원로작가 초대전과 테미 기획전을 감상할 수 있으며, 류경채, 박득순, 오승우, 박영선 화백 등의 수준 높은 작품 300여점을 상시 전시하고 있다. 신축 개관하게 될 제2전시관은 지상 3층 연면적 360여평의 넓은 공간으로 예술과 대중과의 거리감을 좁혀나가는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다. 실내의 전시공간에서 뿐만이 아니라 야외 2,000여평의 잔디밭에서 맑고 청량한 남도 공기를 느끼며 현대 조각가들의 작품들 역시 감상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제공한다.

/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
Samrye Culture Art Village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81-13 일원
070-8915-8121 | www.srartvil.kr



삼례지역은 호남 최대의 역참지이며, 조선시대 삼남대로와 통영대로가 만나는 거점으로서, 그 역사적 · 문화적 의미가 매우 크다. 2013년 6월 건립된 삼례 문화예술촌은 일제 강점기의 아픔과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조선시대 역참지 등 역사적 흔적을 간직한 삼례지역의 근대적 자산과 역사성을 새로운 감각으로 재구성하여 완주군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치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한 삼례문화예술촌은 <비주얼 미디어아트 미술관>과 <책공방북 아트센터>, <디자인 뮤지엄>, <김상림목공소>, <책박물관> 및 <문화카페> 등을 운영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는 젊음과 사색이 공존하는 열정적인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전시_
제2회 국제 뉴미디어 展

전시기간 : 2015. 11. 24(화) - 2016. 2. 28(일)
전시장소 : 삼례문화예술촌 VM아트미술관
관람시간 : 화 - 일 10:00 - 18:00 (월요일 휴관)
관람료 : 어른 2,000원, 청소년 1,000원, 유치원생 500원

오스갤러리
O's Gallery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409번지
063-244-7116 | www.osart.co.kr

수령이 50년을 넘는 벚나무가 매년 4월이면 2km의 꽃 터널을 선사해주는 곳으로 유명한 완주군 소양면은 역사와 현대의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곳이다. 비구니 사찰로 유명한 위봉사(威鳳寺), 국가에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땀을 흘리는 불상(미타여래좌상)이 있는 송광사(松廣寺) 등 역사적·종교적 의미가 깊은 고찰(古刹)이 있는 곳인 동시에 묵묵히 자기만의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이 지금도 활동하는 곳이기도 하다. 회화, 조각, 음악, 건축, 디자인이 조화를 이룬 완주군 소양면의 오스갤러리는 2002년 개관이래로 작은 규모지만 전국적으로도 이미 널리 알려진 이곳 오스갤러리에서는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상을 수상했던 전수천을 비롯하여 조영남, 이철량, 고영훈, 김창열, 윤석남, 사석원, 전혁림, 김태호, 임옥상, 조성묵, 유휴열 등 우리나라 현대미술사에 한 획을 그은 작가들의 개인전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전북도립미술관
Jeonbuk Museum of Art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111-6
063-290-6888 | www.jma.go.kr



2004년 10월 개관한 전북도립미술관은 다양한 미술전시회 개최와 미술작품의 수집과 보존 및 문화예술 교육, 국내작가발굴, 국제교류 등을 통해 전라북도의 미술문화 창달을 위해 건립된 공공미술관이다. 연평균 10여 회의 기획전시를 개최하며, 한국화 · 서예작품 등 전통성에 바탕을 둔 근대미술품과 그 전통을 전승한 회화 · 드로잉 · 판화 · 사진 · 공예품을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다. 전북도립미술관에서는 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 1년에 2차례, 2달 또는 3달 과정으로 국내 · 외 미술계 동향과 작가소개, 작품의 기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술이론 강좌와 실기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아틀리에도 진행하고 있다. 강당과 야외무대에서는 공연과 퍼포먼스 등 다양한 복합문화프로그램을 개최할 수 있다.

전시_
아시아현대미술전 2015

전시기간 : 9. 11(금) - 12. 13(일)
관람시간 : 화 - 일 10:00 - 18:00 (월요일 휴관)
전시장소 : 전북도립미술관 1-5전시실
참여작가 : 이우환, 창신, 우까오중, 김남오, 천칭야오, 야오루이중, 추더이, 수보드 굽타, 조춘파이, 바산 시티켓, 판천후, 페리얼아피프, 오쿠보에이지 등 14개국 35명
관람료 : 무료

/ 전주

교동아트미술관 ●

Gyodong Art Museum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기전길89 (풍남동3가)
063-287-1244~5 | www.gdart.co.kr



1970년대 잘살기 운동이 펼쳐지고 1차 산업인 제조업이 국가의 핵심사업이었던 그 시절의 전주. 경제활동의 인구 가운데 여성들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속옷생산 공장이 처음 들어섰던 곳이 바로 전주 한옥마을로 유명한 교통아트미술관 터이다. 2007년 4월 '소통'이라는 모토로 교동(橋動)이란 문패를 걸게 된 교동아트미술관은 작가와 대중의 소통의 장이자 작가들에겐 참신한 작품들이 끊임없이 창조되는 공간, 일반인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불어 넣어주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동아트미술관은 갤러리 외에 <교동아트 스튜디오>, <다목적 홀> 등을 마련하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사업이나, 세미나, 포럼 개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치고 있다.

전시_
산수풍경 展

최근 전체적인 한국화단에 있어서 그 맥을 이어왔던 동양화로서의 풍경 산수화는 새로운 젊은 작가군 들에 의해 새롭게 재해석되면서 지필묵등의 전통적인 재료 탈피, 과감한 경영위치, 오브제 사용 등으로 현대적 변용으로서의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다. 이 전시는 전북지역과 중앙화단 등 타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새로운 산수풍경의 신 모델을 구축, 제시하는 작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풍경. 산수화를 대하는 새로운 관점에 대한 개념정리를 시도한다.

전시기간 : 11. 24(화) - 12. 6(일)
관람시간 : 10:00 - 18:00 (월요일 휴관)
관람료 : 무료

특별행사_
교동아트 오픈아뜰리에

전시연계 강연 : 산수풍경 展 이철규(예원예대교수)

프로그램일시 : 11. 25(수)
참가비 : 무료

서신갤러리

Seoshin Gallery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38 새터빌딩 B1
063-255-1653 | seoshingallery.com



1997년에 개관한 서신갤러리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상업화랑 중 하나로서, 전라북도에서 전담 큐레이터를 도입한 첫 화랑이기도 하다. 신진작가 발굴에 주력한 초창기 작업에 이어 역량 있는 작가 초대전 등을 치러내며 지역미술 환경을 점검하고 방향을 모색해가는 공간으로 이미 자리를 구축하고 있다. 다양한 자체 기획전시와 함께 <화랑미술제>, <KIAF>, <퀼른 아트페어> 등 대규모 국제미술전에 참가함으로써 동시대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다양한 형식과 장르의 작가들을 국내 · 외에 알리고 있으며, 미술가와 애호가들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지역미술 발전에 힘쓰고 있다.

전시_
황나영 개인전

전시기간 : 11. 24(화) - 11. 30(월)
관람시간 : 월 - 토 10:00 - 18:00 (일요일 휴관)
관람료 : 무료

우진문화공간

Woojin Culture Foundation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062-3
063-272-7223 | woojin.or.kr



전주 천변 길을 따라 걷다보면 만나게 되는 우진문화공간. 거친 노출콘크리트 외벽을 타고 올라가는 담쟁이의 싱그러움이 인상적인 이 건물은 전문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돕는 문화공간이다. 1991년 개관한 우진문화공간은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메세나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65평의 갤러리와 200석 규모의 예술극장 및 연습실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재도 독립 문화법인으로 다양한 예술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우진문화공간은 기존의 신진작가 발굴 프로그램과 함께 1998년부터 우진미술 클럽을 통해 강좌, 미술관 탐방 등을 지속하고 있다. 13년간의 전주 서노송동 시대를 마감하고 2004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새 둥지를 튼 우진문화공간은 우진문화재단 문화사업의 근거지이자 전라북도 전문 예술인들의 창작의 요람이 되고 있다.

전시_
'지현' 개인전 : Epidermis of reality#1
오만과 편견과 좀비 展

지현은 소비시대의 이미지들 속에서 필요한 것을 차용하여 작가 개인이 현실에서 느끼는 실존의 문제나 사회적 문제를 투영하고 이미지를 재편집 구체화하는 작업을 한다. 그동안의 작업 성과물들을 본 개인전에서 발표함으로서 신진작가로서 발돋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전시기간 : 11. 19(목) - 12. 2(수)
관람시간 : 10:00 - 22:00 (월요일 휴관)

서학동사진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16-17
063-905-2366 | blog.naver.com/jungmiso7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계남마을 입구에 있는 오래된 정미소가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것은 2006년 봄이었다. 개관을 기념한 첫 전시는 <계남마을 사람들>. 마을 주민들의 개인사를 담은 100여장의 빛바랜 사진이 주인공이었다. 낡은 정미소 건물 이마에 〈공동체 박물관 계남정미소〉란 이름을 달고 등장한 이 공간은 금세 화제가 됐다. 계남정미소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숱하게 이름을 올렸다. 일년에 많게는 네 번, 적게는 두 번 기획된 전시회는 마을공동체의 소중한 가치와 그 의미를 기억하게 하는, 그 자체로 또한 소중한 통로가 되었다. 그런 <계남정미소>가 2012년 9월10일 잠정적 휴관에 들어갔고 2013년 봄날, <계남정미소>의 김지연 대표는 전주 한옥마을 인근 동서학동에 <서학동 사진관>을 열고 새로운 문화활동을 엮어가고 있다. <서학동 사진관>은 역시 좁고 오래된 한옥을 고쳐 만든, 지역에서는 유일무이한 사진 전문 갤러리다. 개관한지 3년째 다양한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전시_
이상조 개인전

전시기간 : 10. 31(토) - 12. 3(목)
관람시간 : 11:00 - 18:00 (월, 화요일 휴관)

/ 익산

익산 W미술관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504
063-835-3033



익산W미술관은 2008년 <W갤러리>로 처음 문을 열고 2012년 12월 전라북도로부터 작은 미술관으로 선정되어 정식으로 미술관 등록조건을 갖추고 등록을 마친 후 120평 규모로 차와 식사를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국가에서 인정하는 익산 유일의 사립미술관으로 전시기획의 다양성을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2013년 1월부터 <익산W미술관>으로 운영되고 있고 2015년 올해에는 지난 3월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 <그림 읽어주는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W미술관은 영화 상영과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익산 문화재단 레지던시 <익산 창작스튜디오>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1길 28-4
063-843-4855 | www.iccresidency.or.kr



201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익산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올해로 5년차에 접어들었다. 초기 익산예총에서 추진되었던 사업이 익산예총의 요청으로 2012년부터 익산문화재단으로 이관되었고 현재까지 익산문화 재단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 초기에서부터도 익산문화재단은 <익산 창작공간 레지던시>지원의 목적을 '예술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술인 중심의 지원'에 둘 것인지, 아니면 '예술 창작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고 향유하는 일반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충족을 중요시하는 지원'에 둘 것인지 고민하면서 2015년 현재 12명의 국내 · 외 작가들이 레지던시 공간에 머물면서 창작 발표회 프로그램, 해외 기관 교류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지역연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익산문화재단 레지던시 <익산 창작 스튜디오>는 현재 익산시 중앙동에 조성 중인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와 연계하여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들 역시 진행하고 있다.

전시_
고도에서 展 - 익산창작스튜디오 5주년 기념전 (1-5기 입주작가전)

전시기간 : 11. 20(금) - 11. 27(금)
전시장소 :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

전시_
동서고금 展 - 익산창작스튜디오+부산 복합문화공간 예술지구_P 교류전

전시기간 : 11. 25(수) - 12. 7(월)
전시장소 : 부산 예술지구_P

익산 예술의전당 미술관
Iksan Arts Center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490
1577-0072 | arts.iksan.go.kr



2015년 4월에 새롭게 개관한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은 지상 1층(상설전시실), 지상 2층(기획전시실)로 꾸며져 있다. 가변적인 공간 구획이 가능하도록 무빙 월 시스템(Moving Wall System)으로 설계되어 있어 회화, 조각, 설치 미술은 물론 백색 벽체를 통해 미디어(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미술 작품을 전시 할 수 있다. 특색 있는 기획전시를 통해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전시문화를 구축하고 작가와 향유자를 잇는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작품과 전시를 통해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 융성과 문화예술 발전을 이끄는 구심체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전시_
2015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전 - 엄마의 삶 展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과 익산예술의전당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엄마의 삶>은 사회적 의미의 어머니에서 벗어나 한 인간이자 여성으로서 어머니를 바라보고자하는 전시로 '엄마의 일상', '여성성', '사유의 장'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전시기간 : 10. 21(수) - 11. 25(수)
관람시간 : 10:00 - 18:00 (월요일 휴관)
관람료 : 무료

교육 프로그램_
큐레이터와의 대화

큐레이터의 해설을 들으며 작품을 감상한 뒤 전시장 작품 드로잉 수업에 참여하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미술 수업 참여 및 진로(큐레이터)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일시 : 10. 27(화) - 11. 25(수)
참가비 : 무료

전국 미술 지형도

광주 | 전남

광주, 예향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시작하다

윤 준(광주 신세계갤러리 수석 큐레이터)

예향으로 불리는 광주 전남의 남도지역은 남화의 대가 의재허백련과 남농 허건, 한국적인 인상주의 화풍을 정착시킨 오지호, 추상미술의 선구자인 김환기 선생 등을 배출하는 등 한국 근현대미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고장이다.

이러한 전통 속에서 1992년 지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광주시립미술관'을 개관했고, 1995년 국내 최초로 시작된 '광주비엔날레'와 2005년 시작된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해 전통과 최첨단의 현대미술이 어우러진 미술의 도시로 성장해왔다. 그리고 2015년 11월25일 개관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가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도약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의 미술공간은 편의상 크게 다섯개 권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 '양림동 근대문화거리 일대', '중외공원 일대', '무등산 증심사 일대', '고속터미널 일대' 등이다. 아시아문화전당 부근에는 대인예술시장 속에 작가 스튜디오, 대안공간과 레지던스 등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동명동을 중심으로 카페와 문화 공간 등이 형성되면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광주의 근대문화가 오롯이 살아있는 양림동에는 특색있는 미술관과 갤러리, 레지던스가 동네의 운치를 더해주고, 중외공원 일대에는 광주시립미술관, 비엔날레관, 국립광주박물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등이 집중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광주를 상징하는 무등산 증심사 인근에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의재미술관, 무등현대미술관, 우제길미술관이 운영 중이며, 광주 교통의 중심지인 고속터미널 인근에는 유스퀘어문화관, 광주신세계 갤러리,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무각사로터스 갤러리 등이 지역미술문화를 살찌우고 있다.

전남의 곳곳에 다양한 미술문화공간이 운영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담양 일대의 공간만을 소개한다. 대나무와 메타세콰이어 나무로 유명한 담양에는 최근 죽녹원 내의 이이남 아트센터, 옛 양곡창고를 개조한 담빛 예술창고가 새로 문을 열었고, 관방천 인근의 대담 미술관이 전시와 레지던스, 카페를 겸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광주 전남 곳곳에 다양한 미술문화 공간이 운영되면서 광주미술을 이끌어왔지만, 지난 10여년에 걸친 대역사 끝에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의 미술문화에 직간접적으로 자양분을 제공할 것이며 이를 통해 광주와 전남의 미술문화도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

23 월	전시 <이인성 개인전>	광주롯데갤러리	11. 12 - 12. 1
	전시 <오용석 개인전>	광주신세계갤러리	11. 12 - 11. 30
24 화	전시 <전통회화 최후의 거장, 의재 허백련>	국립광주박물관	11. 24 - 2. 21
	전시 <3기 계림창작촌 입주작가 결과보고>	은암미술관	11. 24 - 11. 30
25 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식 개관		
	특별행사 <인문학강연>	우제길미술관	11. 25, 15:00
	특별행사 <그레이스 앙상블 >		11. 27, 17:00
	특별행사 <문학과 전시의 만남>	소소미술관	19:00
	전시 <Emerging Artist>		11. 24 - 12. 8
	교육 <지역청소년과 함께하는 '미술에 말걸기'>	조선대학교미술관	11. 25 - 11. 26
	전시 <조선대 서양화학부 졸업작품전>		11. 23 - 11. 27
26 목	전시 <자연과 인간, 인간과 자연>	무등현대미술관	10. 7 - 12. 6
	교육 <점으로 표현하는 산수>	우종미술관	11. 26
	전시 <격정과 표현 : 뜨거운 추상>		6. 12 - 11. 30 미술주간 관람료 50%할인
	전시 <산수화, 상상과 정감을 담다>		
27 금	전시 <오원영 개인전>	스페이스K	11. 5 - 12. 23
	전시 <가을옷 "단풍그림전">	장전미술관	11. 1 - 12. 31
	교육 <점토로 "진돗개만들기">		
28 토	교육 <섬마을 소년소녀 예술가>	행촌미술관	11. 28
	전시 <인연>		11. 20 - 12. 31
	교육 <두런두런 이야기 노누기>	조선대학교미술관	11. 28
	전시 <재래시장속 세시풍속>	창작스튜디오 다다	11. 12 - 11. 30
29 일	전시 <변민석 개인전 - 새로고침>	대안공간 D.A. 오라	11. 20 - 11. 29
	전시 <도시에 서식하다>	광주시립미술관	11. 6 - 12. 3
	전시 <강철수-미완의 꿈>		9. 1 - 1.24

/ 광주

광주롯데갤러리
Lotte Gallery, Gwangju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68 롯데백화점 광주점 11층-
062-221-1808 | blog.naver.com/glotteart



광주롯데백화점 11층에 위치한 롯데갤러리는 다양한 기획전과 젊은 작가를 발굴 지원하는 '롯데창작지원전'을 개최하여 지역미술문화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전시_
이인성 개인전-'공(空)' 展

전시기간 : 11. 12(목) - 12. 1(화)
관람시간 : 월 - 목 10:30 - 20:00
금 - 일 10:30 - 20:30 (백화점 휴점 시 휴관)

광주시립미술관 ●
Gwangju Museum of Art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52
062-613-7100 | www.artmuse.gwangju.go.kr



전시_
도시에 서식하다-BankART1929의 Activity展

일본 요코하마(橫浜)의 복합문화공간인 'BankART 1929'가 그 동안 요코하마 창의도시의 상징이 된 이유와 활동사항을 5개의 장면으로 나눠 보여준다.

전시기간 : 11. 6(금) - 12. 3(목)

전시_
하정웅 컬렉션 <강철수-미완의 꿈>展

광주시립미술관과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이 공동으로 강철수 작가의 예술 세계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씨의 유족들이 지난해 9월 고인이 남기고 간 작품 900여 점을 양 미술관 하정웅컬렉션에 기증한 것이 계기가 됐으며, 작가로 처음 입문했던 1991년부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몰두했던 미완성 작품을 모두 선보인다.

전시기간 : 2015. 9. 1(화) - 2016. 1. 24(일)
관람시간 : 10:00 - 18:00 (월요일 휴관)
관람료 : 어른 500원, 청소년/군인 300원, 어린이 200원

광주신세계갤러리
Shinsegae Gallery, Gwangju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32 광주신세계 1층
062-360-1271



고속터미널 옆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에 위치한 광주신세계갤러리는 1995년 개관 이후 다양하고 특색 있는 테마기획전, 해외유명작가전, 지역원로 및 중견 작가전을 꾸준히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 전남의 유망한 젊은 작가를 발굴 지원하기 위한 공모전인 '광주신세계미술제'를 17회 개최하였다.

전시_
제16회 광주신세계미술제 수상작가 초대전 - 오용석 개인전

전시기간 : 11. 12(목) - 11. 30(월)
관람시간 : 월 - 목 10:30 - 20:00, 금 - 일 10:30 - 20:30
관람료 : 무료

국립광주박물관
Gwangju National Museum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
062-570-7000 | gwangju.museum.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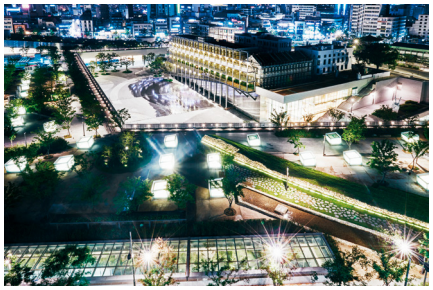
전시_
<전통회화 최후의 거장, 의재 허백련>展

네 가지 테마로 나눈 이번 전시는 허백련의 삶과 예술, 스승과 제자의 인연 등을 폭넓게 조명해봄으로써 의재 허백련의 전통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전통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에 대해 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기대된다.

전시기간 : 2015. 11. 24(화) - 2016. 2. 21(일)
관람시간 : 화 - 금 9:00 - 18:00, 토 - 일 9:00 - 19:00,
매월 마지막 수요일 9:00 - 21:00
관람료 : 무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sia Culture Center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1899~5566 | www.acc.go.kr



© 오중석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민주평화교류원,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등 5개의 큰 시설로 이루어져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문화교류와 아시아의 문화자원 수집 및 연구를 담당한다. 또한 새롭게 창·제작한 문화콘텐츠를 전시·공연 등으로 선보이는 한편, 완성된 문화 상품을 아시아와 세계로 유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복합문화시설이다. 공식 개관은 2015년 11월 25일이다.

전시_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개관전시

복합 1관 ACT페스티벌, "Tektonics"
복합 2관 상상 想像원 圓, 아시아 : Plastic Myths
복합 3관 새로운 유라시아 프로젝트
복합 4관 신화와 근대, 비껴서다.

대안공간 D.A. 오라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313-4
www.facebook.com/daaura2015



대인시장 내에 위치한 'D.A.오라'는 '지구발전 오라' (Development Area Aura)의 약칭으로, 3층 건물 중 2층과 3층을 임대해 2층에는 갤러리와 작업실이, 3층에는 게스트하우스와 사무실, 작업실, 공동식당이 각각 자리 잡았다. 각 층별로 약 80평 공간으로 박용규, 박화연, 변민석, 정유승, 정호정 등 5명의 작가가 입주해 활동에 들어갔다.

전시_
변민석 개인전 - 새로고침 展

전시기간 : 11. 20(금) - 11. 29(일)

무등현대미술관 ●◆
Mudeung Museum of Contemporary Art

광주광역시 동구 증심사길9
062-223-6677 | www.mdmoca.com

무등현대미술관은 서양화가인 정송규 관장이 2007년 10월에 설립한 미술관으로 증심사와 무등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의 주요 길목인 의재로에 위치해 있다. 지역문화와의 소통과 커뮤니티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미술관의 고유특성을 지향하기 위해 문화예술 자원을 발굴하며 지역미술의 재조명을 통해 나름의 자부심과 예술의 향기를 함께 품어내고자 고민하고 있다.

전시_
2015 환경미술제 - 자연과 인간, 인간과 자연 展

전시기간 : 10. 7(수) - 12. 6(일)
관람시간 : 10:00 - 17:30 (월요일 휴관)
관람료 : 무료

스페이스K
Space K_Gwangju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72 2층
062-370-5948 | www.spacek.co.kr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BMW 매장 2층에 위치한 스페이스K는 2011년에 설립된 코오롱의 문화예술 나눔 공간이다. 깊이 있는 문화예술 지원과 지역민을 위한 문화예술 나눔을 목표로 과천, 서울, 대구, 광주 등 네 곳에 독립된 전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출신의 유망작가 개인전을 비롯, 서울지역에서 주목 받고 있는 작가들이 개인전, 다양한 기획전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시_
오원영 개인전 - 박제된 환영 展

전시기간 : 11. 5(목) - 12. 23(수)
관람시간 : 10:00 - 18:00 (주말 휴관)

아트스페이스 미테 우그로
Artspace Mite-Ugro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184번길 7-6
www.mite-ugro.org

아트스페이스 미테 우그로가 대인시장에 자리를 틀기 시작한 것은 2009년이다. 대인시장 골목에 있는 지하 공간이 단어 그대로 미테(밑에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로 불리우는 전시장이다. 그리고 2014년에 오픈한 스페이스 우그로(위쪽으로의 사투리)는 건너편 1층으로 사무실 겸 커뮤니티 공간이다.

우제길미술관 ●◆
Woo Jaeghil Art Museum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140-6
062-224-6601 | www.wooart.co.kr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우제길미술관은 광주의 대표적인 서양화가 중의 한 분인 우제길 작가의 삶과 작업과정, 다양하고 풍부한 소장 자료, 작품 세계 등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사립미술관이다. 2001년 4월 미술관을 개관하였으며, 2014년 승효상 건축가의 설계로 증축하여 보다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변화들을 선보이려 한다. 증축 후 우제길미술관은 전시실, 교육실, 아틀리에, 사무실, 야외 소공연장, 아트샵, 카페테리아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

특별행사_
인문학 강연 <피카소처럼 생각하기>

행사일시 : 11. 25(수) 15:00

특별행사_
그레이스 앙상블 <세미클래식과 함께하는 가을의 향연>

행사일시 : 11. 27(금) 17:00

은암미술관 ●◆
Eunam Museum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5번길 8-12
062-231-5299 | www.eunam.org



지난 2010년 6월 광주광역시 동구 대의동에 개관한 은암미술관은 보성건설 설립자인 이기승 회장이 광주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개관한 사립미술관이다. 전시는 기획전과 초대전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신진작가 발굴과 함께 중견작가나 작고한 작가들의 좋은 작품을 재조명하고 있다.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에 위치해 있어 미술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다. 레시던스 사업인 "예술골목 계림창작촌"을 통해 지역의 유망작가들이 지역주민들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전시_
3기 계림창작촌 입주작가 결과보고 展

전시기간 : 11. 24(화) - 11. 30(월)
관람시간 : 10:00 - 18:00 (일요일 휴관)
관람료 : 무료

조선대학교미술관 ●◆
Chosun University Museum of Art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미술대학 3층 미술관
062-230-7832 | www.cumoa.org



전시_
서양화학부 졸업작품전시 展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학부 학생들의 졸업작품이 전시된다. 다양하고 참신한 학생들의 발표작품을 통해 미래 서양화가들의 활약을 기대해볼 수 있다.

전시기간 : 11. 23(월) - 11. 27(금)
관람시간 : 평일 10:00 - 17:00 (토, 일, 공휴일 휴관)
관람료 : 무료

교육 프로그램_
지역청소년과 함께하는 '미술에 말 걸기'

찾아가는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으로 미술에 관심 있는 중학생들이 모여 있는 신청학교로 찾아가서 이루어지는 수업. 아트콜라보레이션을 배우고, 직접 나만의 작품이 담긴 텀블러를 제작해보는 교육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일시 : 11. 25(수), 11. 26(목) (2일)
참가대상 : 광주전남지역 청소년
참가비 :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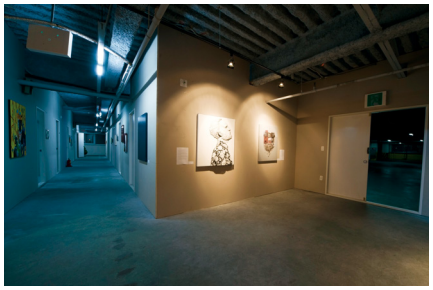
교육 프로그램_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두런두런 이야기 노누기'

매주토요일마다 운영되는 교육프로그램. 총 10회 차 전시연계 예술체험프로그램으로, 해당 일에는 연극과 문학, 미술이 합쳐진 융복합교육프로그램이 운영.

프로그램일시 : 11. 28(토)
대상 : 광주전남지역 초, 중학생
참가비 : 무료

창작스튜디오 다다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48-1
062-233-1420 | blog.naver.com/dada062



대인예술시장 작가 모임인 '다다협동조합'이 대인수산시장 주차빌딩의 5층을 임대하여 작가 스튜디오와 세탁실, 공동 주방 등을 조성하여 대인예술시장 내의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매년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여작가 공모를 통해 작가들을 입주시키고 있다. 오픈스튜디오, 워크샵, 타지역 레지던스와의 교류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장 내의 걸게 그림과 레지던스 공간 내 갤러리에서 열리는 세시봉 전시, 시장 속 한평갤러리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전시_
재래시장 속 세시풍속 展

전시기간 : 11. 12(목) - 11. 30(월)
관람시간 : 월 - 금 10:00 - 18:00
11. 27(금) - 28(토) 이틀간 22:00까지

한희원 미술관

광주광역시 남구 양촌길 27-6
062-653-5435 | www.hanheewon.com



광주 남구 양림동에 위치한 한희원 미술관은 서양화가 한희원씨가 50여년 된 한옥을 고쳐 미술관을 열어 양림동과 관련된 그림을 전시하고 있다. 미술관은 전시실과 작은 사무실, 무인 카페 등으로 구성됐다. 세월의 흐름 속에 담긴 자연스러움을 살리기 위해 주춧돌이나 지붕 등 한옥의 골조는 그대로 보존해 살렸다. 대문과 전시장 내 테이블도 철거 현장에서 버리는 낡은 철제 구조물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현재 양림동의 과거와 현재를 그린 한희원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호랑가시나무 창작소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230-1
062-654-0976 | www.horanggasy.kr



'호랑가시나무 창작소'는 우월순 선교사 사택 아래에 위치한 두 채의 선교사 사택 중 원요한 사택을 리모델링한 것이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다원형 레지던스 공간으로, 현재 한지 조형을 하는 천영록, 서양화가 서법현, 한국화가 이선미, 뮤지컬 감독 윤태식, 패션그룹 MOCITA가 입주해 있다. 나머지 사택 중 한 곳은 '호랑나무언덕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고 있다. 창작소의 명칭은 인근에 수령 400년이 넘은 광주시기념물 17호 호랑가시나무와 작은 호랑가시 나무들의 군락이 형성돼 있는 데서 연유한다.

담빛예술창고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9
061-381-6444



담빛예술창고는 담양군과 (재)담양군문화재단이 옛 양곡창고인 담양 남송창고를 리노베이션한 후 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최근에 오픈한 문화공간이다. 죽록원에서 메타세콰이어 길로 가는 중간, 관방제 인근에 위치한 담빛예술창고는 담양의 다양한 관광 자원속에서 현대미술의 새로운 볼거리와 제공과 관람객과 함께하는 창의적 문화예술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담빛예술창고는 100여평의 전시장과 문화가 함께하는 카페로 구성됐으며, 카페에는 국내 최초로 대나무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돼 전문연주자가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전시장은 옛 양곡창고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최대한 인위적인 개보수를 자제하여 시원하게 높은 천장과 켜켜이 쌓인 벽돌의 색감이 시간의 흔적을 드러내고 있다.

대담미술관 ●◆
Daedam Museum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언골길 5-4
061-381-0081 | www.daedam.kr



'대담미술관'은 연간 400만명이 찾는 명소 죽녹원과 관어공원 사이에 자리하고 앞으로는 맑은 관방천이 흐른다. 영산강 최상류인 관방천은 천연기념물 제 366호 관방제림과 밀집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대담미술관은 '함께 느껴요 Eco Life'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바탕으로 일상 생활 속에서 문호를 즐기는 복합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카페와 미술관이 함께 위치해 자연스럽게 휴식과 전시관람이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6년째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국제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전시_
2015 레지던스 프로그램 입주작가 결과 발표전

전시기간 : 11. 16(수) - 12. 31(목)
관람시간 : 9:30 - 24:00
관람료 : 무료

특별행사_
악樂! 악Rock! 소리나게놀아보자

행사기간 : 11. 25(수) 19:00
참가비 : 사전예매 10,000 / 현장 구매 15,000

이이남 아트센터
Lotte Gallery, Gwangju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34
061-380-2500 | www.damyangbamboo2015.kr



2003년 5월에 문을 연 죽녹원은 약31만의 울창한 대나무숲에 2.4km의 산책로와 정자, 찻집 등이 어우러져 조성된 공원이다. 이곳에 한국을 대표하는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담양이 고향인 이이남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는 이이남 아트센터가 문을 열었다.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개막일에 맞춰 개관한 이이남 아트센터는 '죽녹원 속 미술관'이라는 콘셉트를 기본으로 만들어진 디지털미술관이다. 1, 2층 500 규모인 이이남 아트센터에는 김홍도, 강세황, 이정 같은 조선시대 화가의 대나무 그림을 움직이는 디지털아트로 재해석한 <신(新)묵죽도>를 비롯해 이이남 작가의 대표작이 전신된다. 이이남 아트센터는 특히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계기로 죽녹원을 방문한 외국인과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 보성

우종미술관 ●
Ujong Museum of Art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조성3길 338
061-804-1091~2 | www.ujongart.com

전시_
격정과 표현 : 뜨거운 추상 展

한국 추상화단을 이끌어왔던 김환기, 남관, 이응노, 하인두, 이대원 등 작고 작가와 박서보, 한묵, 이우환, 오수환, 곽훈 등 원로 작가 10명의 대표작들로 구성되어 한국 현대미술의 현주소를 파악한다.

전시기간 : 6. 12(금) - 11. 30(월)
전시장소 : 우종미술관 제 1전시실

전시_
산수화, 상상과 정감을 담다 展



현실적 공간과 시간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자유롭게 노니는 상상의 세계, 이상향의 세계를 담은 소치 허련, 의재 허백련 등의 작가의 관념 산수화 16점으로 구성된다.

전시기간 : 6. 12(금) - 11. 30(월)
전시장소 : 우종미술관 제 2전시실

전시_
상설 展

보물875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을 비롯한 다수의 도자기, 나전칠기에 대한 상설 전시이다.

전시기간 : 상설전
전시장소 : 우종미술관 제3전시실
관람시간 : 10:00 - 17:30 (매주 월, 화요일 휴관)
관람료 : 성인 2,000원, 군인/청소년/취학아동 1,000원
미취학아동/65세 이상 무료

※ 미술주간 2015. 11. 23(월)-11. 29(일) 7일간 50% 할인

교육 프로그램_
점으로 표현하는 산수

추상회화, 산수화 전시작품을 설명과 함께 감상 한 뒤 추상화의 점묘법과 동양화의 미법산수를 익히고, 가을 산의 모습을 점묘법과 미법산수 기법을 통해 개성있는 가을 산을 표현하여, 나만의 가방을 만든다.

프로그램일시 : 11. 26(목)
참가대상 : 유치원(5~7세) 어린이
참가비 : 1인 5,000원

/ 진도

장전미술관 ●◆

전남 진도군 임회면 하미길39
061-543-0777

전시_
가을 옷 "단풍 그림 전"/ 소장품 특별전 展

풍년의 물결로 가득 찬 산과 들의 단풍을 담아내는 작품과 미술관이 소장한 가을풍경 그림전으로 정겨운 시골 풍경과 함께 마음의 힐링을 전한다.

전시기간 : 11. 1(일) - 12. 31(목)
관람시간 : 화 - 일 10:00 - 17:00 (월요일 휴관)
관람료 : 성인 2,000원, 학생 1,000원

교육 프로그램_
진도 지킴이 점토로 "진돗개 만들기"

미술관에서 키우는 진돗개를 모델로 진돗개의 생김새와 특징을 알아보고 점토로 만들어 보는 체험은 즐거움과 소중한 추억을 담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다.

* 만들어진 작품은 건조 후 가마에 소성하여 체험자에게 전달합니다.

프로그램 일시 : 11. 1(일) - 11. 30(월) 11:00 - 15:00
참가대상 : 학생, 성인
참가비 : 무료

/ 화순

소소미술관 ●

Soso Museum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지강로 467-1
062-375-1995 | soartmuse.blog.me

전시_
2015 전남문화예술재단 청년작가 육성사업
소소미술관 5人작가 초대전시 - Emerging Artist 展



전남문화재단에서는 청년예술가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예술가들에게 창작활동비를 지원해주며 워크숍,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예술가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참여 작가로는 송환규(영상미디어)·김엽(서양화)·김수지(전통공예) · 장윤경(전통예술) · 이아름(웹툰) 5명의 작가들이며, 결과보고전은 소소미술관에서 11월 24일부터 진행된다.

전시기간 : 11. 24(화) - 12. 8(화)
관람시간 : 10:00 - 21:00 (월요일 휴관)
참여작가 : 송환규, 김엽, 김수지, 장윤경, 이아름
관람료 : 무료

특별행사_
문학과 전시의 만남

소소미술관에서는 저녁 7:00시부터 화순주민들과 함께 시낭송 및 국악공연이 진행된다.

일시 : 11. 25(수) 19:00
참가비 : 무료

/ 해남

행촌미술관

HangChon Art Museum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5
061-530-0114

전시_
<인연> 행촌의 친구_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행촌미술관 설립자의 선대 (고)행촌 김제현 박사가 생전 교우하고 수집한 남도인근 예술가 소장작품, 행촌미술관 이마도레지던시 2015 입주작가 작품 전시

전시기간 : 11. 20(금) - 12. 31(목)
관람시간 : 월 - 금 9:00 - 17:00, 토 9:00 - 13:00, (일요일 휴관)
관람료 : 무료

교육 프로그램_
섬마을 소년소녀 예술가(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일시 : 11. 28(토)
참가대상 : 지역 주민
참가비 : 무료

전국 미술 지형도 강원

동화세상 같은 강원도 미술관 여행

최영재(강원일보 문화부 차장)

강원도내 18개 시·군에는 문화예술회관이 여전히 미술 전시의 중심이 되고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치러야 할 시점에 전용미술관, 도립 미술관이 아직까지 구축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자연과 사람, 예술이 공존하는 종합 예술공간이 곳곳에 들어섰고 박물관, 미술관, 복합 문화공간, 문화예술대안공간, 카페갤러리 등이 늘어났다.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은 크고작은 다양한 전시회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도문화재단과 시·군 문화재단 지원 확대에 따른 다양한전시, 2015 평창비엔날레의 '포스트 박수근'전과 'DMZ별곡'전의 시군 순회 개최로 도민들이 문화 예술과 마주칠 기회도 많았다. 주요 전시장을 살펴보면

강원도 유일의 국립 박물관인 국립춘천박물관에서는 상설전시와 기획전이 연중 이어지고 있다.

화악산 자락에 자리한 사립미술관 이상원미술관은 보름달 형상의 미술관에서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자연속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뮤지엄스테이가 있어 문화체험과 동시에 휴양도 즐길 수 있다. 춘천시 옥천동에는 춘천미술관과 아트프라자, 봄내극장이 밀집해 지역주민의 여가공간이 되고 있으며 인근의 갤러리4F는 도심속의 문화 오아시스를 표방하며 굵직한 기획전을 연중 열고 있다. 카페 '올훼의 땅' '봉의산 가는길' '빨' '예부룩'은 문화예술대안공간으로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춘천애니메이션박물관 갤러리툰과 김유정문학촌은 전시장이 관광지와 연계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원주에는 세계적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뮤지엄 산'이 있다. 곳곳에 자리 잡은 명품 조각과 설치 미술과 '빛과 공간의 마술사'로 불리는 세계적 미디어 아티스트 제임스 터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원주 박경리문학공원은 한국 문단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칭송받고 있는 박경리 선생의 대하소설 '토지'를 주제로 문학세계를 탐방할 수 있는 곳이다. 공원 내에 북카페를 조성, 박경리 관련 책자와 서적을 볼 수 있게 했다.

강릉 하슬라아트월드는 넓은 조각공원과 현대 미술 200여점이 전시된 '현대 미술관'과 유럽 각국에서 수집한 마리오네트와 피노키오 작품들이 전시된 '피노키오 & 마리오네트 미술관'이 특색있다. 양구군립 박수근 미술관은 작가의 예술관과 인생관을 기리는 동시에 지역 대표 문화 공간이 되고자 하는 의도로 건립된 미술관이다. 박수근 미술관에서는 '앉아있는 두남자'를 비롯한 유화 3점, '나무와 두 여인''탑돌이' 등의 판화와 수채화 '그림물감'과 수십점의 박수근 드로잉 작품을 접할 수 있다.

고성 DMZ박물관은 세계 최초·최대 규모의 DMZ 박물관으로 한국전쟁 당시의 모습과 냉전의 흔적, 60여 년간 원형 그대로 보존된 DMZ의 생태환경을 만날 수 있다. 태백 철암탄광역사촌은 70~80년대 건물은 그대로 두고 내부를 박물관으로 조성했다. 검은 석탄이 배경인 이곳 역시 강원도에서만 볼 수 있는 미술관 풍경이다.

23 월	전시 <양금선 초대전>	횡성 미술관자작나무숲	10. 29 - 11. 24
24 화	전시 <로병사 다시 생>	이상원미술관	9. 12 - 12. 6
25 수	전시 <원주대 미술학과 졸업작품전>	강릉시립미술관	11. 25 - 12. 2
26 목	전시 <제11회 춘천교육대 미술교육과 교수작품전>	갤러리4F	11. 20 - 11. 30
27 금	전시 <판화, 다시 피다>	뮤지엄 산	9. 18 - 2. 28
28 토	전시 <세븐사인즈>	박수근미술관	10. 24 - 12. 27
29 일	전시 <나눔의 시선>	일현미술관	10. 7 - 12. 6

/ 강릉

강릉시립미술관
Gangneung Museum of Art

강원 강릉시 임영로 219-7
033-640-4271 | gnmu.gn.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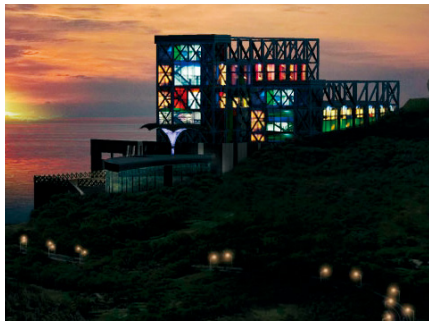
강릉시립미술관은 2006년 9월 강릉미술관으로 출발해 2013년 4월 강원도에서 유일한 시립미술관으로 재개관한 미술관이다. 미술전문인 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를 통해 미술을 보다 친숙하고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시와 연계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다양한 연령층으로 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시_
강릉 원주대학교 미술학과 졸업작품전

전시기간: 11. 25(수) - 12. 2(수)
관람시간 : 화 - 일 9:00 - 18:00 (월요일 휴관)
관람료 : 무료

하슬라아트월드 ●◆
Haslla Art World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율곡로 1441
033-644-9411 | www.hasllamuseum.com



자연과 사람,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야외 숲길의 조각공원은 하슬라 아트월드만의 독특한 콘셉트가 돋보이는 공간이다. 나뭇잎 사이로, 야생화 틈으로 자연인 듯 아닌 듯 작품들이 숨어있다. 장르를 초월해, 감각적인 전시를 여는 현대미술관과 상설 전시관인 피노키오 미술관, 마리오네트 미술관 등이 있다.

/ 속초

속초문화회관
Sokcho Culture Center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155
033-639-2080 | sokcho.gangwon.kr/hb/culturecenter

속초문화회관은 공연장과 전시실이 있다. 문화사랑방은 1992년 이후 향토전시관, 영화음악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28일부터 한국사진작가협회속초지부의 사진전시회가 열린다. 28일 설악윈드오케스트라 정기공연과 30일 국악관현악 정기공연이 열린다.

/ 양구

박수근미술관
Park Soo Keun Museum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65-15
033-480-2655 | www.parksookeun.or.kr



2002년 10월 25일 박수근 선생의 생가에 건립된 박수근미술관은 작가의 작품세계와 예술혼을 기리는 동시에 지역의 대표 문화공간이다. 박수근 선생의 손길이 담겨 있는 유품과 유화, 수채화, 드로잉, 판화, 삽화 등 여러 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를 선별하여 상설 전시 하고 있다. 또 박수근 선생과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근 현대 한국 화단의 주요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소장하고 이를 기획 전시하고 있다.

전시_
박수근미술관 개관 13주년 기획 특별전 - 세븐사인즈 展

전시기간 : 10. 24(토) - 12. 27(일)
전시장소 : 박수근미술관 제2전시실(현대미술관)
관람시간 : 10:30 - 18:00 (월요일 휴관)
참여작가 : 김종구, 원인종, 이광호, 이기영, 이종목, 잉킴, 조덕현
관람료 : 일반 1,000원, 청소년/군인 700원, 초등학생 500원, 7세이하/65세이상/장애인 무료

/ 양양

일현미술관 ●

Ilhyun Museum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선사유적로 359
033-670-8451 | www.ilhyunmuseum.or.kr



전시_
나눔의 시선 展

북한미술 소장품전 <나눔의 시선>은 일현미술관에서 수집한 리쾌대, 선우영 등 북한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되며, 풍경, 정물, 인물화 등 다양한 작품을 포함하고 있다. 다양한 북한의 예술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통해 익숙하지만 낯선 예술 표현방식 및 주제 등을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전시기간 : 10. 7(수) - 12. 6(일)
관람시간 : 10:00 - 17:00 (월요일 휴관)
관람료 : 성인 2,000원, 청소년 1,500원
65세 이상 7세 이하 무료

/ 원주

뮤지엄 산

Museum SAN

강원도 원주시 지정명 오크밸리 2길 260
033-730-9000 | www.museumsan.org



전시_
판화, 다시 피다 展

강원 원주 지정면 오크밸리 내 자리잡은 뮤지엄 산(SAN)에서는 다채로운 판화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 '판화, 다시 피다'가 열리고 있다. 국내외 작가 41명의 판화 작품 113점을 판화 한국 미술·1920~1930년대(시대) · 현대 미술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갈라 묶어 선보인다. 1920~1930년대 한국을 탐방한 서양인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와 폴 자쿨레가 다색 목판으로 그 시대 한국 고유 풍속과 풍경을 담아낸 작품들이 전시된다.

전시기간 : 2015. 9. 18(금) - 2016. 2. 28(일)
관람시간 : 10:30 - 18:00 (월요일 휴관)
관람료 : 뮤지엄권 - 대인 2만 8천원, 소인 1만 8천원
갤러리권 - 대인 1만 5천원, 소인 1만원

/ 인제

내설악 백공미술관 ●

강원도 인제군 북면 황태길 245
033-461-2780



인제군 황태마을에 있는 내설악 백공미술관은 설악산의 풍요로움과 내린천의 시원함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자연의 휴식과 예술의 향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자연의 휴양지 안에서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또다른 즐거움을 준다. 백공미술관 소장품은 한국근대 추상표현주의 대표 작품부터 한국화와 북한회화, 그리고 각종 조각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있다.

/ 정선

삼탄아트마인

Samtan Art Mine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함백산로 1445-44
033-591-3001 | www.samtanartmine.com



삼탄아트마인은 2001년 폐광된 삼척탄좌 시설을 창조적인 문화예술단지로 되살린 곳이다. 150개국에서 수집한 10만점이 넘는 예술품 및 선진적인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으로 예술문화 발전에 새 지평을 연 곳이기도 하다. 예술의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는 원시미술 박물관과 앞선 미술작품을 선보이는 현대 미술 갤러리가 동시에 열리는 삼탄아트마인은 기억해야 할 것과 새로운 창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독특한 전시장이다.

/ 춘천

KT&G 상상마당춘천
KT&G Sangsangmadang Chuncheon

강원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399번길 25
033-818-3200 | chuncheon.sangsangmadang.com



KT&G 상상마당 춘천은 젊은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아지트이자, 공연, 전시, 강의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각광 받고 있다. 공연장, 스튜디오, 갤러리, 강의실, 카페를 갖춘 '아트센터'와 객실, 연습실, 세미나실을 갖춘 '스테이'로 구성돼 있다.

갤러리4F
Gallery 4F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48번길 26-1
033-256-1515 | blog.naver.com/kkksein



2014년 4월 개관한 갤러리4F는 민간이 운영하는 갤러리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 갤러리이다. 전시 외에도 '춘천국제古음악제'정기연주회를 비롯한 여러가지 공연도 함께 열린다.

전시_
제11회 춘천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작품전

전시기간 : 11. 20(금) - 11. 30(월)

국립춘천박물관
Chuncheon National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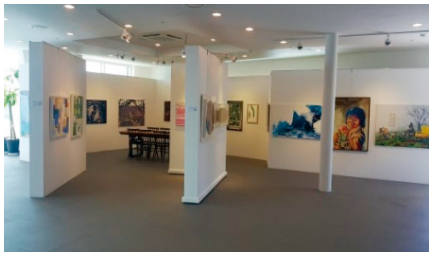
강원도 춘천시 우석로 70
033-260-1500 | chuncheon.museum.go.kr



2002년, 국립박물관이 없었던 마지막 도(道)라는 불명예를 보상받듯 멋진 건물을 열었다. 강원지역의 문화와 문화재를 전시하는 박물관은 상설전시관의 주제가 '선사시대의 강원, 고대의 강원, 고려의 강원, 조선 근현대의 강원'일 만큼 강원지역 중심의 문화재를 전시한다. 미술주간에는 '시전지에 담아낸 그리움'과 국악뮤지컬 '한오백년' 공연 등이 열리고 12월에는 '신라의 황금문화'전시가 개막한다.

애니메이션박물관 갤러리툰
Gallery Toon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854
033-245-6450 | blog.naver.com/gallery_toon



한국에서 유일한 애니메이션박물관인 춘천 애니메이션 박물관의 예술공간 갤러리툰은 21개의 창으로 조성돼 가을을 느끼기에 더없이 좋은 전망을 자랑한다. 애니메이션 박물관의 주요 전시물은 애니메이션의 역사에 관한 자료와 작품 등이다. 기획전시실과 아니마떼끄(영화상영관)가 따로 갖춰져 있다.

이상원미술관
Leesangwon Museum of Art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587
033-255-9001 | www.lswmuseum.com



전시_
老病死~生 로병사 다시 생 展

강원 춘천에서 지난해 가을 문을 연 이상원미술관에서는 극사실적 인물화에 인간과 삶을 진솔하게 녹여온 이상원(80)화백의 기획전 '로병사 - 다시 생'이 열리고 있다. 노년의 삶을 담은 인물화 연작 '동해인(東海人)' 등 대형 인물화 40여점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기간 : 9. 12(토) - 12. 6(일)
관람시간 : 10:00 - 18:00 (월요일 휴관)
관람료 : 성인 6,000 - 10,000원,
청소년/65세 이상 4,000원 - 7,000원
7세이하 무료

춘천 문화예술회관
Chuncheon Culture & Art Center

강원도 춘천시 효자상길5번길 13
033-259-5841 | www.cccf.or.kr



춘천문화예술회관은 26일 오후7시30분 춘천시립합창단의 교류음악회, 27일 춘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정기연주회가 열리는 등 클래식, 발레, 뮤지컬, 오페라 등 다양한 기획공연이 열리고 전시실에서는 강원미술대전, 강원아트페어 등 도내 굵직한 미술 행사가 주를 이루며 연간 170여 회의 전시가 열린다.

/ 횡성

횡성 미술관자작나무숲
Art Museum Jajaknamusoup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한우로두곡5길 186
033-342-6833 | www.jjsoup.com



논밭이 펼쳐진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를 지나다 보면 '미술관자작나무숲'이라는 작은 입간판이 보인다. 2004년 미술관으로 문을 열었으니 올해로 벌써 개관 10주년이다. 1991년 1만 2,000여 그루의 자작나무 묘목을 심기 시작해 지금의 자작나무숲에 이르렀다. '하얀나무 이야기' 양금선 초대전이 24일까지 열리고 원종호 관장의 사진 상설전이 진행 중이다. 스튜디오 갤러리에서는 역대 초대 작가의 작품과 미술관 소장품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 수십 점도 감상할 수 있다.

전시_
양금선 초대전_하얀나무 이야기 展

전시기간 : 10. 29(목) - 11. 24(화)
전시장소 : 미술관 자작나무숲 1전시장
관람시간 : 10:00 - 일몰시 (수요일 휴관)
관람료 : 성인 20,000원, 3 - 18세 10,000원

전국 미술 지형도

대 | 경
구 | 북

미술주간을 빌어 둘러 본 대구의 전시풍경

남인숙(미술평론가, 미학박사)

대구는 경성, 평양과 더불어 한반도 미술의 3대도시 중 하나로 이야기된다. 역사적인 정통성만큼이나 현대적인 것(the modern)에 대한 응전도 남달랐던 대구는 현대미술의 실험 또한 선도하며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풍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능동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러한 대구 미술의 역사는 지역성(locality)을 뛰어 넘어 모두가 기억할 만하다. 근원 김용준의 『근원수필』에서도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는 대구와 경북 일원 출신의 근대 미술가들과 70년대 말 강정에서 현대 미술제를 직접 구성하여 일본 및 그 이외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당대의 고민을 담아 낸 미술가들의 이름은 미술관련 아카이브 어디를 펼치든지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이러한 자긍심 위에서 명맥을 이어온 현재의 대구 경북 전시풍경은 나름의 개성을 갖추면서 매우 활발하게 국제적인 관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대구를 중심으로 한 전시풍경의 소개는 '갤러리, 미술관, 복합문화공간의 전시, 레지던시, 대안공간, 거리, 보이지 않는 담론 생성의 장'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전시공간은 미술주간 내에 전시가 진행 중인 곳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전시장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을 중심으로 구분하면, 중구 봉산동일대 갤러리, 남구 이천동 고미술거리, 북성로 인근 근대거리 등이 있고, 이외 여러 곳에 산포되어 있다. 대구의 일부 거리는 그 자체로 근대의 전시공간이다. 계산성당과 대구 제일교회 인근, 이상화 고택 인근 그리고 공구거리인 북성로 일대이다. 특히, 북성로 일대는 카페 삼덕상회. 공구박물관, 믹스카페 등 근대건물을 다듬어 만든 상가건물이 눈에 띈다. 북성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공구거리이며 현재도 성업 중이다. 일제시기부터 활발한 상업거리였던 북성로에 즐비한 적산가옥과 온갖 공구들, 오토바이 상점들은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이색적인 거리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현재 이 거리와 그 인근은 지속적으로 보존하되 새롭게 해석되면서 상업지구이면서도 동시에 역사거리로 탈바꿈해가고 있다. 북성로에서 시내 쪽으로 걸어 나와 종로 일대까지, 그 인근 한약 재료상 거리까지 거니는 것도 곧 근현대 시간을 관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미술주간 중 다음 전시 준비로 전시가 없는 곳을 살펴보자. 갤러리분도 갤러리 테아트르가 함께 있는 전시공간으로, 주로 현대미술을 소개하고 있으며, 우손 갤러리는 봉산문화회관과 마주보고 있는 현대미술 전문 갤러리이다. 갤러리 분도와 우손 갤러리 두 곳은 현재 다음 전시를 준비중이지만, 미술전시 전문공간으로 공간과 건축이 볼만하다. 대구미술관과 인접해 있는 누오보 갤러리. 이태리 식당과 함께 있는 누오보 갤러리는 대구 출신의 중견작가들 전시에 주력하고 있다. 다른 화랑들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는 갤러리 펄은 두 명의 큐레이터가 운영하는 대안공간으로 부설 현대미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갤러리 펄은 대구의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전시를 구성하며, 작가 인큐베이팅이나 타 지역 작가들과의 연계 프로그램에 주력하고 있다. 동원화랑 역시 대구에서는 상당히 오래된 화랑이며, 화랑거리인 봉산동에 자리 잡고 있다. 근대미술을 중심으로 전시하던 동원화랑은 최근 수 년 동안 현대미술 동향으로 전시의 내용을 확장함으로써, 다양한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외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공간 중 하나는 대안공간 싹이다. 2006년 9월 수성동에 개장한 보기 드문 대안공간이다. 시장의 논리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가치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사진전문 갤러리 시오는 전시 횟수는 작지만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갤러리이다.

대구에서 화랑이 집중된 곳은 봉산동일대로, 봉산동 화랑가는 이천동 고미술거리와 함께 오래된 대구의 화랑가이다. 인사동과 비슷한 구조의 긴 거리에 즐비한 화랑가 관람도 좋은 전시 중 하나이다.

23 월	전시 <임소아>	갤러리소헌&소헌컨템포러리	11. 5 - 11. 30
24 화	전시 <신현대 개인전>	수성아트피아	11. 24 - 11. 29
	전시 <송하 백영일 서전>	대백프라자갤러리	11. 24 - 11. 29
25 수	전시 <예술의 뿌리>	신풍미술관	11. 24 - 11. 28
	특별행사 <달콤한 문화마을(작은음악회)>		11. 25
26 목	전시 <이성의 수면>	스페이스K대구	10. 8 - 11. 26
27 금	전시 <기억공작소-안정주>	봉산문화회관	11. 13 - 12. 27
28 토	전시 <레슬리 폭스크롭>	신라갤러리	10. 23 - 11. 28
29 일	전시 <애니마믹 비엔날레>	대구미술관	10. 27 - 2. 14
	전시 <이명미 말해주세요>		9. 22 - 2. 9

/ 대구

가창 창작스튜디오
Gachang Art Studio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고57길 46
053-767-6727 | www.gcartstudi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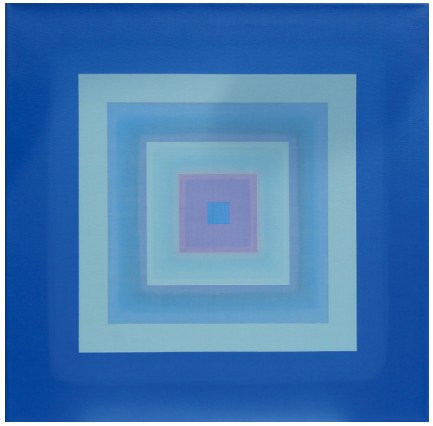
레지던시 운영을 통해 작가들의 창작을 지원하는 장소이다. 폐교를 정비한 가창 창작스튜디오는 대구현대미술가협회가 함께 있다. 대구현대미술가협회는 지금은 사라진 스페이스 129를 운영한 바 있다. 스페이스 129는 현대미술가 중심으로 대안공간의 성격으로 운영되던 작가 운영 전시공간이었다. 정대에도 작가들의 스튜디오를 지원하는 미술문화광장도 있다. 최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갤러리소헌&소헌컨템포러리
Gallery SOHEON & SOHEON Contemporary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길 34
053-426-0621 | www.gallerysoheon.com

갤러리 소헌과 갤러리 컨템포러리, 예당건축조형미술연구소를 운영한다. 갤러리 컨템포러리에서는 주로 젊은 작가의 발굴에 주력한다.

전시_
임소아 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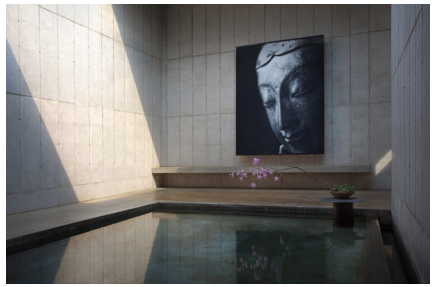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활발히 활동하는 임소아 작가의 개인전이 소헌 컨템포러리에서 열린다. 컬러풀한 색채와 함께 깔끔하게 마무리된 엣지가 돋보이는 사각형은 '가장 순수한 도형', '완전한 형태'를 의미하며 감정과 연상을 철저히 배제한, 오롯하게 순수 감정만을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보이지 않는 것(우리 생활 속 실체화 하고 있진 않지만 실존하는 것들)'에 대한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인간의 감정을 담기 위해 사각형을 비롯한 순수한 기하학적 형상과 원색의 다양한 색채를 사용한다.

전시기간 : 11. 5(목) - 11. 30(월)
관람시간 : 월 - 금 10:00 - 18:00, 토 11:00 - 17:00
(일요일 휴관)
참여 작가 : 임소아
관람료 : 무료

갤러리 아소
Gallery Aso

대구시 수성구 중동 163-1 | www.galleryaso.com



시공갤러리 건축을 담당했던 이현재가 다듬은 전시공간으로, 곳곳에 정성이 담긴 야생화들이 놓여 있다. 야생화들의 조용한 환대가 갤러리 아소만의 특징으로, 부정기적으로 미술전시가 열리고 있다. 건물과 마당을 둘러보는 것 자체가 하나의 미술품을 관람한 것과 같다.

대구문화예술회관
Daegu Culture & Arts Center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
053-606-6114 | artcenter.daegu.go.kr

대구의 시립미술관이 설립되기 이전, 미술관의 역할을 담당하며 대구청년작가 비엔날레와 대구의 원로작가들을 조명하고 있다. 전시와 더불어 관련된 아카이브 작업에 선도적이다. 기획전과 대관전, 두 가지 방식으로 전시가 진행된다. 대구미술가협회(미협) 사무실이 대구문화예술회관에 있다.

대구미술관 ●

Daegu Art Museum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술관로 40
053-790-3000 | www.daeguartmuseum.org

시립미술관으로 명실상부 대구 미술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곳이다. 초대관장에 이어 두 번째 관장을 맞이하여 미술에 대한 전문성과 대중성을 이끌어 가고 있다. 쿠사마 야요이, 최정화 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대구 작가들의 전시도 꾸준히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전시는 현대미술의 대표 주자인 이명미 개인전과 대만, 홍콩 등 애니메이션과 만화(comic)의 합성 장르로 구성된 애니마믹 비엔날레이다. 애니마믹에서는 아시아 젊은 작가들의 재기를 선보인다.

전시_
이명미 말해주세요 展

전시기간 : 2015. 9. 22(화) - 2016. 2. 9(화)
관람시간 : 10:00 - 18:00 (월요일 휴관)
참여작가 : 이명미
관람료 : 성인 5,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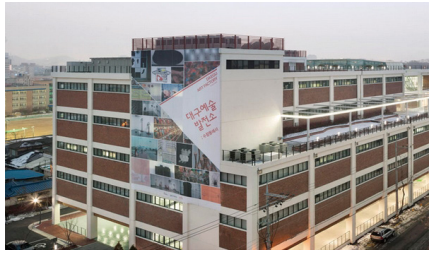
전시_
애니마믹 비엔날레 2015 - 2016

전시 기간 : 2015. 10. 27(화) - 2016. 2. 14(일)
관람 시간 : 10:00 - 18:00 (월요일 휴관)
전시 장소 : 대구미술관 어미홀, 1전시실
참여 작가 : Mr.(일본), Aya Takano(일본), Sun Xun(중국), Wu Junyong(중국), Danny Yung(홍콩), 김다영, 김민수, 노준, 배윤환, 변대용, 변선영, 유싸무, 이병찬, 이광택, 이에스더, 이형구, 양재영, 전병택, 정승혜, 최재영, 허은경
관람료 : 성인 5,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

대구예술발전소 ●

Daegu Art Factory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22길 31-12
053-803-6251 | www.daeguartfactory.kr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문화플랫폼으로서의 전망을 갖고 있으며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북성로와 대구역 인근에 있는 대구발전소는 담배인삼공사였던 곳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개조한 곳이다. 장소가 갖는 특징 이외 대구발전소는 '서기'를 중심으로 개념을 세운 만권당이 주목된다. 만권당은 옛사람의 인문 정신을 기억하고 이를 현대에 이어 창의적인 문화생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백프라자 갤러리

Debec Plaza Gallery

대구시 중구 명덕로333 대백프라자 12F
053-420-8015 | www.debecgallery.com



대구의 대표적인 백화점에서 운영, 1971년 개원한 상업 갤러리로서 현재 상당규모의 전시장으로 확장, 지역의 전시소개에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시_
송하 백영일 서전(書展)

전시기간 : 11. 24(화) - 11. 29(일)
전시시간 : 월 - 목 10:30 - 20:00
금 - 일 10:30 - 20:30 (일요일 휴관)

리안 갤러리 대구

Leeahn Gallery Daegu

대구광역시 중구 이천로 188-1
053-424-2203 | www.leeahngallery.com

리안갤러리는 대구와 서울 두 군데서 운영 중이다. 대구 리안갤러리는 '시공갤러리'가 자리한 곳이었다. 시공갤러리는 70년대 후반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우리나라 현대미술 운동의 실험성을 재조명하던 곳이다. 시공갤러리의 대표가 타계한 이후, 현재의 대표가 리안갤러리로 개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리안갤러리는 당대 미술의 흐름과 주목할 만한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청, 전시를 이어가며 독자적인 리안의 색채를 찾아가고 있다.

맥향화랑
Gallery Maek-Hyang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1동 25-2
053-421-2005 | www.gallerymh.net

맥향(麥香)화랑은 1976년 3월 오픈했다. 1978 - 1987년 대구 최초 대구미술아카데미 설립, 700여명 졸업생 배출한 바 있다. 공연, 멀티 아트샵을 운영하며 복합공간으로 확장, 운영함으로써 오늘날 유행하는 복합공간으로서 그리고 교육의 장로서의 갤러리의 사회적 기능을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실천한 공간이다. 고 이태수 맥향화랑 대표는 현재의 위치 중구로 이전한 이후, (사)한국판화미술진흥회를 이끌었고, 한국화랑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미술은행제도를 도입하기고 하였으며, 타계 직전까지 동시대미술로 관심을 확장해 나가며 세계적인 동향에 맞추어나갔다. 인하대 화공학과 출신의 공학도 이태수 대표가 개척한 40년에 가까운 화랑사는 곧 대구 화랑사(畵廊史)이자 대구의 미술 풍경을 주도해 온 중요한 역사의 한 장소이다. 진행되는 전시와 무관하게 들러볼만한 하다.

범어아트스트리트
Beom-eo Art Street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지하 2410 지하철 2호선 범어역 지하도 8번 출구 | 053-430-1267 | www.beomeoartst.or.kr



지하철 범어역의 지하도를 전시공간으로 개조한 곳이다. 상권 흥기가 애매한 지역이라 예술과 관련된 직업이나 작업실로 대여를 하고, 나머지 공간은 전시공간으로 사용한다. 지하도 내부 벽도 전시공간으로 활용하여, 도시 재생 공간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전시_
2015 범어아트스트리트 기획공모전시
커리큘럼 展 - 썬데이페이퍼

전시기간 : 11. 4(수) - 11. 29(일)
전시장소 : 벽면갤러리 및 스페이스 1 - 4

봉산문화회관
BONGSAN Cultural Center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길 77
053-661-3500 | www.bongsanart.org



관이 주도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전시공간인 봉산문화회관 전시장은 주로 대구의 젊은 작가들을 발굴 소개하는데 주력한다. 특히, 유리상자 전시를 통해 젊은 미술가의 새로운 모색이나 동향을 조명하고 있다. 최근동향은 대구 젊은 작가들 뿐 아니라 기획전을 확대함으로써 대구 이외 지역의 작가들을 소개하거나 대구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주요 맥락을 만들어가고 있다. 현재 전시는 기억공작소 안정주 전이 진행 중이다.

전시_
기억공작소 - 안정주 展

전시기간 : 11. 13(금) - 12. 27(일)
관람시간 : 10:00 - 19:00 (월요일 휴관)
전시장소 : 봉산문화회관 2층 제4전시실
참여작가 : 안정주
관람료 : 무료

수성아트피아
Suseong Artpia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180
053-668-1800 | www.ssartpia.kr



복합문화공간으로, 미술 분야는 미술아카데미 강좌와 전시가 진행된다. 진행 중인 전시는 홍대 동양화과에서 수학한 작가로, 환상적 화면과 실험적 화면을 구사하는 신현대의 개인전이다.

전시_
신현대 개인전

전시기간 : 11. 24(화) - 11. 29(일)
관람시간 : 10:00 - 19:00
전시장소 : 호반갤러리
관람료 : 무료

스페이스K 대구
Space K_Deagu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32 2F
053-766-9377 | www.spacek.co.kr



기업이 운영하는 공간이다. 세련된 기획안으로 외부 작가들을 대구에 소개하고 있다. 대구 작가들을 선정하기도 하지만, 기량이 뛰어난 타 지역의 작가들을 엄선하여 대구에 소개함으로써 대구 미술을 보다 풍성하게 하는데 기여한다. 현재 전시는 이성의 수면: 차소림, 노영훈 이시우 3인 전이 개최중이다.

전시_
이성의 수면 展

전시기간 : 10. 8(목) - 11. 26(목)
관람시간 : 10:00 - 18:00 (토,일 휴관)
참여작가 : 노영훈, 이시우, 차소림
관람료 : 무료

신라 갤러리
Gallery Shilla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1동 130-5
053-422-1628 | www.galleryshilla.com

신라갤러리는 대구의 대표적인 조형적 흐름 중 한 가지인 기하학적이고 미니멀적인 경향의 작품을 전문으로 기획한다. 고 김용수 작가의 마지막 전시가 개최된 곳이기도 하며, 개원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국내외 미니멀한 경향과 기학학 경향의 작품을 꾸준히 소개하고 있다. 현재 전시로는 레슬리 폭스크롭트 전이다.

전시_
레슬리 폭스크롭 展

전시기간 : 10. 23(금) - 11. 28(토)
관람시간 : 월 - 토 11:00 - 18:00, 일 12:00 - 18:00

썬데이 페이퍼
Sunday Paper

blog.naver.com/sunday_paper



최성규 작가를 중심으로 작가와 이론가가 함께 모여 공부하고 토론하고 전시를 기획하는 담론생성의 중심 역할을 한다. 썬데이 페이퍼는 대구에서 새로운 미술인 모임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정기적으로 만나 공부하고 토론하며, 일정기간 지나면 전시를 통해 자신들의 성과를 무대에 올린다. 현재 6회 모임에 10여 차례의 전시 오픈에 이르고 있는 이 모임은 최근 영천의 마사를 인수하여 자이언트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전시장으로 개축하고, 대구 삼덕동에 있는 독립운동가 심재보의 집을 전시공간으로 개조, 운영한다. 삼덕동의 전시공간은 아나키스트의 어원이 되고 있는 희랍어 이름을 따 아나르케라 불린다. 여기의 중심이 되고 있는 썬데이 페이퍼의 도전은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고 있으며, 횟수를 거듭하며 전시와 더불어 전시공간을 확장해가면서 대구미술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자이언트, 아나르케 모두 건물 및 땅의 소유자가 직접 공간을 정비하여 공공의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미술인에게 조건 없이 그 운영과 기획을 위탁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풍미술관 ●◆
Sinpung Art Museum

경북 예천군 지보면 신풍 1리길 50
054-653-9329 | www.sinpungartm.org



전시_
ROOT OF ART(예술의 뿌리) 展

지역의 문화취약계층(장애우, 미취학어린이,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립미술관 교육프로그램으로 ROOT OF ART(예술의 뿌리)를 통해 얻어진 창작 작품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물 전시이다.

전시기간 : 11. 24(화) - 11. 28(토)
관람시간 : 9:30 - 18:00 (월요일 휴관)
관람료 : 무료

특별행사_
달콤한 문화마을 (작은 음악회)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기회가 부족한 지역민들에게 미술 전시와 함께 이루어지는 작은 음악회로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일자 : 11. 25(수)
참가비 : 무료

전국 미술 지형도 부산 | 경남

미술로 본 새로운 단상 '부산 · 경남을 말하다'

김경선(갤러리 폼 대표, 부산예술컨텐츠포럼 대표)

부산의 지역 문화를 이야기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아마도 알록달록한 동화마을과 같은 감천문화마을일 것이다. 감천문화마을은 '한국의 마추픽추'로 한국관광 100선에 등재 될 만큼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 아이콘이 되었다. 피난민 촌의 자연스러운 근현대사 문화 흔적과 마을 미술프로젝트가 서로 결합되어 다양한 벽화와 조형물을 즐길 수 있는 장소이다.

감천문화마을이 부산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면 반대로 동쪽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예술지구P가 있다. 예술지구P는 환경과 경제논리에 의해 쇠락해지고 있는 도심 속 공단 안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공장이 빠져나가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공연과 예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젊은 예술가들에게는 주거와 작업실을 겸한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다. P에는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마련되어 있고 드럼 셋팅이 완비된 합주실, 녹음실이 있다. 뿐만 아니라 두 개 동에 전시실과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연장에서는 지역 주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전인권, 김창기 밴드, 백현진, 배우 최민수, 신촌블루스 등과 같은 콘서트를 즐길 수 있으며, 큰 스크린으로 영화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젊은 예술인들의 작업 공간과 더불어 5명의 작가들이 숙식을 함께 할 수 있는 레지던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이 공장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지역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예술지구P를 거쳐 해운대구로 넘어 오면 일제강점시대 기차 역사를 만들기 위해 동원된 노동자들이 거주했던 해운대 솔밭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을 예술인들의 창작공예 공방으로 탈바꿈시켰으며, 기존 200년 이상 된 소나무들의 생육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 컨테이너 건물을 배치시킨 양식이라 공방의 크기는 협소하나 1,2층으로 된 공방도 있고 공방 사이에 테라스도 있는 공간이 있어 작가들의 작품이 해운대 햇살 아래 눈부시게 자태를 뽐내고 있는 곳도 찾아 볼 수 있다. 규모면에서는 작은 공간일 수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기 보다는 자연을 해치지 않은 공간으로 역사와 공존해 가는 예술인들의 소소한 작업을 둘러볼 수 있다는 점에서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한 공간이다. 이곳에 입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작가들은 '달프' 즉, '달맞이 아트 프리마켓'에 참여하고 있는 작가들이다. 달맞이 아트 프리마켓은 2011년 3월부터 매년 해운대 달맞이 해월정 일대에서 열리는 예술가들의 프리마켓이다. 추위가 조금 물러선 3월에서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11월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주말 오후 2시부터 야간 9시까지 진행된다. 약 65명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물품을 판매하며 핸드메이드 악세사리와 공예 작품들을 비롯하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존과 거리 공연 등이 열리기도 한다. 타 지역에서도 유사하게 여러 아트마켓이 열리고 있지만 해운대 바다에서 불어오는 짭조름한 바다내음과 남쪽의 따사로운 햇살을 콧잔등에 맞으며 젊은 예술인들의 작품을 구경하는 매력이 달맞이 아트 프리마켓만이 가지는 이색적인 구경거리가 아닐까싶다.

해운대에서 즐거운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겼다면 이번에는 부산 시민공원에 위치한 문화예술촌을 한번 둘러보기를 권한다. 시민공원 내 문화예술촌은 미군과 UN고문단을 위한 숙소였으나 1948년 해방 이후 일본식 목조 건물로 지어졌다. 이곳은 6.25전쟁 이후 부산지역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하사관과 그의 가족을 위한 숙소로 사용된 공간이었던 것이다. 금속, 도예, 목공예, 섬유 및 판화 공방 등 각종 공방이 운영되고, 합주실을 겸한 소규모 공연장도 운영 중이다. 아이들과 함께 직접 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민 공원 내 문화예술촌은 기존 도심에 유휴 공간을 활용한 장소이지만, 16만평 도심 숲 안에 위치한 공간이라 공원 산책의 여유로움과 공원 내 뽀로로 도서관이나, 미로공원, 도심 백사장 등 다양한 문화예술 컨텐츠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부산은 수도권 지역에 비해 문화예술 컨텐츠가 아직 미비한 것은 사실이나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성과 역사성을 예술적으로 접근하여 파급효과를 극대화 시킨 감천문화마을과 해운대 솔밭예술마을, 부산시민공원 문화예술촌 등은 부산에서만 즐길 수 있는 문화 아이콘이 아닐까싶다. 짠내나는 부산의 가을바람을 머릿결 사이로 느끼며 부산 도심 구석구석에 피어난 예술의 향기를 찾으러 부산 속 가을 여행을 떠나보기를 권해본다.

23 월	전시 <이기택 개인전>	갤러리 Form	10. 17 - 11. 29
24 화	전시 <극단의 극복-목수와 화가>	신세계갤러리 센텀시티	11. 3-12. 14
25 수	전시 <두 개의 달>	고은사진미술관	8. 29 - 11. 25
	전시 <48주의 기록>	프랑스문화원 아트스페이스	11. 12 - 12. 1
26 목	전시 <결이 흐르는 공간>	소울아트스페이스	10. 24 - 11. 26
27 금	전시 <불각의 아름다움, 김종영과 그 시대>	경남도립미술관	9. 10 - 12. 9
28 토	교육 <생활에 미술 채우기>	창작공간 마재고개14	11. 28
29 일	전시 <스튜디오 지브리 입체건축>	부산시립미술관	9. 5 - 11. 29
	전시 <Craft recipe>		9. 10 - 11. 29

/ 부산

CATs 사상 인디스테이션
CATs Sasang Indie Station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190
051-316-7630 | www.catssasang.com



사상 인디스테이션은 부산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컨테이너 27개로 이루어진 복합문화시설로, 다목적홀과 전시실로 구성된 '소란동'과 스튜디오실, 다문화센터, 레지던스, 사무실로 구성된 '도랑동'의 지상 3층 2개동으로 이루어져있다. 젊음을 발산 할 수 있는 청년 인디문화의 중심지로 서부산의 문화적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때때로 금요일 오후 8시에는 CATs 인디스테이션 소란동에서 불금파티인 Rock'n 樂이 열린다. 소리에 신경쓰지 않고 정열을 불태우고 싶은 자들이여, 사상 인디스테이션으로 오라!

갤러리 Form
Gallery Form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20 롯데갤러리움 E동 309호
051-747-5301 | www.galleryform.com



부산의 새로운 전시, 컨벤션, 유통, 영상컨텐츠, 국제 업무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는 센텀시티에 위치한 갤러리이다. 국내 중견 작가의 작품을 기획 전시뿐만 아니라 국내외 젊은 작가를 발굴 육성하며 국제적 아트 마케팅에 주력하는 신생 갤러리다. 센텀시티 주변 많은 입주 기업에 종사하는 지식 노동자들의 쉼터 역할과 함께 젊은 부산 미술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전시가 주로 열린다. 갤러리 주변으로 벡스코와 같은 큰 전시장과 함께 영화의 전당, 부산 디자인센터, 민영 방송국인 knn에서 운영하는 월석아트홀에서도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만날 수 있다.

전시_
이기택 개인전 DISTORTION

전시기간 : 10. 17(토) - 11. 29(일)
관람시간 : 10:00 - 19:00 (일요일 휴관)
관람료 : 무료

가나아트 부산
Gana Art Busan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405-16 노보텔 앰배서더 4F
051-744-2020 | www.ganaart.com



노보텔 앰버서더 호텔 4층에 위치하고 있는 가나아트의 부산 분점의 전시공간이다. 2007년부터 전시가 운영되고 있으며 통창으로 보이는 부산 해운대의 바다풍경이 일색인 공간이다. 150평의 넓은 전시장 규모와 작은 음악회, 교양강좌 등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제공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다. 박수근 탄생 100주년 기념전 등 대규모 전시가 종종 열리는 공간이다. 해운대 바닷가 근처 숙소를 이용한다면 부담없이 산책길에 들러 작품을 볼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이다.

부산공간화랑
Kongkan Gallery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33번지 까멜리아 상가 127호
051-743-6738 | www.kongkan.kr



1975년에 개관한 장수화랑이다. 좋은 작가를 찾는 안목과 작가의 좋은 작품을 구분하는 선별력, 세계 미술과 국내미술의 상황을 읽어내는 정보력, 이 세 가지를 화랑 운영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 오랜 역사가 빛나는 화랑이다. 김창렬, 김원숙, 안창홍, 제여란 등 국내 중견작가들의 전시를 많이 선보인 화랑이기도 하다. 화랑을 나와 오른편으로 야간 조명이 아름다운 베이101의 밤바다의 매력과 아트샵도 쏠쏠한 재미를 제공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고은사진미술관 / 고은 컨템포러리 사진 미술관

Goeun Museum of Photography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52번길 16
051-746-0055 | www.goeunmuseum.org



고은사진미술관은 고은 미술재단이 만든 사진 전문 미술관이다.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부산, 경남으로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문화 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사진 아카이브는 물론 국내외 다양한 사진작품을 전시하고 신인작가를 발굴하는 부산 유일의 사진 전문 미술관이다. 중동과 우동에 위치하고 있고 두 공간 모두 따스한 자연광이 건물 안에 흡수되게 설계되어 기존 미술관이 주는 답답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있으며 관람객들이 쾌적함 속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특히, 중동에 위치한 고은 사진미술관은 해운대 바닷가를 걷다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과 함께 이색적인 사진의 세계를 경험하기에 좋은 장소이다.

전시_
고은사진미술관 해외작가 발굴 프로젝트 - GoEun's Eye <두 개의 달 Two Moons>

전시기간 : 8. 29(토) - 11. 25(수)
관람시간 : 화 - 일 10:00 - 18:00 (월요일 휴관)
참여작가 : 다이애나 마타, 리디아 골드블라트, 마리엘라 산카리, 민혜령, 존 세르빈스키, 피터 레이튼
관람료 : 무료

부산시립미술관

Busan Museum of Art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8
051-744-2602 | art.busan.go.kr



도시철도 2호선 시립미술관역 5번 출구에서 도보로 100미터 정도를 걷다 보면 부산시립미술관의 위용이 나타난다. 11월 현재 본관 전시장에서 스튜디오 지브리 입체건축전과 'craft recipe'전, 어린이 미술관에서는 '도형식탁' 전, 부산을 기억하고 있는 최민식 작고 사진작가의 서민의 역사를 담아낸 '찰나! 한순간의 기억' 전시가 진행 중이다. 파란 많은 한국 현대사를 작가의 애정어린 시선으로 다시 재조명되며 이는 젊은 세대에게도 동일한 감동으로 전해진다. 2007년 작가로부터 기증받은 작품들 중 그의 촬영 주무대였던 자갈치 시장, 부랑자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춰 기획되어졌고 반세기에 걸친 우리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친근한 전시가 운영 중이다.

전시_
스튜디오 지브리 입체건축 展

전시기간 : 9. 5(토) - 11. 29(일)
전시장소 : 부산시립미술관 2F
참여작가 : 다카하타 이사오, 미야자키 하야오 외
관람료 : 성인 12,000원, 청소년 및 어린이 10,000원, 노인/군경 8,000원, 장애인/보훈 6,000

전시_
Craft recipe 展

전시기간 : 9. 10(목) - 11. 29(일)
전시장소 : 시립미술관 2층 H실
참여작가 : 이세훈, 박태홍, 오정선, 이용기

전시_
도형식탁 展

전시기간 : 9. 25(금) - 12. 20(일)
전시장소 : 어린이미술관

전시_
기증상설전 2부 - 찰나! 한순간의 기억 展

전시기간 : 10. 9(금) - 12. 20(일)
전시장소 : 2층 기증전시실
참여작가 : 최민식
관람시간 : 화 - 일 10:00 - 20:00 (월요일 휴관)
관람료 : 무료

소울아트스페이스
Soul Art Space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30 엑소디움 상가 1,2F
051-731-5878 | www.soulartspace.com

전시_
결이 흐르는 공간 - 김덕용 展



시간과 공간을 주제로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이어온 김덕용 작가가 나무와 자개를 사용한 신비로우면서도 은은하게 표현된 매력적인 풍경을 한껏 느껴볼 수 있다.

전시기간 : 10. 24(토) - 11. 26(목)
관람시간 : 화 - 토 10:30 - 19:00
일 11:00 - 18:00 (월요일 휴관)
관람료 : 무료

신세계갤러리 센텀시티
Shinsegae Gallery Centumcity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35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6층
051-745-1508 | www.shinsega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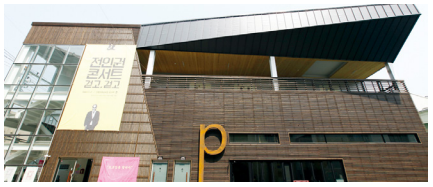
신세계 갤러리 센텀점은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진기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부산 센텀시티 신세계백화점 쇼핑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 신세계 갤러리는 회화, 조각, 사진 등 정통 미술분야만이 아닌 패션, 디자인, 건축 등 다양한 장르의 새로운 시각을 보여 주는 전시를 기획하는 공간이다. 11월 3일부터 목수 이정섭과 화가 김태호(서울여대)의 2인 전인 "극단의 극복-목수와 화가" 전시가 이어지며 신세계 갤러리는 전시뿐만 아니라 백화점 매장 곳곳에 소장된 미술품들을 감상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백화점 연장 영업시 동일하게 연장 관람할 수 있다.

전시_
極端의 克服_목수와 화가 展

전시기간 : 11. 3(화) - 12. 14(월)
관람시간 : 월 - 목 10:30 - 20:00, 금 - 일 10:30 - 20:30
참여작가 : 김태호, 이정섭
관람료 : 무료

예술지구_P
Art District_P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157-6
070-4322-3113 | www.artdp.org



부산 금정구 금사공단에 위치한 복합문화공단이다. 부산 향토기업인 욱성화학의 기업 후원으로 사내 유휴공간 부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창작공간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예술공단이다. 예술지구_P는 미술가 레지던시 및 기획전시 공간인 '창작지구_P'와 공연기획 전방위 예술극장인 '금사락', 사진가 레지던시 및 사진 미디어 공간인 '포톤'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인근지역민과 공단 근로자 들에게도 쉽게 문화와 예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역 문화예술 공동체를 구현하고 있다. '창작공간_P'는 현대미술의 정체성과 실험적이고 진보적인 미술문화 형성을 위해 전시, 레지던시 프로그램, 신인작가 기획자 발굴 및 교육, 작가 아카이브 구축 등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금사락'은 공연장 대관운영과 뮤지션공연을 기획하고 악기교육 및 녹음실 등 양질의 공연예술을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갖춰진 공간이다. '포톤'은 사진을 매개로 하는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문화적으로 취약한 지역민들과 인근 공단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사진창작에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시_
<동서고금> 익산창작스튜디오+부산 복합문화공간 예술지구_P 교류전

전시기간 : 11. 25(수) - 12. 7(월)
관람시간 : 10:00 - 19:00 (일요일 휴관)

이우환공간
Space Lee Ufan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8
051-744-2602 |art.busan.go.kr



부산시립미술관 별관인 <이우환 공간>은 세계적인 현대미술가이며 철학자인 이우환 작가의 예술을 총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최근 개관한 이 공간은 196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우환 작품의 진수가 모여진 공간이다.
이 공간의 설계 및 모든 디자인과 작품 배치까지 생존한 작가에 의해 기획되어지고 진행되어졌다. 이우환 공간은 기존 미술공간과는 다른 공간으로 또 하나의 작품으로 느껴지는 공간이다. 여러 지자체의 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5년 만에 일본 나오시마에 있는 이우환 미술관에 이어 부산에 두 번째로 개관하였다. 중학교 시절을 부산에서 보낸 인연으로 20여점을 부산 시민들에게 기증하여 상설 전시 형태의 공간을 운영 중이다. 이우환 공간에는 회화14점, 조각 7점, 외부(조각) 3점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기간 : 상설
관람시간 : 10:00 - 18:00 (월요일 휴관)
관람료 : 어른 3,000원, 어린이/청소년/군인 2,000원

프랑스문화원 아트스페이스
ART SPACE_Alliance Française Busan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52번길 16
051-746-0342 | artspace-afbusan.k



프랑스 문화원 아트스페이스는 문화적 다양성을 꿈꾸는 프랑스 문화원의 정신 아래 설립된 대안 예술공간이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랑데부 드 부산' 등 알리앙스 프랑세즈와 프랑스 명예영사관과 함께 2003년부터 프랑스 문화 축제도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세계인들로부터 사랑 받는 프랑스 문화의 전도사 역할과 함께 지역의 젊고 역량 있는 신진작가와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공모는 일 년에 두 번 이루어진다고 한다. 청년 도예가 이찬민이 여는 이번 개인전은 '48주의 기록'을 테마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인 미술언어에 관한 것들이다.

전시_
이찬민 - 48주의 기록 展

전시기간 : 11. 12(목) - 12. 1(화)
관람시간 : 10:00 - 18:00 (월요일 휴관)
관람료 : 무료

홍티아트센터 ●
Hong-Ti Art Center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106번길6
051-263-8661 | www.busanartspace.or.kr



부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창작공간으로 지역의 유휴공간에 창작공간을 조성하여 예술가들에게 안정적인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질 높은 시민문화예술교육 및 체험 기회도 제공하는 곳이다. 지역의 자연스러운 문화 소통 공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과 문화 예술의 교집합을 만들고자 부산문화재단이 고민하는 공간이다. 사하구 다대동에 위치한 무지개 공단 근로자와 지역민들의 삶의 활력을 불어 넣는 새로운 거점공간이다. 워크샵 및 입주 작가의 전시 및 오픈 스튜디오는 수시로 개최하며 국제 레지던시 네트워크와 같은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홍티아트센터는 서부산 문화의 중점지로서 을숙도 에코센터, 감천문화마을, 아미산 전망대 등 서부산의 매력을 느껴 볼 수 있는 장소이다.

/ 창원

경남도립미술관 ●
Gyeongnam Art Museum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96
055-254-4600 | www.gam.go.kr

전시_
불각의 아름다움, 김종영과 그 시대 展



2015년은 우성 김종영 작가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예술가이자 교육자였으며 20세기 선비로서의 김종영의 삶과 예술을 확인하는 '불각의 아름다움, 김종영과 그 시대' 전이 12월 9일까지 열리고 있다. 이번전시는 김종영의 예술 작품과 함께 김종영의 성장과정과 수학시절 및 공공미술 활동의 자료도 볼 수 있으며 김종영 추상작업의 모티브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추상작품을 볼 수 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김종영 생가는 조선후기 전통 한옥 양식으로 건축사적 가치가 높아 생가를 함께 둘러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또한 백남준의 '창원의 봄'이라는 비디오 영장 작품이 로비에 전시되어 있는 성산 아트홀에서도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만날 수 있다.

전시기간 : 9. 10(목) - 12. 9(수)
관람시간 : 10:00 - 18:00 (월요일 휴관)
전시장소 : 경남도립미술관 전관
참여작가 : 김종영 외 23명
관람료 : 어른 1,000원, 청소년 및 군인 700원, 어린이 500원

창작공간 마재고개14
MAJE14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마재고개길14
blog.naver.com/mase2014



문화체험공간으로 조각 작가의 작업실을 리모델링하여 목공과 조각 회화 한국화 테라코타 등을 누구나 체험을 할 수 있는 공방이다. 가스 가마가 있어 흙으로도 체험을 하고 있으며 산이 옆에 있어 자연과 예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다.

교육 프로그램_
생활에 미술 채우기

우연의 효과를 이용한 추상화 마블링과 버블페인팅, 디스페치워크(사회 치유를 위한 미술), 섬유페인팅과 같은 방식으로, 미술사를 바탕으로 미술의 기법을 적용하여 자기의 이야기를 창작물로 제작한다.

프로그램일시 : 11. 28(토)
대상 : 가족, 친구, 연인 등
참가비 : 20,000원

전국 미술 지형도 제주

문화예술의 섬, 제주에서 제주의 미술을 바라보다

엄광현(전시기획자, 예술학박사)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정부가 바람, 돌, 여자의 삼다도로 상징되던 제주를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문화예술의 섬"으로 발돋움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 마련과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만큼 기존의 문화예술공간, 아트스페이스들과 더불어 젊고 활기찬 창작공간을 표방하는 아트스페이스들이 계속 생겨나 제주도 미술계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 그로 인해 제주도에서는 현재, 제주도의 미술지형도가 빠른 속도로 새롭게 개편되고 있는 중이다.

제주도립미술관과 제주현대미술관, 저지문화예술인 마을, 그리고 현재 개관을 앞두고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제주종합예술센터 등 제주도를 대표하는 대형 문화예술시설 대부분이 제주시 주변에 모여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는 제주시를 거점으로 제주도의 미술계가 움직여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제주도의 미술지형도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중섭미술관을 비롯하여 왈종미술관, 서귀포예술의전당, 소암기념관, 가시리창작지원센터 등이 문을 여는 등 서귀포시를 비롯하여 제주도 곳곳에 크고 작은 아트스페이스가 새로이 둥지를 틀고 활발한 활동을 펼쳐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제주도에는 현재, 소위 '이주예술인'이라 불리는 타 지역 문화예술인의 제주도 이주와 창작활동 거점 이동현상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갤러리 노리와 문화공간 양을 비롯하여 아트창고, 문화곳간, 조습마씨, 다시방, 문화충전소빳데리 등 이주문화예술인들에 의해 새로이 마련된 아트스페이스들과 제주도 출신의 문화예술인에 의해 아트스페이스가 새롭게 문을 열고, 제주도 미술계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던 기존의 아트스페이스들과 경합을 벌이며 현재, 제주도 미술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제주도 출신의 문화예술인과 이주문화예술인의 협업을 통한 미술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제주 토박이가 운영하는 비아아트의 박은희 대표와 이주 전시기획자, 이장희가 공동대표로 나서서, 2014년부터 제주시 구도심의 샛물골 여관 골목길에서 매년 젊은 작가들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는 제주아트페어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현재, 제주도에서는 제주지역과 국내외 타 지역 간의 미술교류를 증진하는 다양한 사업이 아트스페이스와 대안공간, 미술관, 전시기획자, 예술가 등에 의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전시 중심의 활동을 벗어나 젊은 작가들의 창작지원을 비롯하여 문화예술교육사업, 레지던시 프로그램, 도시재생 프로젝트 등도 다채롭게 기획,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생활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하며 지역주민 문화적 삶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등 지역 공동체와 연계, 결합된 다양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제주의 문화예술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중이다.

23 월	전시 <안소희 개인전>	갤러리 노리	11. 21 - 12. 12
24 화	전시 <걷고 걷어 그리며 그리다>	문화공간 양	11. 7 - 12. 31
25 수	전시 <2015 제주아트페어 기획전시 - 대양>	비아아트	10. 29 - 11. 30
26 목	-		
27 금	전시 <J-Together 예술가와 함께하는 그림 있는 마을 2부>	제주현대미술관	10. 17 - 11. 30
28 토	전시 <류인 : 존재의 연소>	아라리오뮤지엄 탑동시네마	9. 19 - 3. 20
	전시 <헬로!아티스트>	아라리오뮤지엄 탑동바이크샵	10. 10 - 1. 3
	전시 <묵음>	아라리오뮤지엄 동문모텔II	9. 19 - 3. 20
29 일	-		

/ 제주시

갤러리 노리
Gallery Nori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용금로 891
064-772-1600

2010년,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내에 개관, 운영되고 있는 현대미술 전문 갤러리이다. 파란 잔디밭과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규모의 전시실이 하나로 어울러져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발굴, 소개는 물론 국내외의 중견작가들을 제주지역에 초대하는 전시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문화예술행사를 다채롭게 펼쳐 보이고 있다.

전시_
안소희 개인전



제주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젊은 작가, 안소희의 개인전이다. 안소희 작가의 그림들은 대부분 낙서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생각 없이 시작된 낙서에 작가의 상상력을 더해 그림으로 완성해가는 안소희 작가, 그녀가 이번 전시에 선보일 작품들은 꿈속에 만난 과거의 사람들과 현재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 들과 함께한 무의식의 순간들을 화려한 색채들로 그려낸 작품들이다.

전시기간 : 11. 21(토) - 12. 12(토)
관람시간 : 10:30 - 18:30 (수요일 휴관)
관람료 : 무료

담화헌갤러리
Damhwahun Gallery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축산마을북길 55
blog.naver.com/damhwahun



도예공방과 카페, 살림집이 함께 자리하여 레지던시와 교육프로그램, 체험행사, 세미나 등을 운영하며 제주 옹기의 특징과 우수성을 널리 소개하고 알리는 도예 전문공간이다. 제주 화산토로 빚어내는 옹기제작 체험교실을 예약을 통해 상시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담화헌 앞마당에서는 소박하지만, 유쾌한 장터(마르쉐)가 열리고 있다. 장터(마르쉐)에서는 젊은 도예작가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공예작가들의 작품이 선보이고 있으며 직거래 판매되기도 한다.

돌하르방공원 ●
Dolharbang Park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서 1길 70
064-782-0570 | www.dolharbangpark.com



제주 토박이 예술가, 김남홍 작가가 제주를 대표하는 상징물, 돌하르방을 테마로 조성한 야외조각공원이다. 제주도 내에 흩어져 있던 각양각색의 돌하르방과 현대적으로 재현한 작품들이 공원 내 곳곳에 설치, 보존되고 있다. 평화를 테마로 제작된 현대조각품과 돌하르방이 한자리에 전시되는 공간이 공원 내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옹기토로 하르방과 토우 등을 만들어 보는 체험공방, 하늘갤러리, 산책길, 찻집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다.

문화공간 양
Culture Space Yang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거로남 6길 13
064-755-2018 | www.culturespaceyang.com



2013년 제주시 외곽에 위치한 화북동 거로마을에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는 대안공간 성격의 문화공간이다. 김범진 관장의 할머니가 살던 옛 가옥을 철거하지 않고 조금 고쳐 전시 공간, 작업 공간, 거주 공간으로 사용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숨 쉬며 활동하고 있는 곳이다. 제주 지역의 젊은 작가들을 발굴, 소개하는 전시를 비롯하여 주민참여 공방프로그램, 강연회 등 다양한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다.

전시_
걷고 걷어 그리며 그리다 - 이지연 展

제주도 출신의 젊은 작가, 이지연이 거로마을의 오랜 역사와 옛 이야기를 토대로 만든 지도 그림들을 선보이는 전시이다. 도로가 생기면서 사라져 버린 거로마을의 종갓집들, 화북천 곳곳의 지명에 서려있는 옛 삶의 모습들, 4·3사건 때 소개 작전 이후 1만평의 부지에 만들어진 성의 동문과 서문 등이 현재 마을의 주요 장소인 거로마을운동장, 거로마을회관, 화남경로당 등과 함께 표시된 마을그림을 소개하고 있다.

전시기간 : 11. 7(토) - 12. 31(목)
관람시간 : 10:00 - 18:00 (월요일 휴관)

비아아트
Via Art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15길 6 대동호텔 1F
064-723-2600



제주시의 구도심에서 4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대동호텔 내에 마련된 현대미술 전문 갤러리이다. 국내외의 젊은 작가들을 소개하는 전시를 개최하는 한편, 2014년부터 시작된 젊은 예술인을 위한 미술축제, 제주아트페어의 메인 전시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제주지역 작가를 비롯하여 국내외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 등이 전시, 판매되고 있는 아트 샵이 운영되고 있다.

전시_
2015 제주아트페어 기획전시
대양 - 이지유 展

2015 제주아트페어 기획전시로 마련된 제주도 출신의 젊은 작가, 이지유의 개인전이다. 제주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작가의 사적인 경험을 제주 근대사에 투영해 제작된 작품들이 소개되고 있다. 특히 제주 여성의 삶에 주목하여 제주여성을 한 소설, 영화, 다큐멘터리, 사진 등을 분석하고 이를 작가 특유의 시선으로 재해석하여 이미지화한 작품들에 주목해 볼만한 전시이다.

전시기간 : 10. 29(목) - 11. 30(월)
관람시간 : 10:30 - 19:00

아라리오뮤지엄 동문모텔 I
Arario Museum DONGMUN MOTEL I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 37-5
064-720-8202 | www.arariomuseum.org



전시_
바이 데스티니 展

아라리오뮤지엄의 소장품을 소개하는 제주 아라리오 뮤지엄의 개관전이다. 이번 전시는 기존 건물을 부분적으로 보존하면서 8m가 넘는 대규모의 전시공간부터 작은 구석공간까지 활용하여 다양한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국내외 현대미술품들을 소개한다. 뿐만 아니라 미술관 곳곳에서 예술과 만나 새롭게 재탄생된 제주의 흔적 또한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시기간 : 상설전
관람시간 : 10:00 - 19:00 (연중무휴)
관람료 : 동문모텔 I/II 통합권 - 성인 10,000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 4,000원

아라리오뮤지엄 동문모텔 II
Arario Museum DONGMUN MOTEL II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 23
064-720-8203 | www.arariomuseum.org



전시_
묵음 展

조각, 설치, 퍼포먼스, 음악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서로 영향을 주며 함께 하나의 전시를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묵음>은 예술의 형식 범위를 확장시키는 세 그룹의 새로운 시도를 보여준다.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난 실험적인 작품들, 그리고 다양한 아티스트들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묵음>전은 공연, 전시 그리고 음반 등 다양한 협업의 결과물들을 선보이며 신선한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전시기간 : 2015. 9. 19(토) - 2016. 3. 20(일)
관람시간 : 10:00 - 19:00 (연중무휴)
참여작가 : 김인배, 앵클어택, 좋겠다 프로젝트
관람료 : 동문모텔 I/II 통합권 - 성인 10,000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 4,000원

아라리오 뮤지엄 탑동바이크샵
Arario Museum TAPDONG BIKESHOP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탑동로 4길 6-12
064-720-8204 | www.arariomuseum.org



전시_
헬로! 아티스트 展 - 창조하는 자, 그리고 공감하는 자

아라리오뮤지엄과 네이버문화재단이 젊은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기획, 공동 개최하는 전시이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 4명의 작가들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현실을 작가 특유의 독특한 시선으로 표현하고 각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제작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기간 : 2015. 10. 10(토) - 2016. 1. 3(일)
관람시간 : 10:00 - 19:00 연중무휴
참여작가 : 강서경, 김상진, 백현주, 장종완
관람료 : 탑동시네마/바이크샵 통합권 - 성인 12,000원
청소년 8,000원
어린이 5,000원

아라리오 뮤지엄 탑동시네마
Arario Museum TAPDONG CINEMA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탑동로 14
064-720-8201 | www.arariomuseum.org



서울과 천안에 아트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아라리오 뮤지엄이 (주)아라리오 창업자 김창일 회장의 컬렉션을 기반으로 2014년, 제주시의 구도심에 문을 연 현대미술 전문 아트스페이스이다. 과거, 영화관, 모텔, 바이크샵 등으로 운영되던 4개의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문화 공간으로 조성한 곳이다. 앤디 워홀, 안토니 곰리, 김인배 등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이 상설 전시가 되고 있으며 기획 전시도 함께 개최되고 있다.

전시_
바이 데스티니 展

<바이 데스티니>는 아라리오뮤지엄의 소장품을 소개하는 제주 아라리오뮤지엄의 개관전이다. 이번 전시는 기존 건물을 부분적으로 보존하면서 8m가 넘는 대규모의 전시공간부터 작은 구석공간까지 활용하여 다양한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국내외 현대미술품들을 소개한다. 뿐만 아니라 미술관 곳곳에서 예술과 만나 새롭게 재탄생 된 제주의 흔적 또한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시기간 : 상설전
관람시간 : 10:00 - 19:00 (연중무휴)
관람료 : 탑동시네마/바이크샵 통합권 - 성인 12,000원
청소년 8,000원
어린이 5,000원

전시_
류인 : 존재의 연소 展

43세에 요절한 천재화가 류인의 작품은 충실한 사실적 묘사를 기반으로 한국 추상화단의 대가인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감각, 희곡작가이자 교수인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무대 연출의 유전적 재능에 그만의 독특한 상상력이 더해져 가장 극적인 장면을 연극적 장면으로 재구성하여 연출하였다. 류인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이 흐른 지금, 예술을 위해 한 존재를 바친 류인과 그의 묵직한 브론즈 작품은 흥미와 발상 위주로 유행을 좇아 흘러가는 현대미술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될 것이다.

전시기간 : 2015. 9. 19(토) - 2016. 3. 20(일)
관람시간 : 10:00 - 19:00 (연중무휴)
관람료 : 탑동시네마/바이크샵 통합권 - 성인 12,000원
청소년 8,000원
어린이 5,000원

재주도좋아~반짝반짝 지구상회
Jaejudojoa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로 2길9 반짝반짝 지구상회
www.jaejudojoa.com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를 다니며 만난 30대 초 ·중반의 청년들이 뭉쳐 만든 곳이다. 비치코밍(beachcombing)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창작 워크숍을 비롯하여 문화예술 교육, 레지던시 프로그램, 전시 등 예술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 앞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를 이용해 장식품이나 악세사리 등을 제작하는 등 아트상품 개발사업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제주 아트창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383번지



제주도 토박이 조각가, 박금옥 작가가 조용한 마을 내에 버려진 창고를 자비를 들여 개조, 마련한 창작공간이다. 제주지역의 신진작가와 실험예술의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기능하며 지역미술 활성화를 위한 전시를 비롯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예술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현대미술관 ●

Jeju Museum of Contemporary Art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 14길 35
064-710-7801 | www.jejumuseum.go.kr

제주시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안에 위치하여 현대미술을 전문으로 운영되는 미술관이다. 김흥수 화백 기증 특별전시실과 상설전시실, 2개의 기획전시관으로 꾸며져 있다. 김흥수 화백 기증특별전시실에서는 故 김흥수 화백이 제주현대미술관에 작가가 기증한 20여 점의 작품이 상설 전시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획전시가 기획전시실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 밖에도 야외공연장과 어린이 야외조각공원이 설치된 야외정원을 갖추고 있으며 야외정원에는 아트샵, 커피숍 등이 자리하고 있다.

전시_
J-Together 예술가와 함께하는 그림 있는 마을 2부 展
제주현대미술관에서 개최했던 <제주 - 아시안 현대미술 특별교류>전과 함께 진행되었던 '아시아 예술 소통 프로젝트(AACP)'의 결과를 조망하는 전시이다. 그간 저지리 지역 내 각각의 공간에서 진행되었던 9명의 작가 총 35점의 작품을 한 자리에 모아 선보이고 있다.

전시기간 : 10. 17(토) - 11. 30(월)
관람시간 : 9:00 - 18:00 (수요일 휴관)
참여작가 : 김남숙, 김소라, 김지영, 오상열, 해요 등
관람료 : 어른 1,000원, 청소년/군인 500원, 어린이 300원

/ 서귀포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KIMYOUNGGAP Gallery Dumoak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로 137
064-784-9906 | www.dumoak.com



2005년 타계한 故김영갑 사진작가가 루게릭병으로 투병 중이던 2002년, 학생 수 감소로 폐교한 초등학교 부지 위에 마련한 사진갤러리이다. 20여 년 가까이 제주에 거주하며 오직 제주의 바람, 구름과 함께 제주도의 오름, 중산간, 마라도, 해녀 등 제주의 자연과 사람만을 찍어 온 김영갑 작가의 작품을 상시 전시하고 있다. 김영갑 작가의 유품전시실과 함께 무인 찻집이 운영되고 있다.

관람시간 : 9:30 - 17:00 (매주 수요일, 설날, 추석 휴관)
관람료 : 일반 3,000원,
청소년/제주도민/군인 2,000원
어린이/경로 1,000원
7세미만/국가유공자/장애인 무료

지역문화공간 소개

왈종미술관 ●

Wal Chong Museum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214번길 30
064-763-3600 | www.walartmuseum.or.kr



1990년부터 제주도에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이왈종 화백이 사재를 털어 2013년, 개관한 미술관이다. 이왈종 화백의 한국화 작품 외에도 판화, 조각, 도자기, 미디어아트 등이 상설 전시되고 있다. 미술관 내에는 화백의 작업공간이 함께 자리하고 있으며 어린이미술 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11월 문화가 있는 날

문화가 있는 날

서울

시간	장소	내용	관람료	문의	비고
	DDP	간송문화전 5부 <화훼영모>	입장료 할인(18시 이후, 현장 매표소 구매시)	02-2153-0046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21시까지 연장 개장(20시까지입장)	종일 무료 관람(기획전시 할인)	02-2022-060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1시까지 연장 개장(20시까지입장)	종일 무료 관람	02-3701-9500	
15:00 - 16:00	금호미술관	<현대미술 감상법>특강 / 세미나실(당일 현장예매시 선착순 30명)	전시 입장료 50%할인	02-720-5114	
	대림미술관	<헨릭 빕스코브 전>	입장료 20% 할인	02-720-0667	
	밀알미술관	전시시간 연장(1시간)		02-3412-0062	
	사비나미술관	Color Study - 색채연구	관람료 할인 : 성인 5,000원 → 3,000원 /어린이, 청소년 : 3,000원 → 2,000원	02-736-4371	
	삼성미술관 Leeum (리움)	상설전, 기획전	Day-Pass 입장권 50% 할인 * 타 할인혜택과 중복은 안됨	02-2014-6900	
	상원미술관	똑딱똑딱! 내가 꾸민 닥종이로 액자시계 만들기 / 무료 체험 교육 프로그램		02-396-3185	www.youthnavi.net 를 통한 사전예약
	서울미술관		관람료 50% 할인	02-395-0100	
	성곡미술관	연장운영(20시까지), 도슨트 2시, 4시 7시 진행	20인 단체 (1,000원 할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4,000원	02-737-7650	
	아르코미술관	특별 도슨트 운영(18시, 약 20분 소요) 참여인원 : 1인 이상 - 10인 이내(단, 10인 이상의 단체인 경우 사전 예약에 한해서만 투어 진행)	상시 무료	02-760-4614	21시까지 연장 운영 당일 현장 예약 불가
	아트선재센터		당일관람무료	02-733-8947	
	아트센터 나비	전시_Makeable City 교육_Nabi DIWO(Do It With Others) Lab		02-2121-1031	'문화가 있는 날' 21시까지 연장운영
12:00 - 19:00	어반플루토		자체 갤러리 관람료 상시 무료	02-2633-1343	
11. 24 - 12. 6	예술의전당(한가람미술관)	정헌메세나 - 아름다운 다리 2	무료관람	02-580-1300	
11. 20 - 11. 27	예술의전당(한가람미술관)	응축된 시간	무료관람	041-550-5244	
	유나이티드 갤러리		관람료 상시 무료	02-539-0692	
	자하미술관	Artist Talk		02-395-3222	
	코리아나미술관		입장료 1,000원 할인(본 입장료 3,000원)	02-547-9177	
16:00	토탈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스크리닝 프로그램 <나의 건축가> 상영		02-379-3994	
	포스코미술관		상시무료	02-3457-1665	
11:00	한미사진미술관	-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특별 도슨트	당일 무료관람	02-418-1315	
16:00		- '카메라로 사물 바라보기' 체험프로그램	어린이 및 청소년 15명, 참가비 무료		
	한익환서울아트박물관	체험프로그램 도자기에 문양그리기	상시 무료	02-796-0100	
	환기미술관		전시티켓 30%할인	02-391-7701	

경기

시간	장소	내용	관람료	문의	비고
	C 아트 뮤지엄		상설전시, 할인혜택 성인 3,000원, 어린이 2,000원	031-775-6945	
	기산미술관	[문화교육] 수요문화강좌	무료	031-943-8232	
10:00 - 18:00	가일미술관	목판으로 보는 세상	1000원씩 할인 성인 2,000원, 학생 1,000원	031-584-4722	현장결제, 전화예매 <단체 중복할인 불가>
17:00 - 18:00		가일미술관 정기 음악회 / 돌체비타 앙상 블 가곡의 밤	20,000원 할인적용 10,000원(할인적용시)		
10. 20 -'16. 1. 17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Bonjour, La France!	문화가 있는 날 관람료 : 일반 4,000원 / 학생 2,000원	031-960-0180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종일 무료 관람	02-2188-6000	21시까지 연장 개장 (20시까지입장)
	남송미술관		전시 무료 관람	031-581-0772	
10:00 - 19:00	단원미술관		상시 무료	031-481-0506	
	닻미술관		기획전시 관람료 무료(현장예매)	070-4193-2581	
10:00 - 17:30	마가미술관	2015 마가미술관 특별 상설展	문화가 있는 날 50%할인	031-334-0365	
	모란미술관		개인 및 가족 무료입장, 20인 이상 단체 관람객은 20% 할인	031-594-8001	
	미메시스아트뮤지엄	[문화교육] "미메시스 키즈룸" 어린이 미술학교 <모두를 위한 축제 : 꼴라주>		031-955-4410	
10:00 - 18:00	보름산미술관		개인일 경우 무료, * 문화가 있는 날에는 단체는 안받습니다.	031-985-0005	미리 전화 연락 시, 관람객 있을 경우 연장개방 가능
	백남준아트센터		당일 입장료 무료	031-201-8500	
	서호미술관	[전시] 두물머리 재회(강경순 초대전)	일반 50% 할인, 남양주시민 무료	031-592-1865	20시까지 야간 개장
		[교육] 소통하는 문화마당 건축과 음악	무료		
	설미재미술관	설악 커뮤니티 아트(성인미술 아카데미)	무료관람	031-585-6276	
	양평군립미술관		매월 '문화가 있는 날' 무료입장(전시가 있을 시)	031-775-0068	
10:00 - 17:00	어우재미술관		'문화가 있는날' 관람료 무료	031-883-9080	
	여주세계생활도자관	<여주세계생활도자관 소장품 특별전, 한국생활도자 100인전 7회차 기획전시>	전시관 상시 무료입장	031-887-8250	
	영은미술관	서울조각회 초대전, 9기 입주작가 신소영작가 개인전	입장료 50% 할인	031-761-0137	
	유리섬미술관	체험프로그램 + 도슨트 진행	무료	032-885-6262	체험프로그램 신청 학생들 대상으로 각 8명 선발 + 가족 1인 동반
	이영미술관		당일 관람료 할인 (성인 5,000원/청소년 3,000원/미취학 2,000원)	031-282-8856	
	이천세계도자센터	이천세계도자센터 기획전 '동유럽 현대도자전 : 소장품으로 돌아보는 동유럽 여행', '쉼, 흙길 걷다 2부' 수장고형 미술관 토야지움	'문화가 있는 날' 무료입장	031-645-0730	
10:00 - 18:00	정문규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특별기획 연주회 Nine9 금관앙상블	당일 관람료 무료	032-881-2753 032-889-3753	
	한국미술관	한국미술관과 함께하는 예술체험 프로젝트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당일 전시관람 무료	031-283-6418	
18:00	해움미술관	퓨전국악공연 '천우'		031-252-9194	
	호암미술관		입장료할인 : 일반 2,000원, 청소년 1,000원 (정상가 : 일반 4,000원, 청소년 3,000원) * 현장예매, 중복할인 불가(단체 할인 포함)	031-320-1801~2	
11월 매주 수요일	화이트블럭	<New & Classics 북유럽의 감각, 핀란드 디자인 공예> 展 전시 연계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진행 - 전시관람 진행 : 큐레이터 / 체험 (엽서만들기 / 크리스마스 가랜드 만들기 中 택 1)		070-7862-1147	

인천

시간	장소	내용	관람료	문의	비고
- 20:00	인천아트플랫폼		무료	032-760-1004	행사 없을 시 연장개관 없음
- 22:00	인천아트플랫폼 H동			032-455-7115	22시까지 연장개관
11. 25, 19:00	인천시립박물관 컴팩스마트시티	“11월 컴팩스마트시티 마수예술극장 - 패딩턴” 컴팩스마트시티 3층 영상관 / 전화예약접수 (선착순100명)		032-850-6030	21시까지 야간개방

대전 / 충청

시간	장소	내용	관람료	문의	비고
	남철미술관	남철 조각전	상시 무료	042-525-2097	
	당림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당일 관람료 무료	041-543-6969	사전 예약시 야간개방
9. 4 - 12. 20	대전시립미술관	[1~4전시실]21C 하이퍼리얼리즘		042-602-3256	단체할인적용
11. 13 - 12. 13		12회이동훈미술상 본상 수상작가전 : 박서보	무료		
- 21:00	리각미술관			041-565-3463	21시까지 연장개관
9:30 - 18:00	모산조형미술관	우리사이 그림전	상시 무료	041-933-8100	
	선화기독교미술관		상시 무료	042-525-3141	
	쉐마미술관	음율과 리듬과 퍼포먼스 - 클래식과 함께하는 현대 미술 감상 (쉐마미술관 야외공연장)	현장할인 / 10:00 - 17:00 동절기 / 야간개방은 유동적 체험프로그램 50%할인 (단, 해당일 프로그램이 운영하고 있을 때에 한함)	043-217-3269	전시도록무료제공
	신미술관	신미술관 특별기획 <이재삼 개인전>	무료 관람	043-264-5545	
		문화가 있는 날 연계 프로그램 <그림과 음악이 있는 미술관>	무료 체험 가능		
	스페이스몸		문화가 있는 날 행사 무료(상시무료)	043-236-6622	
11:00, 13:00, 14:00	아미미술관	전시해설 프로그램		041-353-1555	
- 20:00	우민아트센터	도슨트 프로그램 어린이 체험미술 프로그램 <수요일요수ㄹ>	상시 무료	043-222-0357	20시까지 연장개관
10:00 - 16:00	여진불교미술관		상시 무료	042-932-8466	
18:30 - 20:00	이응노미술관	Blind talk-작가와의 대화 (스페이스몸 3전시장)	당일 관람료 무료	042-611-9805	21시까지 야간개방
20:00 - 21:00		이응노톡 (이응노Talk), 미인톡 (美人Talk)			사전예약 필수
미술 작품 해설 11:30, 15:30	임립미술관	1,000원으로 즐기는 미술감상과 체험 운영		041-856-7749	단체는 1주일 전까지 예약, 개인 당일입장 가능
10:30 - 11:30		미술체험 ‘그리기 - 수묵화’			단체 1주일전까지 예약, 개인 1인 1체험 가능
14:30 - 15:30		‘만들기 - 점토로 빚기’			
	진천생거판화미술관		당일 무료관람	043-539-3609	

전북

시간	장소	내용	관람료	문의	비고
	VM아트 미술관		50% 할인	070-8915-8123	
	교동아트미술관	티셔츠/평잔체험, 무료전시, 전시연계강연, 밴드공연		063-287-1245	
	금구원야외조각미술관		당일 관람료 50%할인	063-584-6770	
	전주미술관	전시_아름다운 중국문화-중국고미술품 展	무료	063-283-8887	
		체험_전통문양 오방컵 전사하기	무료		
		강연_오색빛깔 찬란한 문화시대, 강사 : 민종기	무료		
	최북미술관		무료(상시무료)	063-320-5636	21시까지 연장

광주 / 전남

시간	장소	내용	관람료	문의	비고
	GS칼텍스 예울마루	허영만展 - 창작의 비밀	50% 할인	061-808-7080	
- 20:00	광주시립미술관		무료	062-613-7100	당일 2시간 연장개방
	국윤미술관	2015사립미술관 문화 · 교육프로그램 '문화를 즐겨樂!' 성과물 전시		062-232-7335	
10:00 - 12:00	남포미술관	군부대 행사		061-832-0003	
11:00 - 12:00		유치원 음악회			
	다산미술관	전시연계프로그램	무료	061-371-3443	
	대담미술관	'11월 문화가 있는 날' - 대담미술관 명사 초청 강연회 '악樂! 악Rock! 소리나게 놀아보자~'		061-381-0082	초청명사 : 정동하(가수), 명창 박세연
	도화헌미술관		상시 무료	061-832-1333	22시까지 야간개방
10:00 - 20:00	명지미술관	소장품 상설전	상시 무료	061-383-2576 062-371-2277	
	무등현대미술관		무료	062-223-6677	20시까지 야간개방
	무안군오승우미술관	오승우미술관 소장작품展	상시 무료	061-450-5481	단체관람 예약시 큐레이터 설명
	북구 자미갤러리	누드크로키 전	상시 무료	062-410-8395	
19:00 - 21:00	소소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 문학과 전시의 만남		061-375-1995	
9:00 - 17:30	아천미술관		무료(상시무료)	061-472-9220	
10:00 - 18:00	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	바다를 넘어 展	상시 무료	061-470-6841~3	
		채색화의 향연 展			
	우제길미술관		상시 무료	062-224-6601	
	우종미술관		입장료 50% 할인	061-804-1092	
- 20:00	은암미술관	프로그램_미술관 왔수다		062-231-5299	20시까지 연장전시
	의재미술관	도슨트 전시해설 2회	무료입장	062-222-3040	
	잠월미술관		상시 무료	070-8872-6718	문화가 있는 날 전시 설명과 19시까지 연장 개방
	장전미술관	상설전	무료	061-543-0777	
		주제전_가을 "단풍" 그림전	무료		
		체험_진도 지킴이 "점토로 진돗개 만들기"	무료		
	전남옥과미술관		5백원 → 무료	061-363-7278	
13:30 - 15:30	조선대학교미술관	지역 청소년과 함께하는 "미술에 말 걸기"		062-230-7832	
	함평군립미술관 (함평엑스포공원 내)		미술관 무료개방(생태관 제외)	061-320-2276	

강원

시간	장소	내용	관람료	문의	비고
	국제현대미술관	관람료 50% 할인. 도슨트 운영. 작가와의 대화		033-375-2752	
	내설악예술인촌 공공미술관		상시무료관람	033-463-4081	미술관 야간개장
	내설악예술인촌 공공미술관		상시무료관람	033-463-4081	미술관 야간개장
	여초김응현서예관		무료(상시무료)	033-461-4081	당일 20시까지 연장개장
	일현미술관		당일 무료입장	033-670-8450	
10:00 - 18:00 동절기 9:00 - 17:00	쾌연재도자미술관		무료	033-372-8436	관람객 있을 경우 문화가 있는 날에 한해 19시까지 연장 가능
	하슬라아트월드	문화가있는날 야외조각공원	6,000원 → 무료	033-644-9411	

대구 / 경북

시간	장소	내용	관람료	문의	비고
	경북대학교 미술관	일본의 공예와 민예	무료(상시무료)	053-950-7968	
10:00 - 18:00	계명대학교 극재미술관		상시무료	053-620-2381	단체관람 시 예약 필수
	대구미술관		특별전 50% 할인 (2,500원)	053-790-3000	관람시간 1시간 연장
	대구예술발전소		상시무료	053-803-6251~7	
	시안미술관	ART SWITCH 재생, 스위치를 켜라!	무료	054-338-9391~3	전시 설명 진행 14:00, 15:00, 16:00
9:30 - 17:00	신풍미술관	Root of Art (예천군문화회관)	당일 관람료 무료	054-653-9329	
15:00 - 16:30		달콤한 문화마을 작은 음악회(신풍미술관)			
	영담한지미술관	상설전시	당일 관람료 무료	054-373-3638	
11. 24		문화교육_맞이하는 미술관			
	청송야송미술관		무료(상시무료)	054-870-6536	관람객이 미리 연락할 경우, 야간 개장 가능
	포항시립미술관		무료(상시무료)	054-250-6000	
11:00		미술관 음악회 『MUSEUM & MUSIC』	무료		
	향암미술관	당일 관람료 무료		054-787-0001	

부산 / 경남

시간	장소	내용	관람료	문의	비고
	TL갤러리	이한석 개인전	상시무료	051-623-4387	
	갤러리수		상시무료	051-623-1230	
	경남도립미술관		당일 무료 관람	055-254-4600	
	고은사진미술관		상시무료	051-746-0055	
	고은컨템포러리사진미술관	상시무료		051-744-3924	
	국제아트타운(갤러리)		상시무료	051-244-8298	
	대산미술관		무료입장 및 체험비 50% 할인	055-291-5237	
9:30 - 18:30	두원아트센터		상시 무료	051-757-7999	단체관람시 사전 전화예약
9:00 - 18:00	사상갤러리(구청1층 갤러리)	도자기 작품 50여점 전시회	무료	051-310-4061	
14:00 - 17:00	진주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연계 문화예술 교육 축제(진주복지원) 사전 전화 예약시 전통미술교육(민화그리기 등) 무료 참여가능/에코백 무료 제작(그림주제 : 일월송)	당일 관람료 무료	055-747-7220	문화가있는날 야간개방 21시까지 (요청시 22시까지 가능)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문신조각 사진 콘테스트 전	무료	055-247-2100	야간개방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무료(체험프로그램 제외)	055-340-7000	
관람가능시간 10:00 - 11:30 14:00 - 15:30 16:00 - 17:30	키스와이어 센터		상시 무료	051-760-2604	사전 인터넷예약 필수
10:00 - 18:00	킴스아트필드		상시무료	1관, 051-517-6800 2관, 051-517-6820	
10:00 - 18:00	통영옻칠미술관		'문화가 있는날' 관람료 무료	055-649-5257	단체관람 시 전시안내 (단체관람은 전화예약)
	한광미술관	한국 고서화 및 서예 전시	상시무료	051-469-0095	
	현대예술관	로비 음악회 및 야외음악회 진행	공연 : 25,000 → 15,000원 ※20:00 시작 소공연장 공연에 한함 전시 : 3천원 미만 - 무료입장, 3천원 이상 - 50%할인 영화 : 7000원 → 5000원 ※18:00~20:00 시작 영화에 한함 ※중복할인 불가	052-202-6300	20시 까지 연장 운영 (매주 수요일)
	홍티아트센터	상설전	상시무료	051-263-8662	

제주

시간	장소	내용	관람료	문의	비고
하절기 9:00 - 20:00 동절기 9:00 - 18:00	기당미술관		당일 관람료 무료	064-733-1586	
	도깨비공원	상설전	'문화가 있는 날' 무료입장	064-783-3013	
	돌하르방공원		무료입장	064-782-0570	
	왈종미술관		전 관람객 40%할인(기존 할인대상 제외)	064-763-3600	
하절기 9:00 - 20:00 동절기 9:00 - 18:00	이중섭미술관		당일 관람료 무료	064-760-3567	
9:00 - 18:00	제주도립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무료관람	064-710-4300	5시 30분 매표마감
	제주문예회관 전시실	[제1전시실] 2015 제주지부회원전 및 한, 중 국제사진교류전 [제2전시실] 제주미협 발전기금 마련전		064-710-7601	전시 작품 설명 및 작가와의 대화의 시간
	제주현대미술관	전시도록 무료 나눔, SNS 인증샷 이벤트 - 아메리카노 1잔 무료		064-710-7612	행사참여는1인 1회에 한함
	포토갤러리자연사랑		무료관람('문화가 있는 날'만 적용)	064-787-3110	

사립미술관 문화 · 예술 프로그램 지원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무료관람 ◆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예술경영지원센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전국의 미술관에서 열리는 다양한 교육, 행사 등을 만나며 프로그램을 할인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문화가 있는 날'에 사립미술관 관람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문화 · 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시간	장소	내용	세부내용	문의
15:00 - 16:00	금호미술관	2015 '함께하는 미술관' 프로젝트	현대미술 감상법	02-720-5114
10:30 - 13:00	대림미술관	PLAY WITH HENRIK!	해피칠드런 '프런키 : Project Runway Kids	02-720-0667
16:00 -	사비나미술관	나는 미술관으로 힐링하러 간다.	아티스트 토크-베른트 할프헤르	02-736-4371
18:00 -			Museum Concert - George Durham	
10:30 - 12:30	상원미술관	'즐김'과 '성찰'을 담다! [감성체험+지성교육] 함께 누림 문화예술 여행	똑딱똑딱! 내가 꾸민 닥종이로 액자시계 만들기	02-396-3185
15:00 - 17:00	자하미술관	인왕산 무지개처럼 !	류준화 아티스트 토크	02-395-3222
16:00 - 18:00	토탈미술관	Artists in Films_스크리닝 프로그램	마이 아키텍트 (My Architect) : 루이스 칸 다큐 2003	02-379-3994
11:00 - 12:00 16:00 - 17:30	한미사진미술관	미술관과 함께하는 사진이야기 TALK, TALK, TALK	1.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특별한 만남 2. 카메라로 나와 사물 바라보기	02-418-1315
10:00 - 13:00	헬로우뮤지움	수요일엔 미술관에서 놀자! - 찾아가는 미술관	박수근 작품 감상 및 미술도구 체험 (외부 구립어린이집,유치원 진행)	02-562-4420
10:00 - 12:00 15:00 - 17:00	환기미술관	환기미술관 ARTon_예술로 소통하기	(전시감상) 작품과 소통하기 (아뜰리에) '아트테라피 작품 제작활동'	02-391-7714

경기

시간	장소	내용	세부내용	문의
10:30 - 12:30	가일미술관	시시콜콜 미술관	애니공화국	031-584-4722
13:00 - 17:00	기산미술관	수요문화강좌	21세기 현대조각의 흐름(베니스비엔날레 중심)	031-943-8232
11:00 - 13:00	블루메미술관	예술 육아의 날	디자인과 발명의 관계 이해 : 엄마표 장난감을 활용한 워크숍	031-944-6324
17:00 - 20:00	서호미술관	소통하는 문화마당	건축가 김억중의 Lecture + Concert (한옥에 관한 강의) 건축과 음악, 공간을 노래하다	031-592-1865
9:30 - 12:00	설미재미술관	설악 커뮤니티 아트(성인미술 아카데미)	원근에 대하여 : 고흐의 침대와 원근법	031-585-6276
10:00 - 12:00	유리섬미술관	속속이야기-유리 숲 속 이야기	유리작가와 학생의 협업작업 체험프로그램과 전시진행	032-885-6262
17:00 - 19:00	한국미술관	한국미술관과 함께하는 예술체험 프로젝트	수요 예술 감상	031-283-6418
미술관 문의	화이트블럭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가는 날	도슨트(or 큐레이터)와 함께 하는 '핀란드 디자인' 전 미술감상 아카데미 ,엽서만들기, 가랜드만들기,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만들기	070-7862-1147
10:00 - 12:00	미메시스 아트뮤지엄	<미메시스 키즈룸> 어린이 미술학교	모두를 위한 축제 : 꼴라주	031-955-4402

대전 / 충청

시간	장소	내용	세부내용	문의
16:00 - 19:00	당림미술관	자연과 문화예술이 하나되는 미술관	도예강의_가족체험, 허유정작가와의 대화	041-543-6969
18:00 - 20:00	쉐마미술관	별이 빛나는 밤 + 락락락 미술 감상	음율과 리듬과 퍼포먼스 - 클래식과 함께하는 현대미술 감상	043-221-3269
17:00 - 18:30	스페이스몸 미술관	일상에 들어온 미술 : 블라인드 토크	프로젝트형 전시과정 해설, 작가와의 대화	043-236-6622
17:00 - 18:30	신미술관	수요일은 미술관 가는 날 - 보고 듣고 만들고 즐기고 !	그림 그리는 미술관 - Copyist Program	043-264-5545
15:00 - 16:00	우민아트센터	수요일요수ㄹ	나는야! 아티스트!	043-222-0357
16:00 - 18:00	임립미술관	움직이는 미술관 찾아가는 미술교실	마음을 담은 직장인을 위한 조형표현 교육프로그램	041-856-7749

전북

시간	장소	내용	세부내용	문의
14:00 - 15:00	전주미술관	한옥마을을 품은 미술관 - '사랑방에서의 소소한 재미'	교양강좌 : 오색빛깔 찬란한 문화시대 미술체험 : 전통문양 오방컵 전사하기	063-283-8887

광주 / 전남

시간	장소	내용	세부내용	문의
10:00 - 12:00	국윤미술관	문화를 즐겨樂	기법체험 프로그램	062-232-7335
14:00 - 16:00			인문학 강의 프로그램	
11:00 - 12:00	남포미술관	문화예술로 즐기는 행복한 여가	어린이음악회-클래식음악과 함께 보고 듣는 동화책 - 전시감상 : 풍류와 해학이 담긴우리의 서체, 동국진체를 만나다!	061-832-0003
19:00 -	대담미술관	퓨전음악회 악(樂) 악(ROCK)소리나게 놀아보자!	박세연 국악공연, 정동하 콘서트, 국악과 대중음악의 하모니 관객 참여형 인터렉티브 액티비티(interactive activity)	061-381-0082
18:00 - 20:00	무등현대미술관	ART Therapy_마음충전소	지친 그대들, 위안을 얻었나요?	062-223-6677
15:00 - 16:30	우제길미술관	달달한 수요일, 불타는 주말, 문화로 바르다!	사비나미술관 이명옥 관장 인문학 강의 '피카소처럼 생각하기'	062-224-6601
14:00 - 16:00	은암미술관	미술관 What 수다 (미술관에 왔수다)	다양한 미술감상으로 변화된 자아탐색	062-231-5299
11:00 - 15:00	장전미술관	진도 지킴이 - 점토로 진돗개 만들기	진도 지킴이 - 점토로 진돗개 만들기	061-543-0777
13:30 - 15:30	조선대학교미술관	지역 청소년과 함께하는 '미술에 말 걸기'	꿈을 찾는 진로탐색 프로젝트 - 작품연계 체험프로그램, 아트 콜라보레이션	062-230-7832

강원

시간	장소	내용	세부내용	문의
14:00 - 17:00	하슬라 미술관	시네마 토크	예술영화 토크 및 영화 속 작가의 작업기법을 체험하는 교육프로그램	033-644-9411

대구 / 경북

시간	장소	내용	세부내용	문의
13:00 - 15:00	시안미술관	ART SWITCH 재생, 스위치를 켜라!	<자세히 들어야 아름답다> Step 1 - 환경 속 소리채집 Step 2 - 사운드아트 작품창작 Step 3 - 리스닝 진(Listening Zine) 작품전시	054-338-9391
11. 24 오프닝 10:00 - 17:00	신풍미술관	ROOT OF ART (예술의 뿌리)	ROOT OF ART 展 : 진행교육프로그램 최종전시	054-653-9329
11. 24 14:00 - 16:00	영담한지미술관	맞이하는 미술관	한지야 놀자, 노래하자 : 백닥섬유, 한지문화즐기기	054-373-3638

부산 / 경남

시간	장소	내용	세부내용	문의
15:00 - 18:00	대산미술관	찾아가는 수요창의 놀이터	찾아가는 미술관 전시 + 체험	055-291-5237
13:30-16:30	진주미술관	예술 ~ 얼씨구 좋다 !	지역사회와 소통해요	055-744-7220

제주

시간	장소	내용	세부내용	문의
10:00 - 13:00	포토갤러리자연 사랑미술관	오름과 포구가 들려주는 이야기	사진으로보는 제주문화이야기	064-787-3110

2015 미술주간행사 가이드북

2015. 11. 23 - 11.29

발행일 2015. 11. 23

발행인 박명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t. 061-900-2100
www.arko.or.kr

기획 양정진

편집 신지원

디자인 맹그로브아트웍스(주)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